



7

198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7 호

(루게 465)



◇◇◇◇◇◇◇◇◇◇

## 차 례

◇◇◇◇◇◇◇◇◇◇

승리자의 노래 .....	3
멀리 동남쪽으로.....	4
조선의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는 진정 누구인가 .....	5
유혹과 신념 .....	11
그 이름 빛나라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 .....	12
기쁨의 새 계절들은... .....	12
생각깊은 산마루.....	15
건설의 예술가 .....	15
설레네, 남산의 푸른 소나무.....	16
소사하의 집 .....	17
녀전사 걸으신 길은 오직 한길 .....	17
조국 .....	18
고향의 시내물 .....	30
첫새벽 .....	31
어머니 .....	36

산촌의 작은 역 .....	37
어머니의 마음 .....	37
불을 몰아간다 .....	38
해빛 넘치는 땅 .....	39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다운 얼굴과 모습이 보입니다 .....	44
좋다, 첫걸음 (외 1 편) .....	45
청춘들이 길을 떠난다 .....	45
첫 자욱 찍은곳 .....	46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	47
나를 부르는 기적소리 .....	48
로반우에 흘러가는 시간 .....	49
살아온 반생을 더듬어보며 .....	50
금별 .....	51
향토 .....	52
네 숨결소리를 들으며 .....	60
전력적산계는 가리킨다 .....	61
대동강 .....	62
녀인의 눈길에는 (외 1 편) .....	64
우리는 안다 .....	64

# 승리자의 노래

심봉원

승리자의 대오가  
금별의 은하를 펼쳤던 전승광장에서  
내 하늘땅에 대고  
온 넋으로 부르던 노래가 있나니

제국주의 미제를 타승한  
첫 환호성으로  
지구를 뒤흔든 영웅조선의 노래  
승리한 인민의 심장의 노래여

터져오르는 축포에  
벽차오르는 가슴을 진정 못해  
꽃보라에 묻히어 날리는  
위훈새긴 군기를 부여안고 부르던 그 노래

세월이 가고 또 가고  
이 머리에 흰서리 내린대도  
우리 부를 필승의 노래  
강철의 령장을 모신 영광의 노래여

아, 우리 수령님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인민들과 전사들속에 계시여  
일심동체인 이 땅우에 높이 올린 노래  
래일에도 영원할 그 메아리

잊을수 없으라  
철의 대오를 진두에서 이끄시며  
키넘는 총을 멘 나ער린 전사를 만나시여  
피땀스민 복수기록장도 보아주시고

앞에는 최전선이라고 울먹이며 막아서는  
항공감시원처녀의 그 간절한 만류에도  
싸우는 전사들이 보고싶어 간다시며  
포화를 뚫고 1211 고지에 오르시여

주체의 전법을 펼쳐주신 그이  
우리의 전사 하나하나는  
원췌 백놈, 천놈과도 바꿀수 없다시며  
손끝 하나 다쳐도 안된다시며  
전사들을 일일이 품안아주신  
수령님, 우리 수령님

때로는  
석수 떨어지는 지하공장을 찾으신  
해저문 그 길을 이으시여  
달빛아래 씨뿌리는 밭머리에서  
터갈린 손도 꼭 잡으시고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신 길우에  
환희로이 밝아온 승리의 날이여

위대한 그 령도 그 사랑 있어  
조선은 무적의 힘을 떨치며  
승리의 광장으로 달려왔나니  
그이는 진정  
천만의 심장속에 신념으로 간직된  
위대한 승리의 기치

오, 진정 그이 없인  
피끓는 천만의 심장들도  
강가의 모래알!  
그이 없인 진정 이룰수 없는  
우리의 백전백승!

그 위대한 기치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  
위대한 당의 두리에  
불패의 인민이 뭉치여  
미제를 타승한 첫 전승국 영웅조선에  
불멸할 노래여!  
승리자의 노래여!

# 멀리 동남쪽으로

김영길

그 밤은 은밀히 깊어가는 밤이었다  
전사들이 비껴든 멸적의 창검마냥  
이슬 젖은 대잎들 달빛에 번들거리는  
찌물쿠는 7 월의 그 밤은

위대한 전략에 따라  
대오는 가고있었다  
반공격의 드세찬 폭풍에 휩쓸려  
쫓겨온 원쑤의 무리  
한곳에 모여들어 악마구리 끓듯하는  
멀리 대전 동남쪽으로

승리의 신심 드높이  
대오는 가고있었다  
적들의 검은 심장에 박힌 비수인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으신  
작전의 화살표가 찌르고있는  
대전시의 동남쪽으로

진격의 함성높이 해방의 구간을 넓히며  
내닫던 호남평야의 먼 서쪽전선에서  
이틀도 아닌  
단 하루밤사이에  
감쪽같이 가야 할 그곳은  
수십리도 아닌  
수백리 험한 길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대포위작전의 빛나는 구상을  
걸음걸음 꽃피우는 길이였기에  
승리의 열쇠를 안아오는 길이였기에

그 밤 복수의 불을 안고 퇴성을 안고

대오는 굽이쳐갔다  
적들이 《불퇴의 선》이라 떠벌이던  
금강의 《최종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돌입하는 부대들과 숨결을 맞추며  
바람처럼 유유히  
대전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흐르는 한초한초를  
불타는 신념으로 높뛰는  
심장의 맥박으로 재이며  
한치한치 험령을 뚫는 그 길  
걸음걸음 생명으로 앞당기며...

맑은 하늘에서 생벼락이란 말  
이런 때 두고 하는 소리인듯  
몰박으로 쏟아져나오는  
징벌의 불줄기 불줄기  
앞뒤에서 조여드는 올가미에  
원쑤의 숨줄은 끊어졌거니

오오, 은밀히 깊어간 그 밤에 이어  
죽음의 아우성으로 소란스럽던 격전터여  
미제의 《상승사단》의 등허리를 꺾어놓고  
그 뒤통수를 호되게 조겨놓은  
력사의 날이어

위대한 주체전법의 산 모범으로  
세계의 전쟁사에 빛나는  
불멸의 그 작전 걸음걸음 받들어온  
전사들의 소리없는 발구름은  
승리의 새날을 부르는 퇴성이 되어  
혁혁한 조국사에 메아리쳐울려갔다

# 조선의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는 진정 누구인가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을 두고-

강성만

얼마전에 출판된 다부작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의 제4부 《그리운 조국산천》(박유학 작)은 제3부 《광복의 해발》(같은 작가)의 속편으로서 사상주제로 보나 생활적내용으로 보나 제3부와 뗄수 없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그 상, 하편을 구성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193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적후에서 조직전개하신 어려운 공작활동을 취급하면서 작품의 중심에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자는 진정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며 조선혁명만 오직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함으로써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것을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미학적분석을 통하여 확증하고있으며 독자들을 뜨거운 공감으로 이끌고 있다.

작품에 그려진 주창범과 한성옥사이 그리고 한성옥과 정지천사이 즉 신파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간에 력사적으로 얽히고 맺혔던 분규와 감정을 풀고 산지사방으로 갈라졌던 군중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시키는 과정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김정숙동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게 한 과정이였는바 이것이 곧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의 기본줄거리를 이루고있다. 작품은 이 과정을 국내혁명가들과 민족주의자들의 각이한 그릇된 주의주장을 극복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리하는 과정으로 그림으로써 높은 사상미학적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주인공들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탐구, 시대를 일반화하는 전형화의 힘,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심리묘사는 작품의 중요한 사상미학적특징을 규정하고있다.

## △ 의리심과 상호부조만으로써는 인민들을

불행에서 구원할수 없다.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은 반일유격구를 랑림산맥지구의 국내깊이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항일유격대의 국내진공작전을 적의 후방에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혁명적인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을 받아안고 이미 도천리에서 공작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위협을 무릅쓰고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파에로 떠나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부터 작품을 시작하고있다.

작품은 여기서 압록강과 장진강이 부딪치는 합수목에 자리잡은 신파떼목촌 합숙과 거기서 벌여지는 떼군들과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펼쳐보이고 있으며 그림으로써 이 작품의 제 3 부와의 관계, 신파지구가 항일유격대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밝히고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호상관계들을 맺어주고있으며 독자들의 감정을 점차 축적시키면서 마치 장엄한 관현악의 전주곡에서와 같이 독자들을 서서히 작품의 형상세계에로 끌어들이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떼목촌합숙은 결코 단순한 신파 떼군이나 뜨내기 품팔이군들이 요기나 하고 잠이나 자는 숙소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일체의 학정에서 신음하는 조국이였으며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의 비참한 생활의 축소였다.

작품은 서두로부터 작가의 분석적인 묘사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작가는 떼목촌인민들의 운명을 담았다고 보는 이 떼목촌합숙에 대하여 때로는 밖에서 투시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서 그 생활을 해부해보기도 하며 창작적환상의 나래를 자유로이 펼치면서 생활적으로, 또 력사적으로 거기에 깃들여진 인간생활의 사연들과 의미들을 미학적으로 분석하고있다.

신파의 떼목촌에 들어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제일먼저 만나게 되신 사람은 신파 떼목촌의 유지이며 떼목촌 《형제계》의 만형인 주창범이였다.

장편소설은 작품의 첫 부분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민족과 인민을 위하는 주창범의 맑고 깨끗한 량심과 의협심, 애국적감정을 살리면서 어떻게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

며 사상객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덮어놓고 질시하는 그의 그릇된 견해와 완고한 주장을 높은 의지력과 정신력 그리고 인민적품모로써 극복하고 감화시키며 끝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사상에 머리숙이게 하는가 하는것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의협심과 상호부조만으로써는 인민의 고통과 겨레의 불행을 도저히 덜어줄수 없으며 온 민족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되어 원수와 맞서 싸울 때에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사상은 이 소설의 첫 장면과 화폭들에 줄기차게 굽어치는 기본사상으로, 기백으로 되고있다.

작품은 이것을 김정숙동지의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미학적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그이의 지도밑에서 개변되는 주창범의 꼭질많은 운명발전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에 있어서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부각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그것은 바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이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단 한사람의 민족주의자를 돌려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열사람, 스무사람의 공산주의자가 목숨을 바칠수도 있는것이 우리 혁명이요.

얼마나 가혹하고 준엄한가?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사상과 의지를 지닌 공산주의자들이 까닭에 이 준엄한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오. 이것을 똑똑히 리해해야 하오.》

장군님의 이 말씀은 소설에서 김정숙동지의 모든 행동의 기초에 놓여지고있으며 또 소설은 이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이의 모든 활동은 다름아닌 장군님의 의도와 사상을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조국광복회국내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생명을 내대야 하는 어려운 투쟁이었으며 완강한 의지력과 용감성, 죽음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요구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모든 국면들을 오직 하나의 신념과 의지 즉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굳은 확신에 기초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헤쳐나갈수 있었다.

사경에서 헤매이는 김산문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온갖 희생을 무릅쓰시는 장면, 세상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다고 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는 향옥이를 개조하여 조직의 영향밑에 끌어들이

는 이야기 그리고 한성옥이 일으킨 무모한 폭동바람에 상처를 입은 병한이를 남몰래 구원하며 침체에 빠진 대중의 혁명기세를 추켜세워나가는 장면들에서 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녀전사의 숭고한 모습을 감동깊게 느끼게 된다.

이 모든 행동의 기초에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놓여있었다.

소설은 특히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높은 충성심을 공산주의사상을 덮어놓고 질시하는 완고한 성미를 가진 민족주의자인 주창범을 개조하기 위한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통하여 분석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창범은 신파떼군들의 가난과 겨레의 슬픔을 그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는 사람이였으며 보통로동자들의 의협심과는 다른 놀라운 의리심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였다.

하기에 그는 도천리에 갓 도착한 김정숙동지와 함께 떼목촌을 돌아보면서 떼목촌에 깃든 눈물겨운 사연들에 대하여 떼군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그이께 한탄하며 이야기하는것이다.

주창범이 떼군들속에서 《형제계》를 못고 또 그 유사로 된것도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 호상 의지하고 도우면서 힘을 합쳐 이 험한 세상을 랑패없이 살아가기 위한것이였다.

작품에 그려진 주창범의 집에 대한 화폭은 그 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하여주는 것인가.

언제 와보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칠 때가 없는 집, 마당에나 처마에는 그 언제나 몇십명의 떼군들이 말겨놓고간 바오라기, 구렁지, 나무가지들로 가득찬 집, 이것이 바로 주창범의 집이었으며 바로 거기에 가난한 떼군들을 위하는 주창범의 티없이 깨끗한 량심과 마음씨가 깃들어있었던것이다.

작가는 주창범의 성격적면모를 극히 작은 생활적세부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깊이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

주창범은 비단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심이 깊은 뿐만아니라 깨끗한 기개와 강毅한 의지력을 지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였다.

작품은 주창범의 성격을 그의 운명발전과의련관속에서 력사적으로 분석하고있다.

주창범은 팬찮은 벼슬자리에 올랐던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사리사욕과 권력다툼에 눈이 어두워진 벼슬아치들의 행위를 차마 볼수 없어 락향했다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스스로 자결한 의로운 사람이였다. 주창범은 이

러한 선친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왜놈들의 종자를 두들겨패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청처없이 방황하다가 드디어 김형직선생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지도까지 받게 되었다.

작품은 주창범의 이러한 운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닌 곳곳한 기개, 도도한 기상은 역사적으로, 생활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뿌리깊은것임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주창범의 도고한 기상도 완고한 성미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인민적품모양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게 되며 오랜 세월 굳게 닫겨만 있던 가슴속을 그이께 털어놓는것이다.

소설은 주창범에게 형성된 이 개성적인 성격을 여러모로 펼쳐보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김정숙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 단순한 민족적의식과 애국애족의 감정에서 멀리 벗어나서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으로 발전해나가는가 하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김정숙동지를 한갓 어질고 착한 녀인으로만 보았던 주창범이 생활과정을 통하여 점차 《영특하고 보통대기 아닌 녀인》으로 그리고 《사람의 진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여간하지 않은 녀인》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깨닫게 되는 사상발전과정은 참으로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특히 소설에서 《형제제》의 성원들을 하나하나 떼내어 공산주의운동에 끌어들이며 자기를 따돌리는 한성옥을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김정숙동지께 따져묻는 장면에서 작품이 펼쳐보인 심리 묘사는 눈물없이 읽을수 없다.

작품은 때로는 주창범의 몸부림을 그리는데 화폭을 비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체험되는 김정숙동지의 사상감정세계를 분석하는데 화폭을 돌리기도 하면서 창작적환상을 자유로이 펼치고 있으며 시대를 폭넓게 사색하는데로 독자들을 이끌고있다.

성격분석, 특히 심리분석의 세밀성, 진실성, 시대를 폭넓게 일반화하는 힘, 그것은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형상적효과를 달성하고있다.

주창범은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사상객들을 일축하는 자신의 그릇된 관점을 깊이 뉘우치게 되며 자기를 진정으로 존대하면서도 한성옥을 덮어놓고 배척하는 자신의 그릇된 관점에 대해서는 절절히 깨우쳐주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주창범은 그이가 다름아닌 **김일성**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이 라는것을 알고는 진정으로 머리숙이게 되는것이다.

도고하고 완고한 주창범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립장과 태도를 버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진심으로 뜨겁게 받아안게 되는 과정은 그가 혁명의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지난날의 수난많은 운명의 역사를 끝장내고 참다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는 전환의 역사였다.

작품은 이 모든것을 주체의 인간학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운명의 역사, 성격의 역사로서의 소설문학의 특성을 살리고 장편소설의 형상의 깊이를 튼튼히 담보할수 있었다.

## △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은 참아도 인민이 당하는 고통은 참지 못한다.

소설에서 신과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혁명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있어서 주창범이 보다 더 큰 장애로 된것은 한성옥의 광기어린 《무산혁명리념》이었으며 좌경모험적인 행동이었다.

폐목촌인민들의 폭동을 실패로 몰아넣고도 하등의 교훈도 찾지 않으며 량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한성옥, 폭동은 승리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 어떤 노동자들의 기개를 시위하는데 있다고 보는 그의 사상은 고집이라고 보기에는 그 후과가 너무나 심중하고 오유라고 보기에는 그 《리념》이 너무나 확고한 움직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의 좌경모험적인 《혁명관》에는 광기가 깊이 숨어져있었다.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어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 비상한 담력으로 한성옥의 이 그릇된 《무산혁명리념》의 본질을 까밝히며 그의 영향하에 있는 군중을 떼내고 끝내는 그를 돌려세워 참다운 혁명가로 되게 하는가 하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먼저 첫머리에서 국내공산주의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이며 따라서 김정숙동지께서 한성옥을 개조하여 조직에 인입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두 전선을 다같이 틀어쥐고 혁명을 하는수밖에 달리는 도리가 없소. 우리가 국내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기 위해 당분간이라도 량심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을 외면할수 있겠는가?

반대로 신과지구의 세력가들인 민족주의대표들을 장악하려고 큰 력량은 못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운동에 뛰여든 혁명가들을 순시라도 밀어둘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안되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는것이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소설에서 국내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문제나 단순한 전술상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와 혁명적의리, 뜨거운 인간애에서 흘러나오는 고결하고 드팀없는 신조임을 밝혀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고계시는 이 공산주의적의리를 심장으로 깊이 받아안았기에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한성옥의 혁명에 대한 외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끝내는 그를 혁명조직에 끌어들이는것이다.

작품은 이 투쟁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고결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그리고 혁명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사상과 견해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 과정으로 그림으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적품위와 깊이를 튼튼히 담보할수 있었다.

이 장면들이 한성옥이 갖고있는 혁명에 대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의 심각한 사상리론적대립과 충돌, 치열한 논쟁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은 곧 이것과 관련되어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먼저 주인공들의 심리적축적과정을 점차 고조시키면서 김정숙동지께서 한성옥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적계기들을 뚜렷이 하고있다.

인민에게 고통을 들쭉운 공산주의자를 혁명은 결코 용서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김정숙동지에게 한성옥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나는 이 한번의 실패로써 혁명가의 신념과 양심에 오점같은것이 생겼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소. 혁명을 하느라하면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십, 수백 때로는 수천수만의 목숨도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광기어린 좌경모험적인 언사인가.

작품은 한성옥의 열변과 그 초상, 행동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며 절통한 감정을 체험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내부심리에 대한 묘사에 의해 형상을 깊이 파고들고있다.

여기서 김정숙동지께서는 깊은 심뇌의 계곡에서 허덕이는 한 혁명가의 눈물겨운 정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력사가 일찌기 걸어온 곡절많은 수난의 역사를 가늠하시었던것이다.

이 장면들이 사상적인 논쟁, 리론적인 대립으로 일관되어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으며 깊은 사색과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하는것은 작가의 능란하고 활달한 형상기법과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독자들을 때로는 리론적인 언쟁의 분위기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의 심리세계에 빠져들어가게 하며

그들의 행동을 마치 눈앞에 보는것처럼 생동한 화쪽으로 그려보여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장면은 독자들의 사색과 심장을 툭툭히 틀어잡으면서 그들을 작품의 형상세계에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실패를 전제로 혁명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명가의 태도일수 없습니다. 혁명가란 원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참아도 인민이 겪는 불행은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지요.》

작품에 그려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과 인민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일반화되어있다. 이것은 한성옥과의 사상리론적대립을 통하여 작품이 말하려는 기본사상으로 된다.

한성옥의 혁명에 대한 관점에서는 인민과 혁명이 분리되어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목적을 잃은 허황한것에 불과하였다. 한성옥이 주장하는것과 같이 혁명이 투쟁 그자체에 종국적목적들을 두었다면 그 혁명은 진정 누구에게 필요한것이며 얼마나 값있는것이겠는가.

작품은 깊은 사상심리적분석을 통하여 한성옥의 《혁명관》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밝히고있으며 다른 한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형상적으로 부각하고있다.

그러나 한성옥은 이 논쟁에서 심각한 사상리론적타격을 받고서도 아직 자기 행동의 부당성을 버리려 하지 않으며 수그러들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는 좌경적인 《무산혁명리념》속에 깊이 빠져있었던것이다.

장편소설에서 한성옥은 도저히 승리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던 권벌장로동계급의 투쟁이 김정숙동지의 능숙하고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심각한 착오속에 빠져들어가고있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며 종전의 모든 자존심을 밀어버리고 김정숙동지께 《어떤 조직에서 파견되었는가?》고 묻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정치공작원이라는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이 앞에 깊이 머리숙이게 되는것이다.

한성옥은 참으로 멀고 험한 인생의 고개길을 넘어 새로운 위대한 사상, 새로운 위대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소설에서 장군님을 우러르며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독자들의 가슴에 송엄하게 울려온다.

한성옥은 드디어 이 운명의 새로운 궤도우에 들어서는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 승리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였다.

이와 함께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지도밑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된

한성옥이 신파지하당소조 책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이 모든것을 김정숙동지의 높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정신세계를 형상적으로 밝히며 한성옥의 운명발전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립장에 서서 인간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소설의 사상에술성을 담보할수 있었다.

### △ 억만금보다 귀중하다. 혁명가의 그 2원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통일전선사상을 관철하며 신파의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움에 있어서 민족주의자이며 예수교장로인 정지천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는것은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그것은 그가 신파지구 유지들속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는데서만이 아니라 민족적감정이 짙은 자산가였으며 그와 손을 잡는것이 재산과 신앙, 정견에 관계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力量的을 조국광복회에 단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생활력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이에 신물이 나도록 질시하는 정지천장로를 조국광복회조직에 끌어들이는 화폭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사상의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였을뿐아니라 단 한사람의 민족주의자를 돌려세우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필요하면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는 수령님의 사상의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편협한 견해가 웅이처럼 박힌 정지천의 가슴을 녹여주는데서는 혁명의 원칙성만으로써는 아직 부족하였으며 공산주의자의 참된 인간애가 필요하였다. 바로 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에 2천 3 백만 조선동포들을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워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힘의 원천이 있었던것이다.

정지천은 한때는 일본경제에 저항하여 조선상업계의 부흥을 도모한다고 수많은 재산을 내던지며 뛰어다니던 자산가이며 《대동단결》을 부르짖으며 한성옥이와 갈등이 저 돌아가던 사람이다.

그는 신파거리에 장사망을 늘어놓고도 조선의 민족산업을 차별시하는 일제의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가난한 폐군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가지 자선사업도 조직하였다.

그러나 정지천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질시하며 아예 상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공산주의자들때문에 자기 한가정이 망치고 하루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먼저 정지천의 성격에 있는 긍정점과

부족점을 때로는 사상발전의 견지에서 때로는 생활발전의 견지에 서서 여러모로 분석하면서 그를 혁명의 편에 끌어들이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로 나서고있었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완고한 민족주의자를 개조하기 위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으며 또 여러차례 원쑤와 단독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광복회의 강령을 해설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정지천의 점포를 찾으시는 장면, 이 세상과 결별하기 위하여 강물에 몸을 던진 채향옥을 구원하는 장면, 원쑤놈들에게 단속된 예화를 빼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조직에 편지와 돈 2 원을 보내시는 장면 등 이 모든 생활적정황들과 세부들은 작품에서 정지천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협한 견해와 립장을 버리고 주체혁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인민과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성심에 진심으로 공감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으며 마침내 그는 온갖 그릇된 주의주장에서 벗어나서 조국광복회조직에 들어서게 되는것이다.

정지천은 채향옥의 이모부였다. 그리하여 채향옥의 운명발전은 작품에서 주창법, 한성옥에게만 아니라 정지천의 생활발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돈에만 눈이 어두운 남편으로 하여 가정도 친척도 다 버리고 객지에서 숨어서 사는 향옥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한떨기 고운 마음을 간직하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향옥이, 생활의 막다른 귀로에 나선 그의 가궁하고 불행한 생활처지를 누구보다 동정하고 가슴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작가는 채향옥을 깊은 사랑과 동정속에 그리고 있다.

채향옥이 정지천의 배척과 한성옥의 랭대와 멸시를 받고 압록강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작품에서 깊은 정서적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품은 때목에 놀리워 물속에 잠겨있는 향옥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노력하다가 맥이 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김정숙동지의 눈앞에 다양한 환상을 펼쳐주고있는 장면으로 높은 형상화의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세계에서 환상의 세계에로, 환영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여러번 화폭을 바꾸면서 어떤 초인간적인 힘으로 그이께서 채향옥을 구원하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이 환상장면에서 김정숙동지께서 지금 겪고있는 시련과 흡사한 지난 시기의 생활장면과 체험세계를 대조의 방법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오신 그이의 준엄한 한

생을 독자들이 생각하게 하고있으며 그이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에 대하여 더욱 공감하게 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정지천의 마음을 돌려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일제의 군경놈들에게 체포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편지와 함께 조직에 보내신 돈 2원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분석은 독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색과 정서적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장면은 혁명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공산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품모를 보여줌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고있을뿐아니라 작품의 마지막 개조인물이었던 정지천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완전히 뿌리빼고 자신이 지나온 생활에 대한 역사적인 총화를 짓게 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직에 보내신 돈 2원, 그것은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에서 결코 단순 생활세부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편지와 함께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체계를 매듭지으며 작품을 절정으로 이끄는 그리고 정지천을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되게 하는 전환점으로 되고있다.

정지천의 어지러운 수만금과 대립되는 조직에 보낸 혁명가의 돈 2원은 김정숙동지께서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의 표시였으며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상징이었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조직에 보내신 돈 2원이 정지천에게 불러일으킨 사상정신적충격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고있으며 그것이 그의 사상발전에만 영향을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있다.

《...정지천은 한 혁명가가 자기 재산의 전부를 조직에 보내준 돈 2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떨구었다. 한 인간의 재산으로서는 너무도 적은 그러나 황금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에서는 옛말속에서나 있을 법한 고결한 마음이 그 작은 돈에 어려있기에 눈물이 쏟아지는것이다.

정지천은 얼마나 깨끗하고 숭고한 뜻을 지닌 사람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있는가를 깨달았다. 정지천은 만여원의 거금우에 올라앉아 이따금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선금을 던지던 일들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부서진 몇백원의 돈과 그이께서 조직에 보내주신 2원을 비길수가 있단말인가?》

정지천은 이 순간까지만해도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량심을 바쳐왔으며 무엇인가를 해왔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성옥의 말도 자기 딸 예화의 말도 너무나 인생을 모르는 철없는 말로, 주장으로만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이 모든 자신의 행동이 위선이었으며 자기를 가리우기 위한 가면이었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정지천은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하늘에 대고 아니 자신에 대고 웨치는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제는 허위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청렴한 조선사람으로서 공손히 조선의 혁명가들을 받들고 살 그때가 왔다. 진정을 다해 장군님을 받들고 조국광복대업에 정진할 때가 왔다!》고.

이것은 그릇된 사상과 편견, 허위와 위선을 말끔히 벗어던지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이 세상에 새로 탄생하는 민족주의자 정지천장로의 과거생활에 대한 쓰라린 총화였으며 새 생활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자각이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지도밑에서 개변되는 각계각층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리고 군중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김정숙동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높은 인민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일부 부족점도 없지 않다.

소설의 부족점에 대해 지적할 때 우선 이야기할수 있는것은 몇명의 부차적인물들 례하면 김산문, 정지천, 병한이 등이 개성적인 성격으로 산 인간으로 뚜렷하게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소설에서는 단 한두번 등장하는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뚜렷한 인상적인 개성으로 독자들의 기억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전반적인 완성에 대해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볼수 있는 일부 인물들의 비개성적인 형상은 확실히 부족점이라 아니 할수 없다.

또한 소설에는 독자들의 호감과 어긋나게 장면들을 너무 지루하게 끌고나간 대목들도 일부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사상에술적수준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그리운 조국산천》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높은 경지에서 훌륭히 창조한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충실성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게될것이다.

# 유혹과 신념

김철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도  
때없이 유혹이 찾아오더라  
내가 아이적에는  
이웃집 뒤뜰안의 앵두나무 그늘에서  
내 어린 아이를 껴안고 하였고

젊은시절 한때는  
온갖 들뜬 공상의 미끼를 던지더니  
변덕도 많지, 오늘은 그가  
세상 리치에 도통한  
은둔자의 모습으로 둔갑했어라

《여보게 동갑이  
자넨 지내볼수록 딱하고 답답하이  
이젠 나이도 나이인데  
그만 고집부리게나  
먹을것이 없나  
입을것이 없나  
자식들 공부를 못시켰는가  
지위도 그만하면 괜찮고  
훈장도 탈만큼은 다 땀는데  
이제 뭘 바라서  
아글타글 애쓰며 밤잠도 안자나?

잠을 잘 자야 해  
그래야 오래 살고  
오래오래 살아야 만복을 누리지  
무슨 일이든  
알맞는 정도로 하는것이 좋다네  
뛰면 숨이 차고  
지내 앞서나가면 화를 입기 쉽스니  
모가 나면 부딪치고 부딪치면 아픈데  
굵어 부스럼이야 만들 필요 없지

이제는 슬금슬금  
뜨락이 널찍한 독집을 받아서  
빙 둘러 구기자랑 심어놓게나  
오늘 우리 현실에서 뇌를 쓰는 일도  
단백질 소모가 큰 로동인데  
땀하러 탐구요 발명이요  
골치 아픈 노릇을 스스로 말아하나?  
땀하러 제 명을 제손으로 줄이겠나?》

《어리석은놈!》  
이는 신념이  
가슴 깊은곳에서 꾸짖는 소리  
《내 네놈한테서  
그런 수작질을 당하는것자체가

더없는 수치로다  
내 모를줄 아느냐  
나를 끌어가려는 그 골짜기에서  
어떤 독버섯이 돌아나고있는지를  
내 한생 지켜온 량심과 지조에  
자족과 안일의 마약을 발라  
배은배신을 암거래하려는놈!

어림없다-  
나에게 서퍽짜리 처세술 아닌  
천만금의 사치와 환락을 준대로  
그리고 설사  
뱃을 잃고 길을 잃고  
온몸의 혈관에서 마지막 피마저 새어나가던  
50년 마가울이 다시 온대도  
나는 찾아갈테다 하나의 불빛만을  
백번 인생을 되풀이한대도  
한기말아래서만 숨을 쉴테다!》

《정말 어찌 못할 벽창호로군...》  
유혹은 비실비실...  
그래도 끈덕지게  
《한마디만 더 묻자  
그래 도대체  
그건 무슨 기발이냐?  
누가 너를 오직  
그 기발밋으로만 부른단말이냐?》

《듣거라, 똑똑히!》  
신념은 도고히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준다  
《그것은 마치와 낮과 함께  
크고도 곧은 붓을 하나로 겨안은  
우리 당의 성스러운 기치이다!  
그 기발 높이 드신 위인앞에서  
나는 일찌기  
변치 않을 맹세를 다지였노라

그이가 누군가고?  
그이는 나의 사상  
나의 행복  
그이는 나의 스승  
나의 은인이시다!  
세계가 다 안다-  
그이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태양- **김일성!**  
경애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 그 이름 빛나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싸우싼 아브들 파라하

주체의 조국 동방조선에  
세인이 우리르는 향도의 빛발 솟았거니  
그이는 사상리론의 걸출한 대가  
인류의 위대한 수령이시라네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은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되고  
조선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강대한 인민 되었다네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조선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인류와 세계에도 밝은 앞길 열려젼어라

인류가 칭송하는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인류의 온갖 고통 덜어주시려고

싸우시는분

지구를 뒤덮은 어둠을 몰아가시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가시네

그이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 이름 빛나라 **김정일** 동지

그 해발속에 빛나는 조선이여

영원토록 무궁번영하리라

자주, 평화, 자유의 새 력사는

그이의 령도밑에 영원히 펼쳐지리

영원히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동지

대를 이어 전해가리 불멸의 그 이름

우려려모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따르리라 우리모두 영원히

향도의 태양 **김정일** 동지를

따르리라

(필자는 리비아사람임)

## 기쁨의 새 계절들은...

서진명

창밖에 흰눈이 내려도  
비날론 하조장엔 피어나네  
목화꽃처럼 하얀 돌꽃이

구내길에 실버들 푸르려도  
하조장엔 피여 만발하네  
들에서 폼다고 하기에  
너무도 희한한 행복의 돌꽃이

어디나 꽃피는 계절

따로 있어도

우리 수령님 오실적마다

만져보시는 사랑의 꽃이어서

꽃은 꽃이래도

돌꽃만은 여기 사철 피던가

언제 찾아도

언제 봐도

꽃속에 묻힌 하조장은

한계절인듯싶어도

끓는 가슴으로 탑들을 덥히고

배관의 숨결 높여가는

돌꽃을 피워가는 가슴속에선

기쁨의 새 계절들이

바뀌고바뀐다네

수령님과 당의 해빛안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만발하는

온 나라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 더욱 활짝 피워주는

그 축복받은 새 계절들은...

시조

## 생각깊은 산마루

동기춘

### 영생의 글발

-친필비앞에서-

우리 수령님  
비돌에 저 글발을 새기실제

술 푸른 렬사롱에  
살아서 나래치는 은총의 글발이여

영생하라고 영생하라고  
쓰시던 심중 어떠하셨을가

오오, 어찌 저 글발  
땅에서 빛난다 하겠는가

새겨쓰신 글글에  
사랑이 가득 배였으리

영원히 불타는 저 금빛해살의 글발을  
세기의 하늘에서 인류가 목메여 읽으리니

새겨가신 줄줄에  
영생의 피줄 흘렸으리

태양의 빛발 빛나는  
아, 친필비 친필비

### 불라는 기발

하늘 가득  
땅 가득  
날리는 붉은 돌 기발  
가슴에 후더운 렬사롱이여

아, 그 의리의 말씀  
불같이 뜨겁던 언덕에서  
렬사들의 어깨너머  
기발을 우러르니

속연히 네앞에 서니  
마음의 현줄을 울리며  
세차게도 세차게도 들러와라  
붉은 돌 기발의 퍼덕임소리

나뭇겨 나뭇겨  
기발은  
붉은 자락으로  
혁명의 렬사들을 안았구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예 오시여  
세상끝에 가서라도 붉은 돌 구해다  
렬사들을 기발로 감싸라시던 그 말씀  
기발의 소리, 저 기발의 소리 전해주는가

글썽한 두눈에 안겨오는  
기발이여 아, 저 감싼 기발은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렬사들을 품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품이여라

## 아낌의 정화

-추모상앞에서-

나 죽어  
너 살순 없느냐  
땅을 뜯던 그 몸부림이  
여기 있다

오열에 오열을  
쏟아내던 추도가  
울어울어 울지 못하던  
그 순간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향 어머니  
기다림에 마르던 가슴  
그 가슴마저 찢어준 쓰림도

붉은 기발이  
아직 더운 몸을 감싸던  
저 이름모를 백두의 산기슭  
피 젖은 기발 자락이

풀잎우에 무거울 때

끓으며 얼며  
빼앗긴 자유 찾으려  
값있게 바친 냇이여  
타향산천에 충한자루 비껴들고  
뛰어다닌 그 자욱을 못잊어...

백년도 못사는게  
사람의 명이고  
죽으면 묻는것이  
범이라 해도

그렇게는 그렇게는 못해  
투사여, 피바다에서 그대 안아올린 땅이  
그 어머니조국이 못묻어  
최후순간을 영생에 멈춰세운  
오, 혁명렬사릉 추모상이여

## 인간의 가치

생이 끝났다고  
죽은것인가  
명이 붙어있다고  
산것인가

10 대에 죽었어도  
별이 되고  
100 살을 넘기어도  
흙이 되는

인간이기에  
인간에게만 있는  
그 리치  
준절히 깨우쳐주는 혁명렬사릉

한세상 사는 사람아, 너 나 없이  
렬사들앞에서 후회없을 인생을 자각하자  
인간의 가치는  
조국에 바친 자기 심장의 값이더라

## 인생과 조국

제 명을 다 살고 간  
그런 사람이 려사릉엔 있던가  
병으로 생을 맺음한  
그런 사람도 여기엔 그리 있던가

10 대에 20 대에  
피줄조차 못남기고-  
그래도  
아끼던 생을 아끼지 않았던...

조국은 무엇이어서  
이런 청춘들을 바쳤더냐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희생을 치러야 했더냐

조국은 물건이 아니건만  
역신들은 뒤거래로 너를 팔았다  
한세상 살다 그도 죽고말  
개같은 명줄의 향락을 위해

팔던 땀  
몇놈이 부귀영달과 바꿨건만  
찾을 땀 오, 찾을 땀  
민족이 피를 바친 조국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이같이 모질었더냐  
그처럼 모질지 않으면  
안되더라말인가

예나 제나  
사람은 살고  
꽃도 피고  
내물도 흐르건만

자유가 없인  
차라리 죽음이 나왔으니  
조국은 다만 땅이 아니라  
그 자유

했어도 주작봉마루에 서니  
찾은 값이 너무 비쌌구나  
이 아까운 사람들과 바꾼 땅을 딛고

분함에 억한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아

혁명렬사릉-여기선  
누구든  
인생과 조국  
이 엄숙한 물음앞에 서지 않는가

릉을 찾는 사람들이여  
렬사들이 지켜보는 눈앞에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같은 꽃뭉을 놓으시라

-1986. 5.15-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 건설의 예술가

백의선

문득 누군가 웃으며 말하여라  
건설장의 숨결, 장쾌한 이 음향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할수 있다면  
먼 후날까지 가슴치는 노래가 되리라고

그럴수도 있으리, 동무여  
하나 우리 건설자답게 진심으로 말해보자  
그 어떤 영웅서사시와 아름다운 선률속에  
우리 위훈이 전해지길 바라며 사는가

부엌새 울던 마평골의 첫날밤  
천막속의 잠자리에  
깃들던꿈 후더운 숨결은  
길들지 않은 그날의 강물에 실려갔더냐

얼음물 들쓰고 기초속에 뛰어들며  
서로서로 어깨걸고  
높이 부른 결전의 노래소리도  
저 아득한 공간에 사라졌더냐

우리 굳이 바라지 않노라  
그 생활 노래로 불리워지기를  
불려주리라  
이 산중에 펼쳐질 망망《바다》가  
출렁이며 뿌려지는 은구슬의 물노래로  
억년 마르지 않을 호심의 깊이를 담아

그 누가 무슨 말로 다 노래하랴  
모래 자갈 옥처럼 일고 뒹던  
어진 안해들의 그 마음을  
광포한 눈보라에 조명등이 터지던 밤에도  
불뚝을 품고 철골을 잇던 그 심장을

그 마음 그 심장  
펄펄 뛰는 조국의 동맥속에  
세찬 피방울로 뿌리랴  
조업하는 새 공장들의 기대소리로 울리고  
밝은 창문들의 웃음으로 꽃피리라

우리 심장이 무한히 뜨거웠던 그만큼  
조국은 여기서 무한한 열을 뿜고  
우리의 량심이 그늘 없던 그만큼  
조국은 여기서 세월을 이어 빛을 뿌리리니

아, 우리는 오늘의 거창한 건설의 음향으로  
래일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땀으로 량심으로 심장으로  
시대의 서사시와 장엄한 선률을  
조국과 미래에 바치는 건설의 예술가

어디서건 어느때건  
우리 긍지높이 한마디만 말하자  
우리는 위대한 주체시대  
수력건설자들이라고



# 설레네, 남산의 푸른 소나무

한기운

온갖 꽃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에 찾아와도  
송이송이 함박눈 내리는  
고요한 날에 찾아와도...

못잊어 못잊어  
선생님 걸으신  
그날의 그 새벽길가에  
언제나 소나무는 푸르려 설레누나

아, 마가을 찬바람에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조선독립의 굳은 마음  
저 푸른 소나무에 새기신  
김형직선생님!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일어서고  
뼈가 부서져 가루되어도  
대를 이어 찾자하시던  
광복의 크나큰 그 뜻  
수령님 해빛아래 이 강산에 만발했거니

송산기슭  
저 유희장 하늘가에 날리는  
복받은 아이들의 웃음은  
명신학교 트랙에서  
《지원》의 한뜻속에  
선생님 내다보신 그 모습 아니라

대동강에 흐르는 저 유람선은  
혁명의 새 전구를 넓히시며  
만경대를 떠나시던 그날  
남산재에 오르시어

선생님 바라보신 그 행복 아니라  
저 멀리  
노을이 피어나는 하늘아래  
사품치며 흐르는 쇠물도  
기계화의 동음높은 옥야천리별도...  
선생님 펼쳐보시던  
조선의 그 모습 아니나

못잊어  
《조선국민회》회원들을  
새 친구로 바래우시던  
그날의 솔푸른 남산기슭 새벽길로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  
《지원》의 그 뜻 새기려 찾아오거니

아! 김형직선생님 추켜드신  
광복의 그 해불 이어드시고  
우리 수령님  
새 조선의 봄언덕에 세우신  
주체의 내 조국!

어버이수령님 추켜드신  
주체의 해불 이어드시고  
우리 당이  
누리에 펼쳐가는  
주체의 이 조국!

못잊어 설레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아득히 흘러간 력사의 그 새벽길 더듬어  
영원히 설레리  
남산의 푸른 소나무  
세월의 끝까지...

# 소사하의 집

정 렬

밤이면  
피창가의 불빛 제일 늦게 꺼지고  
새벽이면  
어머님께서  
남먼저 동이 이고 동구길 밟으시던  
소사하의 키낮은 집이여

바람찬 이국의 광야에서  
정다운 고향의 품이 되어  
비바람 막아주고  
수천의 아들들을 따뜻이 감싸준  
단 한채의 집  
아, 강반석어머님 계시던 집이여

《어머니!》  
어린시절의 그날처럼  
정다운 목소리로 부르시며  
마당가에 성큼 들어서시던 장군님을  
어머님께서 언제나와 같이  
밝으신 얼굴로 맞아들이시던 집

중환에 계시였어도  
자신의 아픔은 감추시고  
그 어떤 시중도 위로도  
다 사양하신 어머님이시였기에

효성어린 좁쌀 한말 지고오신 장군님을  
조용히 불러앉히시고  
집근심 하면 큰일을 못한다고  
그처럼 준절히 타이르시던 그 목소리  
세월을 넘어  
오늘도 우리 가슴에 뜨겁게 울려와라  
초가이영 지붕은 낮아도

가사

고여준 뜻은 하늘처럼 높아  
어디서나 우리러 보이던 집  
광복의 위업을 이룩해가시는  
장군님의 걸음걸음을 받들어준  
오, 력사의 집이여!

달이 지는 밤에도  
수천 아들들의 친어머니되시여  
아래목에 이끄시던 그 손길  
정성껏 밥을 지어주시고  
허약한 몸 추세워 보내주시던  
바다같은 사랑과 인정미가 넘쳐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이라고 따르던 그 친아들들이  
인민의 첫 군대가 되어  
안도의 푸른 숲을  
붉은기로 덮지 않았던가

우리 낳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단 한분의 친어머니 사랑이  
조선의 힘을 자래우시고  
혁명대오를 키우셨으니

얼어붙은 광야의 머나먼 한끝에서  
우리 혁명이 안겨자란 품  
어머님의 그 위업 만대에 전하며  
세월과 함께 찬연히 빛나는  
아, 소사하의 못잇을 집이여!

## 녀전사 걸으신 길은 오직 한길

김경기

살구꽃 핀 오산덕을 떠나시여 수만리  
바람세찬 백두광야 헤치시며 수만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녀전사 걸으신 길은  
아-오직 한길 수령님을 따르신 길

타향에서 그려보던 고향길도 미루고  
건국의 봄 꽃피우며 수령님 받드셨네  
한밤에도 꿈결에도 녀전사 걸으신 길은

아-오직 한길 수령님을 받드신 길

혁명의 길에 새긴 자욱 별처럼 많았건만  
자신 위해 걸으신 길 한걸음도 없으랴  
한평생을 하루같이 녀전사 걸으신 길은  
아-오직 한길 수령님을 위하신 길

아-오직 한길 우리모두 따르는 길

## 조국

리명균

## 1

외교부일군이 찾아와 《안운주라는 녀성을 아십니까? 캐나다에 살고있는 교포인데… 나이는 24살입니다.》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운주란 전혀 처음듣는 이름이었을뿐 아니라 도대체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때문이었다.

《그 녀성이 오늘 오후 3시에 비행기편으로 도착합니다. 조국을 방문하려고 오는데… 조민국선생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왔습니다. 재외대표부를 통해서…》

나는 눈이 휘둥그레 젊은 외교부일군을 바라보았다.

《안운주… 알수 없는데요. 전혀 처음듣는 이름입니다.》

《틀림없이 조민국선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외교부일군은 의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착오가 생긴것 같군요. 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곳 연구소 이름도 밝혔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캐나다에 갔다오신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갔다온적이 있지만…》

《알수 없는 일인데요.》

외교부일군은 의혹어린 눈에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 몰라 잠시 난감한 기색을 띠우고있던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제의했다.

《비행기는 이제 1시간후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고스러운대로 저와 같이 비행장에 나가봅시다. 지구의 먼 서쪽끝에서 모처럼 찾아오는 손님인데… 만나보시면 가부간 알 일이 아닙니까. 또 조선생님의 이름을 찍어서 부탁했고…》

이리하여 나는 비행장으로 나가는 차에 앉게 되었다.

안운주… 캐나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세계지도를 볼 때에나 눈에 띄일뿐 나에게는 전혀 인연이 없는 먼 서방세계였다.

그 캐나다에 산다는 안운주…

어떤 여자인가?

런못동을 벗어난 자동차는 교외에 나서자 풀어놓은 메추리처럼 내달리었다.

포장한 넓은 고속도로기슭에 줄지어선 은행나무의 물오른 애잎들이 갓난아기의 귀여운 손바닥처럼 미소를 짓게 했다. 도로 좌우에 시원스레 펼쳐진 넓은 포전에는 갓 옮긴 야들야들한 강냉이모들이 초여름의 살랑거리는 실바람에 연두빛 잔물결을 일으키고 농장원처녀들의 빨강고 파란 머리수건들이 점점이 꽃처럼 눈에 띄었다.

《전혀 기억에 없단말이지요? 혹시 어느 외국에 가셨다가 만난적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우연히 교포를 만날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 교포?!

이런 물음을 받고보니 외국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교포가 불현듯 생각났다. 그러나 그 교포는 나를 찾아올 까닭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조차도 부인한 교포아닌 교포였다.

…4년전, 아프리카로 가는 우리 배가 말라카해협을 지나 처음으로 기항한 인디아양의 한 항구에서였다.

남방식물에 흥미를 가지고있던 나는 휴식이 선포된 이날 오후를 그 항구도시의 퍼그나 규모가 큰 식물원에서 보냈다.

나는 종려나무와 고무나무숲속을 거닐었고 목질이 굳기로 이름난 리크나무의 담배잎같은 잎을 흥미있게 바라보았으며 결가지 하나없이 뿔뿔하게 자라오르면서 묘하게 엉켜붙은 여러개의 커다란 잎사귀목음으로 넓은 그늘마당을 던져주고있는 야자나무밑에서 열대지방의 찜뽀구는듯한 무더위가 자아내는 땀을 씻었다.

그 식물원에서 재배하고있는 5천여종의 수목을 죄다 구경한다는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꽃은 호기심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을 때까지 나를 그 식물원안에 붙잡아두었다.

배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문득 깨닫고 급급히 나섰을 때에는 거리의 가로등에 이미 붙여져진 다음이었다.

나는 부두로 가는 길을 누구에게 물으려고 들뻔거리었다. (내가 나온 출입문은 들어갈 때의 문과는 다른쪽이여서 향방을 알수 없었다. 광대한 부지를 가진 이 식물원에는 출입문이 여러곳에 있었다.)

마침 멀지 않은곳에 단장을 짊은 로인과 딸인듯싶은 하얀 투피스에 이 나라 특산물인 맵시있

는 초물싼다루를 신은 처녀가 나란히 서있는것이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들과의 거리가 가까와졌을 때 문득 처녀가 로인에게 속삭이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우리 나라엔 어떤 나무들이 있나요?》

그것은 조선말이었다.

뒤이어 역시 조선말로 하는 로인의 석싹한 대답이 들리었다.

《남부러워할게 없다. 멀리 백두산록엔 가문비 나무, 붓나무, 삼송이 울창하고 또 남해기슭엔 굴 나무, 대나무숲이 무성하니까. 한대성, 온대성, 아열대성 수목을 다 갖추고있지...》

조선사람이구나!

이국땅에서 제 나라 사람을 만난다는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아, 동포들이구만요?!》

나는 그들에게로 다가가며 인사했다. 로인과 처녀는 깜짝 놀라 나를 돌아다보았다. 로인은 약간 체소한편이었으나 무척 다부지게 생긴 늙은이었다. 앞머리는 다 벗어지고 좌우관자노리우에 얼마간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흰빛으로 까부러붙었으며 눈섭에도 희뿌옇게 서리가 덮여있었다. 하지만 자그만 눈에는 정기가 느껴졌다. 옷차림도 유럽풍이긴 했으나 점잖은 느낌을 주었다.

처녀는 스무살가량 되었는데 귀여운 눈에 웃음이 찰랑거렸고 드러내놓인 상큼한 목에는 하얀 실구슬씨가 반짝거리고있었다.

나는 되뇌었다.

《반갑습니다. 나도 조선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말을 들은 로인과 처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는것이였다. 두사람의 시선에는 불안감과도 같은 기색이 나타났고 로인은 한순간 머뭇거리는듯 하더니 놀랍게도 뻔뻔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아이 던트 안더스탠드 유...》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알아듣겠다는 뜻의 영어였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이 로인부녀가 남조선에서 왔거나 해외에서 사는 교포일수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대할수 있다는것은 짐작 못한바 아니였지만 이렇게 조선말자체를 모르는척하리라고는 너무도 예상외였다.

나는 아연실색하여 방금 한순간전에 조선말로 이야기하고도 조선말을 못알아듣는척하는 이 이상스런 《조선사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분노가 치솟는것을 의식했다. 조선말을 못알아듣는척한다는것은 조선사람임을 부인하는것이 아닌가? 조선사람이면서도 조선사람임을 부인하다니?!

남조선에서 왔건 해외교포이건 조선사람임을

부인할수야 없지 않는가. 조선사람임을 부인한다는것은 자기를 낳아준 조국을 부인하는것이다.

나의 눈초리에서 분노를 보았던지 처녀의 맑은 눈에 한순간 먼구스러워하는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로인은 뻔뻔한 눈길을 유지하면서 태연 자악한 거동으로 딸의 팔을 끌고 돌아서는것이였다. 그 태도에는 우리는 당신과 더 이야기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나는 분노와 의혹을 안고 생각했다.

저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부인하는 조선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조국앞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 민족반역자의 후예?

만약 을사 5 적의 후손이 외국에 도망쳐나가 살고있다면 아마도 저모양으로 행동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판단이 떠오르자 나는 심상 그럴수 있겠다고 긍정하면서 혐오감을 안고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때 내가 서있는 곁으로 자동총을 메고 해병복을 입은 이 나라의 해군사관 한명이 활기있는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는 그에게 그리 류창하지 못한 그 나라말로 부두로 나가는 길을 물었다. 적동색피부에 서글서글한 눈을 가진 역세계 생김 그 해군사관은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리켜주었다.

길을 설명하면서 그 사관은 외국인인 나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시선이 내 왼쪽 가슴우에 멈춰선 순간 돌연 차렷자세를 취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번쩍 손을 들어 힘있게 거수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아, 당신은 조선에서 오셨구만요? **김일성** 주석께서 령도하시는 나라에서 오셨지요?》

그는 내 가슴우 초상화장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이렇게 환성을 지르는것이였다.

《반갑습니다. 부두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군사관은 오던 길을 돌아서며 마치 자기를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나를 안내해나서는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물었다.

《저쪽으로 가시던것 같은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사람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나는 조선사람을 꼭 만나보고싶었습니다. 그건 내 소원이였습니다.》

해군사관은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내 곁에서 활기있게 걸으면서 말을 이었다.

《조선사람을 만나보는것은 오래전부터의 나의 소원이였지요. <혁신>호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인디아양을 항행하는 사람들치고 <혁

신>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조선을 동경하지요. <혁신>호… 그것은 우리 바다사람에게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이름입니다.

조선의 <혁신>호는 인디아양의 물우에 20 세기의 전설을 새겨놓았지요. 물우에서 병을 만나면 죽을수밖에 없고 죽으면 수장을 당할수밖에 없는 운명인 바다사람들에게 <혁신>호가 준 충격은 참으로 비상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였지요.…」

해군사관은 자기 나라의 뜨거운 태양처럼 열렬한 심장을 지닌 사람이었다.

정열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해군사관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수년전에 있었던 사실, 우리 나라의 무역선 《혁신》호의 두 선원이 망망한 인디아양 한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중병을 만나 곧 수술을 받아야 하였으나 파도사나운 바다우에서 수술을 할수 없어 사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작전을 벌리신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때 《혁신》호와 조국을 연결하는 수단은 무전밖에 없었다. 두 선원이 구원될수 있다는 희망은 없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때 조국이 가만히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의료집단을 무어 무전으로 환자들의 병상대를 보고받아 진단하고 무전으로 그 치료방법을 알려주어 그들이 마드라스항에 당도하여 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구조작전을 벌리시었다. 인디아양의 전설로 된 이 구조작전에서 선원들의 생명은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

해군사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것이었고 나는 내가 태어났고 그 품에서 살고있는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을 느끼었다.

《조선… 주체 우리 바다사람들은 주체라는 말을 <인간 만세!>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해군사관은 손짓을 하며 열렬하게 부르짖었다.

이때 나는 그 로인부녀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놀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있는것을 보았다.

로인도 처녀도 창백해진 낯으로 마치 얼어붙은 듯한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포감이라고 해야 할 이상스러운 빛이 어려있었다.

항구에 이르러 나는 그 해군사관과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그는 수첩을 꺼내들며 기념수표를 요구하였다. 나는 이름있는 예술가도 세계기록을 가진 체육선수도 아니였지만 《혁신》호의 조국, 조선에서 온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해서 그 해군사관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의 평범한 이름과 직무를 그가 펼쳐준 바다바람에 절은 해병수첩에 적어넣었다.…」

내가 외국에서 만난 교포아닌 교포는 바로 이 날이 잊을수 없는 해군사관을 만나기전에 단 1분

동안 만났던 그 로인부녀뿐이었다.

그 로인의 딸이 안운주겠는가? 그 로인이나 그의 딸이 나를 찾아올리는 천만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기억에는 열대림 우거진 새로 독립한 나라의 그 정열적인 해군사관이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아로새겨졌지만 그 로인부녀에 대한 표상은 먼지처럼 형적도 없이 날려가버린지 오래였다.

## 2

그러나 세상에는 예상을 뒤집어엎는 일이 있다.

나를 찾고있는 캐나다에서 온 안운주는 바로 그 처녀, 인디아양의 항구도시 식물원뒤길에서 만났던 그 로인의 딸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 녀자를 나는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녀자는 첫눈에 나를 알아보고 반색하는것이였다.

《조인국선생님이시죠?》

세련되게 양장을 한, 드러내놓인 목에 반짝이는 하얀 실구슬띠를 보고서야 나는 안운주가 바로 그 녀자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안운주는 이미 24~25 살가량 된 침착하고 단아한 인상을 주는 녀자로 변모되어있었다.

그날저녁 나는 그 녀자와 함께 대동강유보도를 거닐었다.

《저는 조국에 사죄하러 왔어요. 선생님에게도 사죄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셨어요.…」

《돌아가시다니요?!》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가셨어요…》

안운주도 걸음을 멈추며 나직이 뇌였는데 유보도의 무리등빛이 어린 그 녀자의 가름한 흰 얼굴에 짙은 슬픔이 덮이고 내려간 그윽한 살눈섭끝에 이슬방울이 내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말입니까?》

《돌아가셨어요. 한달전에… 한생을 해외에서 사시다가 끝내 조국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 어떤 깊은 사연이 담겨져있음을 짐작케 하는 그 녀자의 쓸쓸한 표정이 어린 옆얼굴을 지켜보면서 나는 가슴이 무거워짐을 의식하였다.

어떤 로인이기에 해외에서 한생을 마쳤고 조선 말조차 모르는것처럼 하던 로인이 운명하면서는 조국에 가서 사죄하라고 딸을 보냈는가?

가슴속에 서린 슬픔과 괴로움을 누르려는듯 안운주는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대동강물우에 밤안개가 피여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알릴듯말듯 꿈틀거리면서 서서히 피여오르고있었으나 강물을 뒤덮고 기슭의 화강석계단을 가리우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늑늑한 안개와 함께 물비린내가 흙썩 풍겨왔

다.

어느새 강물이 흐르던 곳에는 마치 깊은 계곡에 피어오르는 것처럼 안개가 가득히 찼고 멀리 옥류교의 전기장식을 한 긴 란간도 교각없이 구름 위에 등실 떠있는 것 같이 보였다. 대기는 오싹해 지도록 차겨워진다.

나는 안운주에게 권고했다.

《호텔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안개가 싫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떠신지 전... 여기에 더 있고 싶어요. 조국의 안갸네요...》

안운주는 곁에 낚시줄처럼 길게 드리워있는 실버들을 팔찌를 낀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 녀자의 심정이 이해되는 듯하여 잠자코 서있었다. 안개는 이미 모든 것을 덮어버리었다.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기슭인지 가려볼 수 없었다. 다만 안개의 바다 건너에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의 황황 타오르는 봉화만이 우리가 어디에 서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한참 후에 나는 나직이 물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보니 년로하시지만 아주 정정해 보였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펍 불패하셨지요?》

그날 저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하자면... 먼저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해되실 거예요.》

안운주는 눈보라처럼 온통 강과 강반을 덮은 하얀 안개의 바다 위에 눈부시게 빛나는 봉화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아버지는 63 년간을 해외에서 사셨어요. 한생을 조국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사셨지요. 조국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속단하지는 말아주세요. 딸인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남다른 애국심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조국을 떠나신 것은 여섯 살 때였다고 합니다. 애국문화계몽운동을 하시다가 3.1 운동 후 애인들의 체포령을 피해 해외로 망명하신 할아버지가 데리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상해에 얼마간 계시다가 프랑스로 가셨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소학교를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프랑스 소학교에 다니시던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낯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어린이들 속에서 놀리움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시던 이야기였어요.

1 학년 2 학기 때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간이었다고 해요. 선생(후에 이름있는 작가로 된 너선생이 있답니다.)에게서 지명을 받은 학생들이 차례

로 교단에 나가 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화를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고 옛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꾸며낸 거짓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지요. 쾌활한 프랑스 소년들은 익살을 잘 부렸는데 교실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선생이 문득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용감하게 교단에 나가 섰다고 합니다. 엄격한 할아버지가 외국인들 앞에서 절대로 비겁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다고 해요.

학생들은 호기심에 찬 반짝이는 눈길을 자기 학습의 류다른 존재인 이 이국 소년에게 모았지요. 아버지는 교단에 서기는 했지만 오래동안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서있는 아버지를 보며 하얀 근시경을 낀 너선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선생은 먼 동방에서 온 이 외국 소년이 프랑스 말을 얼마나 익혔는지를 알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때 프랑스 어린이들과 같이 공부한 만큼 회화에는 별로 막히는 것이 없었지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야기건 해 보세요.>

너선생이 고무를 주듯 다시 귀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 외에는 프랑스 동화나 옛이야기를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가 민망스러워 동정하듯 속삭이었습니다.

<야, 조선이야기를 해라!>

너선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그게 좋겠군요.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조선 옛말도 좋고... 조선 풍속에 대해서도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선 옛말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 풍속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섯 살 때 조국을 떠난 아버지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고향집과 마을 뒤의 나지막한 술밭과 마을 앞으로 아득히 펼쳐진 바다뿐이었어요.

<너희 나라엔 옛말도 없니?> 한 성급한 애가 참다 못해 빈정거리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너희 나라엔 어떤 산이 있니? 몽블랑 같은 산이 없어?> 다른 애가 물었습니다.

<...>

아버지는 역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기억은 마치 젖먹이 적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같이 안타깝도록 몽롱하고 애달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에

없고 다만 젓가슴의 냄새, 그 부드럽고 정다운 촉감만이 남아있듯이 조국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억하는것은 바다가에서 모래등을 쌓으며 놀던 때의 흥겨움, 보이지는 않고 소리만이 들리던 종다리의 울음, 장난에 지쳐 아무데나 쓰러져 잠들면 안아다듬혀주던 어머니의 께께하면서 따듯한 손, 씹쓸한 모기불냄새...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냄새였고 조국이 준 감각이었지만 형체없는 그것을 이야기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의 나라는 강도 산도 없는 나라야?>

누가 통을 주듯 묻자 교실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지들 마세요.> 녀선생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입술을 껍 악물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있긴 있어?>

이 물음에는 아버지가 버럭 대답했습니다.

<있다!>

<어디에 있니? 찾아봐라. 저기 세계지도에서 찾아봐! 네가 요전에 조선이라고 짚은건 일본이야. 우리 형이 그러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없대.>

<있다!> 아버지는 또 소리쳤습니다.

<없어!>

<있다!>

<증명해라!>

<...>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먼 동방에서 온 외국소년의 구원능력을 알아보려고 잠자코 지켜보며 앉아있던 녀선생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급히 일어서며 학생들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만들해요. 이야기시간이지 지리시간이 아니에요.>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고있고 또 후날 녀류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적지않게 쓴 선생이지만 당시에는 세계지도에 조선이 어떤 색깔로 칠해져있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흥미를 가지고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그 시간이 끝나자 그에 대해서 말끔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 년후에 아버지는 소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있기 하루전에 아버지는 그 녀선생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녀선생은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아, 학생이군요. 래일 졸업이지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언데요? 어서 말하세요.>

<우리 학급에 오셔서 이야기시간을 마련해주시

시오.>

<이야기시간을? 왜요?>

녀선생은 하얀 근시경너머로 의아히 이 키가 그리 크지 않으나 몸이 다부지고 눈이 고집스레 생긴 동방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때 못한 이야기를 학우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졸업하면 더 기회가 없겠기때문에...>

<그때 못한 이야기라니요?>

5년전에 있었던 일을 녀선생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 학년 2 학기 첫 이야기시간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요구하는것을 이야기 못했는데... 그사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다는것을, 있어도 아주 훌륭한 나라가 있다는것을...>

그제서야 녀선생은 생각이 났습니다. 녀선생은 심각한 안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을 여태 잊지 않고있었어요?>

녀선생은 그것이 단순히 그 어떤 구원능력에 대한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민족적자부심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그의 가슴속깊은곳에 간직되어있는 애국심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아직 잊지 않고있었던말이지요? 1 학년때 있던 일인데 졸업할 때까지 5 년동안 내내 가슴속에 새겨두고있었던말이지요?>

녀선생은 감동에 겨워 되뇌었습니다. 녀선생은 아버지를 12 살 소년이 아니라 동방의 한 억눌린 민족이 파견해온 대표이거나 한듯이 존경과련민의 정이 어린 생각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녀선생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이야기시간을 가지자요. 내가 조직하겠어요. 이제 끝...>

이야기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온 학급이 모인 가운데 아버지는 교탁에 나가 섰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1 학년 2 학기 첫 이야기시간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졸업전에 꼭 하고싶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서두를 댔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5년동안 준비한 조국에 대한 자료는 소학생의것으로서는 너무도 방대한 량이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력사의 체계정연한 개괄이였고 찬란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민속에 관한 흥미진진한 소개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는 물론 할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동급생들의 물음에 대답할만한 준비를 아버지는 그 야이키시간이 있은후 이미 한두달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완벽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그 누구의 어떤 공격도 격파할수 있도록 5년간 근기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던것입니다.

학위론문을 발표하는것과도 같은, 억울한 루명을 쓴 피고인을 울분에 넘쳐 변호하는것과도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학우들은 감격했고 압도되어 숨소리를 죽이고있었습니다.

<...조선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조선은 이러한 나라이다. 조선은 있다!>

아버지가 말을 맺었을 때 교실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우들은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교탁에서 내려왔을 때 학우들은 아버지를 에워쌌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어렸을적 일인데 량해해!>

저마다 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맨뒤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력사자료로써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했어. 있었다이지 있지가 아니야. 동사파거형이란말이다.> 삽시에 교실안은 얼어붙는듯했습니다. <조국, 지금 우리 조국은 왜놈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더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울분이 차올라 가슴을 두드릴뿐 아버지는 그에 대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뿐아니라 그것은 온 민족이 몸부림을 치고 피를 흘리면서도 끝내 찾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의병들도 독립군들도 3.1 운동도 대답하지 못한것을 12살소년이 대답할수는 없었습니다.

낮이 하얗게 질려 입을 병신한채 마치말을 하고싶으나 말이 나가지 않는 병어리와도 같은 안타깝고 애달픈 표정으로 수치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학우들은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학우들은 차마 그 모양을 더 볼수가 없어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교실안에는 피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번 움찔거렸지만 끝내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후 학우들은 한사람두사람 슬금슬금 자리를 떠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분후에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아버지만 혼자 뺨에 번쩍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못박힌듯 교실한가운데 서있었고 교탁결에 앉은 녀선생이 처음과 같은 자세로 꼼짝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뿐이었습니다.

녀선생은 각지킨 두손으로 턱을 고인채 슬픈 눈으로 흰 근시경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녀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를 위로해줄수 있는 말이 없다는것을, 나라가 없는 소년을 위로해줄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것을 그 녀선생은 잘 알고있었습니다.

### 3

아버지는 졸업후에 고학으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때문입니다.) 중학을 다녔고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외과대학이었습니다.

졸업후에는 베드로병원이라는 외과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과수술이 아주 능했습니다. 근면한 노력과 성실한 탐구로 학위로 일찌기 받았고 특히 흉부수술에서는 외과학계에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것으로 해서 베드로병원은 가장 인기있는 외과병원으로 되었습니다.

조국이 해방이 되고 기쁨에 넘친 아버지가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날로 짐을 꾸렸을 때 병원원장은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자기 병원의 권위는 우리 아버지, 안박사에 의해서 생겨났고 유지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안박사없는 베드로병원이란 무화과절질같은것이였지요. 원장은 급료를 2 배로 올려준다는 조건부로 1 년만 더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 차대전직후여서 그 나라에는 외과치료를 받아야 할 전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방금 수술을 받아야 할 많은 입원환자들을 그대로 놓고 떠날수가 없어 반년간만 더 있기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반년후에도 원장을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했습니다. 다시 반년이 지나 1946 년 가을에야 아버지는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고향인 려수에 찾아간 아버지는 시내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겨례를 치료할수 있게 된 아버지는 기쁨과 활기에 넘쳐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활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얼마후에 아버지는 외과의사로 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인민항쟁이 터진후 아버지는 폭동진압에 나갔다가 부상당한 경관들을 치료하는데 정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월인민항쟁을 리해하지는 못했지만 동족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경관들을 증오했고 부상당한 경관들을 혐오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동족을 무리로 살해하는 야수같은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심리적고통은 아버지를 미칠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참을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을수 없는 일에 부닥쳤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구류장에 안내되었는데 거기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빈사지경에 이른 한 정치범이 쓰러져있었습니다. 안면과 흉부에 심한 타격을 받아 특골이 부러지고 얼굴이 짓이



겨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요구는 급히 그 중상자가 말을 할수 있도록 만들라는것이였습니다. 보기에도 끔찍스런 그 환자는 말은 고사하고 시급히 흉부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시간을 살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뜻을 말하자 경찰서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흉부수술? 웃기지 마오. 말을 할수 있게 비뿔어진 턱이나 바로잡고 주사나 놓으시오. 이놈은 아지트만 붙면 된단말이요. 5분이나 10분쯤 살면 돼. 그다음엔 죽어야 한단말이요!>

격노한 아버지는 앞뒤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범죄요. 그건 범죄란말이요! 당신들은 해방된 땅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짓이요? ! 나는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소!>

너무도 돌발적인 항거에 경찰서장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느쪽에 선 새끼야?>

다음 순간 경찰서장의 부르짖 주먹이 아버지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습니다.

그날밤 아버지는 트렁크도 들지 않은 몸으로 부두에 나가 밀선에 올랐습니다.

한달후에 아버지는 다시 베드로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아버지를 키가 쫓춘 원장은 두손을 들며 빈정거리는것으로 맞이했습니다.

<안박사 없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나갔소. 그렇지만 베드로병원 없이 안박사는 어려웠을거요.

수술은 외과의의 손이 아니라 외과기구가 하는 것이요. 조선에는 안박사의 손에 맞는 수술기구가 아마 없었을걸. 종전과 같은 급료를 받으리라 고는 기대하지 마오...>

전갈으면 아버지의 자존심은 이러한 야유를 참아내지 못했을것이지만 그때에는 너무도 지치고 상심해서 별로 모욕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 병원에서의 생활이 흘렀습니다.

전과 똑같은 외과의의 생활이였습니다.

미끌미끌한 수술장갑... 마취제의 습막힐것 같은 냄새... 번뜩이는 흰 수술칼... 절개부위를 따라 빨갛게 선을 그리며 습세어나오는 피...

모든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은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기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의기소침해있었습니다.

조국에 갔다온후에는 병든 사람처럼 늘 쓸쓸해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해방전에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도고했고 모욕에는 몇배의 반발로 대응하는 자존심과 용기를 가지고있던 아버지였으나 해방후 조국에 갔다온 다음에는 그런 자존심과 열정이 자취를 감추었고 늘 서글퍼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어느때인가는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있었기에 열정도 자존심도 생

겼으나 지금은 그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허탈에 빠지는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던 조국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조국이라고 찾아갔던곳에서는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조국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조국이 차지하고있던 자리는 비었고 그 공간을 무엇으로도 메꿀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담보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병원 원장은 얼마후부터 다시 급료를 올려주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어려운 수술이 제기되면 아버지를 초빙해갔으며 외과대학들에서는 아버지에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운택도 명예도 정신적인 공허감을 메꾸어주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시적인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우울... 그것은 어디에 마음을 의탁할곳이 없는 사람의 우울이였습니다. 생의 보람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우울이였습니다. 늘 우수에 잠겨 울적해있는 아버지를 보다못해 베드로병원 원장이 결혼할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버지는 40 이 가까운 그때까지 독신이였습니다. 결혼할 기회도 결혼할 상대도 없었던것입니다. 아버지는 꿈에도 외국인녀자를 배우자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1 년후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려수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일손을 도운적이 있는 한 간호원이 프랑스로 왔습니다. (그 간호원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도 아버지에게 활기를 넣어주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앓았습니다. 몸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환경을 바꾸어볼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도 갔고 화란에도 옮겨앉아보았고 튀니지에도 가서 살았습니다. 이름있는 외과의인 아버지를 초빙하는곳은 많았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캐나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가는 객선에서 우리는 광주참상에 대한 보도를 들었습니다. 대검에 찢려죽는 수천 명학생들과 광주시민들의 울부짖음이 대서양의 파도소리를 헤치며 들려오는것 같았습니다. 시체로 덮인 금남로, 무등산묘지, 피... 피...

우리가 횡단하는 대서양의 망망한 푸른 물에 그 시뻘건 피가 밀려와 뒤섞이는것 같은 환각을 물리칠수 없었습니다. 배전에 굶닐거리는 물이 그대로 시뻘건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선안은 광주류혈참극에 대한 보도로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몹시 피로와했습니다. 아버지는 광주학살을 민족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단말이냐?!>

텔레비전에서 피투성이 된 학생들을 고기두름처럼 쇠줄로 팔목과 발목을 묶어 질질 끌고가는 광경을 방영하고있을 때 염소눈을 한 한 구라파인이 동정인지 야유인지 모를 미묘한 억양으로 속삭이듯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매 저 나라 사람인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성이 나 단마디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나라를 모르오!>

선실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문을 굳게 닫아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오락실에도 갑판에도 나가지 말라고 엄명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와 저는 밖으로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선사람으로서 다른 손님들을 대하기가 부끄러웠기때문입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다음부터 아버지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검으로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남조선에서는 사람한테서 누가 치료를 받자고 하겠니?!>

## 4

캐나다에 가서도 아버지는 기분을 바꾸지 못하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외과의로서의 성과는 매우 컸습니다. 모든것을 잊으려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기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외과학에 대한 저술도 있었습니다. 학보에 발표되는 아버지의 논문은 화제거리로 되곤 했습니다. 캐나다경내에서는 물론 구라파나 멀리 남아메리카에서까지 아버지를 초빙해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던 그때 아버지는 중근동의 한 추장국에 초빙되어갔다고던 길입니다. 먼 여행을 할 때면 아버지는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항구도시에는 관광삼아 잠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들린 그 항구도시에서 아버지는 다시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선에 대해서 것처럼 환희와 존경심을 안고 말하는것을 아버지는 생후 처음으로 보았고 그 놀라움은 무엇이라고 형언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물리친 것은 선생님을 남조선에서 온 외교관으로 잘못 생각했기때문인데 그 해군사관이 선생님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조선사람을 만나보고싶었다고 것처럼 환희에 넘쳐 말하는것을 본 다음... 아버지는 자기가 조국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을 안내해드리고 돌아오는 해군사관을 우리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조선을 이처럼 열렬히 동경하는지를, 인디아양의 선원들에게 이처럼 감동을 준 <혁신>호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선생님의 이름도 그 해군사관의 수첩에서 알

았습니다.)

<혁신>호에 대해서 아버지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 몇번 같은 질문을 거듭했습니다.

<환자들이 정말 보통 선원이었소? 무슨 고관은 아니었소? 정말루 보통선원이였는가말이요?>

너무 의심을 가지고 반복해 물으니 그 해군사관은 나중에는 성을 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도 생김새는 조선사람 비슷한데... 믿지 않으면 마드라스병원에 찾아가보시오. 마드라스항이 여기서 멀지도 않으니 찾아가보란말이요.>

아버지는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멀더라도 찾아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건 아주 위대한 사실이다. 의사인 나는 이 사실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우리는 마드라스항에 찾아갔습니다.

마드라스병원에 들러 모든것을 알고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있어! 있어! 있단말이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예요. 아버지?>

<조국이 있단 말이다. 조국이... 조국... 조선... 세상에 소리쳐 자랑해야 할 조국이 있어...>

아버지는 너무도 기뻐 눈에 눈물이 어려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환희에 넘쳐 자꾸만 되뇌이셨습니다.

<있구말구! 우리라고 왜 조국이 없겠니? 어머니없는 자식이 없듯이 조국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우리에게겐 위대한 조국이 있다... 그런데 여적 그걸 모르고있었거던...>

아버지는 마취상태에 있다가 불현듯이 깨어난 환자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새로 보려는듯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늘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내가 여적 모르고있었을까?>

통탄하듯 아버지는 자꾸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모르고있었거던... 소경노릇을 했거던...>

한생을 서방세계에서 살아온 아버지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한번도 똑똑히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몽롱한 선입감, 막연한 공포감... 이것이 아버지의 시야에 장벽을 쌓았던것입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프랑스에 들렀어요.

<프랑스엔 왜 들리시나요?>

내가 물으니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동창회를 열어야겠다.>

<동창회요?>

<소학교때의 동급생들을 죄다 불러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다.>

<그때 못했던 이야기라니요?>

<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소학교 1학년 2학기

첫 이야기시간에 내가 말문이 막혀 온 이야기를... 졸업할 때에도 봉창을 하려고 했다가 또 망신을 했지. 그 친구들에게 <혁신>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조선의 과거가 아니라 조선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겠다. <혁신>호는 조선의 현재를 반영한 프리즘이다!> 아버지는 격동되어 되뇌었습니다.

<조그마한 프리즘이 우주에 차넘치는 태양광선의 본질을 밝혀주듯이 <혁신>호는 조선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밝혀주고있어!>

아버지는 프랑스로 가는 객선우에서 동창들에게 전보를 치셨습니다. 두주일후 빠리에서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소학교동창들이 32 명이나 모였어요. 모두 머리에 서리가 희끗희끗한 늙은이들이었습니다. 그사이 사망한 여섯사람을 제외하고는 죄다 모여왔습니다. 지방에 나가있던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고 중학교교장도 있었어요, 인쇄업자도 있었고서관주인도 있었어요. 영화감독도 있었고 잡화상점주인도 있었어요. 늙은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어린 소년들처럼 기뻐하는 모양은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것은 그 이야기선생도 참가한것입니다. 74 살인 머리칼이 새하얀 할머니인데 나에게 주려고 자기의 작품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녀선생은 심장이 나빠 숨을 가쁘게 쉬었지만 나를 옆에 꼭 껴안고 쏘파에 앉아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물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동창회가 아니라 세번째 이야기시간이구나...>

너의 아버지의 완강성에 탄복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져다준 완강성이지... 너의 아버지는 지금 63 살이겠는데 12 살때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있구나.>

<얼마전까지는 앓으셨는걸요.>

<그래? 도무지 앓은 사람 같질 않아... 저것 보렴. 젊은이처럼 막 열변을 토하는걸. 저런걸 사자후라고 하지...>

아버지는 사실 마드라스에 갔다오신 다음부터 청춘을 되찾은것처럼 활기에 넘쳐있었습니다. 중병을 앓고나서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처럼 하루가 다르게 원기가 왕성해졌고 솟구치는 열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드라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행로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창회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젠 마음이 후련하세요?>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니다. 동창회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강연회를 열테다. 강연회를 열겠어. 오늘의 조국에 대해서, 오늘의 조선이 현대의학계앞에 어떤 문제를 내놓았는지, 문명세계앞에 어떤 본보기를 보

여줬는지를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거둬해도 부족한거야.>

아버지는 여러곳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초빙되어가는곳마다에서 치료를 끝내고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회에는 아버지와 면식이 있는 의사들과 그 가족들, 학보를 통해 아버지의 논문을 읽은 학자들과 외과대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연내용도 날로 더 풍부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대외출판물들을 탐독하는데 무상치료를 비롯하여 조난당한 한 어로공처녀를 구원하기 위해 인민군비행기편대가 동원된 사실, 외진 등대섬에 사는 세 어린 학생들 위해 학교가 세워진 사실, 화상당한 한 노동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백명이 자원하여 살을 떼준 사실 등 서방세계에서는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실례들이 강연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연을 언제나 <조선은 이러한 나라이다>라는 말로 폐군하셨는데 소학교 1 학년때 동급생들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완전무결한 대답을 온 세상을 향해 웨치셨던것입니다.

<혁신>호로부터 가슴에 뿌리내린 조국, 그것은 마치 만경창파에 솟아오르는 아침해처럼 그의 가슴을 찬란히 비추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저주로운 고향 남녘땅에서 받아안은 굴욕도 천리이국땅에서 겪은 갖은 설움도 깨끗이 가셔주는 조국, 더는 떠나 살수 없는 주체의 조국을 받아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한편 귀국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는 조국에 가서 사죄해야겠다. 조국이 나를 용납해준다면... 이제부터라도 겨레들에게 보탬이 될 일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다년간 발표해오신 논문들을 정리했고 자신의 립상경험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결심을 안고 칼을 버리는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센트로렌스만의 한 항구도시에 초빙되어가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그곳 시장이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강연회를 열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강연회장소문제로 밖에 나가시고 저만 혼자 호텔에 있는데 검은 안경을 낀 두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한사람은 풀메뚜기같이 키가 멀썩했는데 파란빛 중절모에 고부라문양이 번들거리는 회색넥타이를 맨 신사옷차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은빛 가죽잠바에 가죽캡을 눌러쓴 교예단의 어리광대같이 목이 양바를 한자였습니다.

그자들은 방안을 훑기훑기 살펴보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안박사의 딸이요?>

<왜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왔소.>  
 <무엇이에요? 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 물어보오. 이 세상을 더 살아가기가 싫어졌는가고?>  
 <뭐예요?!>  
 너무도 어이없고 격분스러워서 나는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파란빛 증절모는 내앞에 띄버리고 서더니 란쪽한 어조로 뇌까렸어요.  
 <더 살겠으면 공산주의선전을 하지 말라고 해! 조용히 의사노릇이나 하라고 말야.>  
 가족잡바가 차탁우에 엉덩이를 올려놓고 앉으며 덧붙였다.  
 <래일 오후 2 시에 몬트리올로 가는 려객선이 있어. 그 배로 돌아가는게 좋아. 만약 그 배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갈수도 있어... 알만하지?>  
 파란빛증절모가 또 씨벌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다면 아가씨 신세도 뻔하지 밤거리에 나서게 될걸.>  
 <몬트리올유막에 취직할수도 있지. 후후후...>  
 날이 어두워서야 아버지는 호텔로 돌아오셨는데 무척 흡족한 기분이었어요.  
 <시립극장을 빌리기로 했다. 시장부인이 직접 나서서 주선해주었다. 좌석이 2,000석이라고 해. 대단하지. 나는 500석짜리 외과대학 강당을 얻으려고 했는데 2,000석짜리가 생겼단말이다... 아니, 너 왜 그러니?>  
 외투를 벗으며 만족해서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외투를 받아서 거는 저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있는것을 보시자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냐?>  
 저는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검은 안경에 파란색 증절모와 가족캡을 쓰고 왔던 두 사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밤차로 떠나가자고 말씀드렸어요.(그자들이 려객선을 타고 가라했지만 저는 그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기차로 가려고 한것이예요.)  
 <밤 9 시 20 분에 떠나는 차가 있어요. 저녁식사를 하시고는 곧 떠나시지요.>  
 <떠나다니?!> 아버지는 나를 흡뽀보았습니다.  
 <...>  
 <래일저녁 7 시에 2,000 명의 청중이 모인다. 그래 그 두 녀석이 무서워서 2,000 명에게 오지 말라고 하겠니? 자, 가서 저녁이나 먹자.>  
 식당에 내려갔지만 저는 저녁을 먹을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불현듯 그 파란색 증절모와 가족잡바가 나타나 어떻게 도발을 걸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히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느때보다 많이 잡수셨습니다. 류달리 시장해서가 아니라 저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저는 물론 잘 알고있었어요.  
 그날밤을 나는 한잠도 못자고 새웠습니다.  
 <만약 그 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협박하던 파란 증절모. 고부라넥타이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신체가 넘려스럽다고 징글징글 웃던 가족잡바, 검은 안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아침에 나는 오후 2 시의 려객선으로 떠나가자고 설복해보려고 여러번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으므로 감히 입밖에 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아버지... 경찰에 알리는게 어떨가요? 그놈들이 강연회장에 들어와 어떤 란동을 부릴지 알겠나요?>  
 돋보기를 끼고 안락의자에 앉아 프랑스어판으로 된 잡지 <새조선>을 보고계시던 아버지는 돋보기너머로 나를 넘겨다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어제 내가 말했지. 2,000명의 청중이 모인다고? 2,000명 청중은 그 두놈의 불청객앞에서 나를 어렵지 않게 보호해줄게다.>  
 <그래도... 무슨짓을 저지룰지 알겠어요. 경찰에 알리면 안심할수 있지 않나요?>  
 <무엇이라고 알리겠니? 테로가 있을것 같다고 알리겠니? 그런 소문이 퍼지면 강연회장에 한사람도 안올게다. 누가 겁이 나서 오겠니? 그건 강연회를 파탄시키는것이야.>  
 저는 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듭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놈들은 그저 위협을 해본거다. 내가 겁을 먹고 물러서라고... 그간놈들이 무얼 어찌겠니?>  
 그러나 저는 파란빛 증절모, 코부라의 허바닥이 날름거리는 넥타이와 어리광대같은 가족캡을 잊을수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누를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날이 어떻게 지나가려나 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곤했어요.  
 그날은 맑게 개인 이른 봄날이었어요. 계절은 봄이지만 그 고장은 추워서 때없이 눈발도 날리곤했는데 그날은 날씨도 따듯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앉아있는 호텔방안은 알맞춤하게 난방이 되어있어서 훈훈한 물김이 아지랑이처럼 서려오르는 창문으로는 센트로렌스만의 쪽빛같은 바다물이 내다보였어요. 겨울을 지내보낸 바다물은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거리며 마치 세상만사가 다 무사태평하다는듯이 느린 가락으로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날이었어요.  
 문득 눈길을 부두쪽으로 보낸 나는 방파제안에 정박해있는 호화려객선 <센트로렌스호>의 하얀 선체를 보았습니다. 어제 그 사나이들은 바로 저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했던거예요.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각 1 시였습니다. 2 시에 출항하는 저 배를 타자면 늦어도 지금쯤은 나가서 표를 사야 할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갈림길앞에 서있는것 같은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잡지 <새조선>에 심취되어있었습니다. 자주 고개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기도 하시고 즐거운듯이 벗어진 앞이마를 슬슬 문지르기도 하시면서 읽으셨습니다. 꼭 재미있는 동화를 읽는 소년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독서를 중단시키려고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조용히 일깨워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벌써 점심을 먹잔말이나? 아, 네가 아침을 설치더니 배가 고프게로구나.>

저를 꼼짝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선뜻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마주앉아서도 나는 음식을 집지 않고 아버지의 기색만 살렸습니다.

<왜 먹지 않니?>

<아버지...>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곧 부두로 나가시지요.>

<무슨 소리냐?>

<려객선 센트로렌스호의 출항시간이 정각 14 시예요. 이제 나가도 배에 오를수 있어요.>

그때에야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한듯한 시선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겁쟁이같으니...>

그리고는 더 말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말 내가 너무 겁을 먹은건 아닐가? 그놈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벌써 이 도시에서 떠나갔을지도 몰라... 그저 위협을 해본것일수도 있지 뭐...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저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부라의 허바닥이 자꾸만 눈앞에서 날름거렸습니다.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가를 잠시 소풍하고 호텔에 돌아온 나는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서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차탁우에 두장의 푸른색 배표가 놓여있는것을 보았던것입니다. 려객선 <센트로렌스호>의 1 등실표였습니다. 배표까지 사다왔으니 어서 떠나가라는

고부라의 최후통첩이였습니다. 그 사나이들은 물러가지 않았을뿐아니라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있는것입니다. 죄를 잠근 호실에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아버지도 그 배표를 보시자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검질긴놈들이군, 너절한 새끼들...>

나는 그놈들이 방안 어디에 숨어있다가 불시에 달려들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며 아버지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떠나자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로 5 분이면 두부에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배표가 쪽 찢어졌기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찢어진 배표를 꾸겨서 재떨이안에 던져넣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앙탈을 하는것을 보면 내 강연이 전혀 값이 없는 일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놈들이 아주 겁을 내거던. 겁을 내...>

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자부심에 넘치는 목소리로 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무엇인가 기분이 맑지 않은듯 한참후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방안에 서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고있던 저는 다시한번 간청해 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엔...>

<더 말하지 말아... 이렇게 값있는 일에서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방안에는 깊은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문득 항구쪽에서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려왔습니다. <센트로렌스호>가 출항하는것이였습니다. 그 기적소리는 외로운 승냥이가 얼음판우에서 울부짖는것 같기도 했고 자루속에 숨은 고부라를 불러일으키는 휘파람소리같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소리는 우리 아버지와 나에게 그 어떤 운명을 예고하고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태연자약했습니다.

배고동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듯싶었습니다.

6시30분에 시립극장에서 아버지를 모시러 자동차가 왔습니다.

호텔현관을 나설 때 아버지는 나에게 가만히 그러나 전에 없이 엄격한 목소리로 깨우쳐주듯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파란 중절모신사들이나 배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어라. 그런 소문이 퍼지면 강연회장이 뒤숭숭해질수 있고 청중이 흩어질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를 존중하여 아버지가 강연을 마칠 때까지를 침묵하려고 그러나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즉시 이 사실을 직접 시장부인에게 알리어 있을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청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였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어 10 분쯤 지난 다음(강연은 대  
성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심장수술은 매  
우 드문 일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시내에  
서는 물론 린근일대에서 수많은 의사들과 학자들,  
학생들, 지식인들이 모여왔습니다.) 저는 늘 해  
오던대로 차잔을 들고 연락으로 나갔습니다.

차잔을 아버지의 손이 쉽게 닿을수 있는 연락  
한귀통이에 놓던 저는 거기에 엮서만한 하얀 종  
이쪽지가 놓여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란  
폭한 글씨로 몇글자 써여있었는데 눈결에 그것을  
읽어본 저는 너무도 놀라고 눈앞이 아찔해져서  
하마트면 비명을 지를번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  
를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  
린 아버지는 얼른 한손으로 그것을 꼭 누르면서  
나직히 책망하듯 뇌였습니다.

<조용해라. 이건 그저 협박이다.>

<안박사, 물러서라, 연락에는 시한탄이 있다!>

제가 어떻게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와락 아버  
지의 손을 잡아끌고 연락에서 달려내려오고싶은  
충동을 느꼈는지, 어떻게 침착하게 돌아서서 대  
기실로 걸어나왔는지 지금도 알수 없습니다. 아  
마도 강연회장이 소란해지면 안된다고 것처럼 엄  
격히 당부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한 발작  
적인 행동이 수천명 청중들앞에서 추태로 되리라  
는 판단이 저에게 그런 의지력을 부여주었을것입  
니다.

실신할것같은 몸으로 대기실에 나오자마자 저  
는 시안전당국에 알리려고 황황히 전화기있는데  
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화들화들 떨리는 손으  
로 송수화기를 들고 다급히 번호판을 돌리면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것인지 알수가 없었  
습니다. 전화를 걸고있을 시간이 없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이제라도 되달려 들어가 아버지를 연  
단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비상신호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

몇순간사이에 일은 돌이킬수 없는것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망하는것 같은 아버지의 엄격  
한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저 협박이다. 소란을 피우지 말아. 그  
건 강연을 파탄시키는것이다.>

사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쪽지가 단순히 위협이  
라면? 비상신호종을 울리고 소동을 일으켰다가  
만약 연락에서 아무런 시한탄도 발견되지 않는다  
면... 아버지도 아버지의 강연도 웃음거리로 되고  
말것입니다.

설마한들 놈들이 시한탄까지야... 그래, 쪽지는  
그저 위협일수 있어. 정말 시한탄을 장치했다면  
놈들이 그런 쪽지를 놓지 않았을거야. 아버지도  
그래서 저렇게 태연히 강연을 계속하시는거야.

그러나 어쨌든 저는 시안전당국에 전화를 걸었  
습니다. 급히 시립극장에 와달라고 그리고 그들  
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마중하여 사태를 설명하려  
고 바빠 극장정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안전당국에서 오토바이들이 달려오기  
전에 반신반의하던 그 일이, 설마 하고 생각하던  
그 일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제가 정문앞에 나  
가서는 그 순간 극장안에서 폭음이 울렸습니다.

온 극장안사람들이 죄다 일어서서 아우성치고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올라가 연락밑에 쓰러  
진 아버지를 부축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들을 물리  
치며 상반신을 일으키시더니 손을 뻗쳐 마이크를  
잡아당기셨어요. 마이크를 틀어진 아버지의 손  
도 마이크를 가까이 입앞에 댄 아버지의 얼굴도  
온통 피투성이였어요.

아버지는 마이크에 대고 무엇이라고 웨치셨어  
요. 하지만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말씀을 하실수 없게 안면에 흑심한 타격  
을 받으신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준절히 웨치시려고 몇번이나 애쓰시다가 <진실  
은... 태양과 같이...> 하고는 그만 마이크를 쥐신  
채 쓰러지셨어요.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올라가 부둥켜안자 아버  
지는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딸을 알아보신 아버  
지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  
하고 눈물겨운 모습은... 아버지는 저의 손목을  
꼭 부여잡고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조국을 알고 간다... 조국을... 김일성  
주석님 빛내여주시는 내 나라를...>

나는 그때 아버지의 흐려진 안광에 기쁨의 섬  
광이 번쩍였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섬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열의 섬광이었을수도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궁지가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을  
느끼게 했던것입니다. 조국을 몰랐을 때에는 살  
아도 삶을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가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여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의 희열을  
느꼈던것입니다.

아버지는 운명하셨습니다.

그 강연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의학자들이거  
나 의학도들이였지만 아버지를 구원하지는 못하  
였습니다. 이렇게 손을 댈수 없게 온몸에 류산탄  
을 들쓴것 같이 증상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에도  
실려가지지 못한채 그자리에서, 한생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너무도 늦게야 알게 된 조국에 대해  
서, 그 조국이 세계와 인류앞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자부심에 넘쳐 이야기하시던 그 연단에  
서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안운주의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숙연한 감동에 휩싸여 선자리에서 꼼짝 움직이지 못했다. 외국말로 된 한마디의 대답에 의해 한 애국자를 을사 5 적의 후예로 잘못 속단했던 자신의 경솔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나의 눈앞에는 키가 자그마한, 그러나 몸매가 다부진 로인의 자신심에 넘치는, 앙버티고 서있는 듯한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한생을 조국과 멀리 떨어져서 산, 그러면서도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있은, 마침내는 조국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을 안고 인생을 마친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로인이었다.

×

안운주는 한달후에 평양을 떠났다.

비행장에 내려주려 나갔던 내가 왜 다시 조국을 떠나는가고 물으니 그 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도 해외에는 마드라스에 가시기전의 우리 아버지나 저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교포들이 많답니다. 그들에게 조국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알려줘야겠어요. 아버지처럼 강연도 하고...》

그 녀자는 밝게 웃으면서 팔찌가 반짝거리는 조그만 손으로 내 손을 꼭 쥔 다음 비행기에 올랐다.

## 고향의 시내물

(중국) 랑필문

꿈결처럼 신비롭고 정다운 나의 고향  
달빛처럼 맑고 푸른 고향의 시내물  
내 정가로운 시내물이어  
련꽃같이 아름다운 추억의 샘이어

비단필을 드리웠나 맑은 물결  
언제나 다정한 노래실고  
조용히 흘러오고 고요히 흘러가누나  
자유로이 노니는 가재들이며  
닭알같이 반짝이는 자갈들이며  
물결위에 하늘하늘 파란 풀잎이며  
끝없는 새 꿈을 키워주던 모든것

아, 꿈결처럼 신비롭고 정다운 나의 고향  
내 정가로운 고향의 시내물이어

수정같이 맑은 물방울속에  
어느것이 눈물이었더나  
어느것이 꿀물이었더나  
어린시절 단꿈 어린 달콤한 너  
아버지의 고역의 땀방울이 스며 쓰거워진 너

가물에 황이 든 메마른 대지우에  
어머니 주름잡힌 얼굴처럼 말라  
시들고 여위였던 너의 모습

허나 너는 비애를 몰랐어라

그윽하게 울려오던 너의 노래소리  
매미들의 처량한노래에 화답했고  
슬픈 가슴 달래이던 너의 손길이며  
가냘픈 풀잎들을 애무했어라  
아, 맑은 물결이어

어제날엔 찌그러진 초가이영 비겼더니  
오늘은 흰 담벽 꺼안았구나  
푸른 죽순 붉은 꽃, 계곡의 뼈구기새도  
해뜨는 창가에 밝아오는 아침도

휘늘어진 수양버들가지들도  
정성담아 빨고빨 흰디흰 적삼  
바위같은 참대가지에 널고있는  
부지런한 처녀의 고운 자태도  
어머니의 그 옛날 한숨을 말끔히 걷어가며  
너의 찬란한 웃음속에 비껴담았구나

꿈결처럼 신비롭고 정다운 고향  
달빛처럼 맑고 푸른 고향의 시내물  
내 정가로운 시내물이어  
련꽃같이 아름다운 추억의 샘이어

(배민옥 역)

## 첫새벽

한웅빈

이곳 간석지의 일부 작업장들은 밀물시간에만 일했다. 썰물때에는 자동부림배의 밀바닥이 땅에 닿아 움직일수 없게 되기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밀물시간에 따라 깊은 밤에도 하게 되기마련이었다. 수십년간을 일해온 학준에게는 밤작업이나 낮작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습관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첫 밤작업을 나가는 그의 딸은 명절놀이라도 가는듯 들떠서 잠시도 안정 못하고 바스락거렸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열두시반에 깨여날수 있어요?》

딸의 눈에는 걱정이 뽀얗게 실렸다.

《지내 자서 늦으면 어떡해요?》

일을 시작한지 보름밖에 안되는 딸이었다. 학준은 딸을 안심시켰다.

《걱정 말고 자거라. 깨울 때 일른 일어나기라 하렴.》

《일어나요. 일어나요. 꼭 일어나요!》

딸은 몇번이나 아래옷방으로 오르내리다가야 이불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도 한동안 움쭉거리다가야 숨소리가 고르로와졌다. 아마 밤작업에는 무엇인가 놀라운것이 있을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다.

학준은 자리에 누웠다.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제 시간에 깨어나겠는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느낄줄 알았다. 오랜 로동생활, 수업이 하여온 밤일에서 생긴 감각이라고 할지. 그는 마음놓고 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가. 그는 누가 흔드는 바람에 깨어났다.

《아버지! 아버지!》

뜻밖에도 딸이었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내려다 보고있었다.

《시간이 됐어요. 빨리 일어나요. 5분전이에요!》

학준은 놀래여 일어났다.

《네가 어떻게?... 자지 않은게 아니냐?》

《아니예요. 잤어요.》

사실같았다. 갓 깬듯 눈등이 보송보송했고 목소리에서는 잠기가 채 가지지 않았다. 어떻게 깨여났을가. 잠들면 아침까지 깰줄 모르던 딸이었다. 갑자기 어른이 된것인지. 아무래도 이상하여 학준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머리를 기웃거렸다.

《왜 그래요. 아버지?》

어느사이 준비를 다하고 문가에 서서 초조하게 그를 지켜보던 딸이 물었다. 학준은 대답했다.

《암만해도 모르겠거든. 네가 어떻게 깨여날수 있었는지... 어떻게 된거냐?》

딸의 눈에서는 승리자연한 빛이 반짝거렸다.

《그건, ...아니, 말 안할래요. 그건 비밀이에요!》

《흠!》

캄캄한 밤이었다. 쉼없는 바람이 감탕냄새와 습기를 싣고와 얼굴을 적셨다. 밀물이 들어올 시간이었다. 밀물은 언제나 쉼없는 바람을 척후병으로 앞세운다.

학준은 옆에서 걷는 딸의 이상한 거동에 눈길이 갔다. 걸으면서 몇분에 한번씩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마치 무엇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는듯했다.

《왜 그러냐?》

딸은 또 머리를 흔들었다.

《귀에서 계속 종소리가 나는것 같아서 그래요.》

《종소리? 무슨 종소리말이냐?》

《시계종소리말이에요. 탁상시계종소리.》

학준은 껄껄 웃었다. 딸은 늦어질가봐 걱정스러워서 12시 30분에 종이 울리게 해놓은 탁상시계를 안고갔던것이다.

《왜 웃어요?》

딸은 비밀을 말해버린것이 분해서 종알거렸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몰랐겠으면서...》

학준은 다시한번 웃었다. 그리고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밤길을 보며 생각했다. 먼 옛날로 된 젊은 시절에 그는 밤작업을 나가면서 흥겨웠던적이 별로 없었다. 졸음에 취해 흐린 기분으로 나가군했었다. 그 기분은 작업장에서 일손을 잡아서야 가셔지곤했다. 일을 시작하면 밤과 낮의 차이는 없어지는것이였다. 밤작업때면 작업장옆의 휴게실에서 자다가 나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밤길을 딸은 얼마나 흥겹게 걷고있는가. 역시 새세대, 아버지와는 다른 세대였다!...

《아버지.》

《왜?》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뭘 생각했냐?》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있을거



라는걸 생각했어요. 어데서나... 달콤하게 말이예요.》

하고 딸은 달콤하게 하품을 했다.

《그래서?》

《우린 일을 나가거든요. 이렇게 30 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에말이예요. 그러잖아요?》

신문에서 읽은 글줄 그대로였다. 허나 학준은 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지!》

어떻든 진실이 아닌가!- 남들이 다 자는 밤에 그들이 일을 나간다는것도, 이 밤에 하는 일이 30 만정보의 간석지를 건설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라는것도, 이 밤에 깃들어있는 의미라고 할가. 그는 다시한번 되뇌이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자 이 밤일에서 그 어떤 놀라운것을 맞이하게 되거나 앓을가 하는 딸의 기대가 자기에게도 스며들음을 느꼈다. 어찌 하랴. 이 밤에 그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것을 보게 될는지...

그들은 한작업반에서 일했다. 학준은 굴착기운전공이었고 딸은 광차운반공이었다. 아버지가 굴착기로 애써 퍼올린것을 딸은 바다속에 쏟아넣는 셈이었다.

학준이 딸과 한작업반에서 일하게 된것은 두주 일전부터였다. 그때 작업반에서는 떠들썩한 룡담과 웃음으로 맞이했다. 그것은 학준에 대한 호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데다가 웃는적도 별로 없는 그였으나 작업반에서는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가 굴착기를 자기의 팔다리처럼 움직인다고들 말했다. 그때문에 자기를 좋아한다고 학준은 생각해왔다. 그러나 딸의 출현은 자기에게 다른 훌륭한 점도 있는듯이 느껴지게 했다.

《학준동무의 딸이란말이요?》

《믿어지질 않는다?》

《판관이야. 막생긴 바위돌같은 사람한테 저런 껌직한 딸이 있다니?》

《어데 가서 얻어온 딸이 아니요?》

학준은 미소로써 대답하며 담배만 피웠으나 딸은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가랑가랑 맺혔었다. 그날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일했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난 아버지를 닮았어.》하고 말해왔고 때때로 《어쩌면 저렇게 제 애비를 닮았을가?》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온 딸이었다.

그날 그는 퇴근할 때에도 여전히 뽀로통해있었다.

《난 아버지네 작업반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도 볼줄 모르면서!》

학준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며칠 지났을 때 딸의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

이 퍼들기 시작했다. 작업반사람들의 말이 노염을 풀어주었던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더니 신통하군.》

《그림자갈다니까.》

《그대로 닮았어.》

이 말을 누구에게선가 전해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거야 물론이죠 뭐.》하면서 어릴 때부터 누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실례를 들고는 즐겁게 결론지었다.

《난 아버지질 닮았어요.》

굴착기의 동음사이로 그의 쉿쉿한 노래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빨간 머리수건은 작업장 어느 구석에서나 불꽃처럼 얼른거렸다.

딸은 한시도 가만히 서있는적이 없었다. 학준이 바라보는것이기도 했다. 딸은 잠시 서있다가도 그의 눈길과 마주치면 레루길을 청소하거나 광차를 돌아보며 땀이처럼 돌아치군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것을 느끼면 얼른 주위부터 돌아보았고 일감을 찾았다.

작업반사람들은 그것을 재미있게 여겼다. 웃음을 감추며 주시하기도 했다. 한 지점은 좁은 너적은 그것으로 딸을 놀려준적도 있었다. 모두 앉아서 쉬고있을 때 딸의 귀에 대고 큰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수군거렸던것이다.

《동무아버지가 동물 자꾸만 보누만. 저런, 또 봐. 계속. 무슨 할 말이 있는게 아니야?》

딸은 얼른 일어났다. 아버지를 볼대신 레루길부터 살폈다. 널린 돌맹이나 버력은 없었다. 광차주위를 돌아보았다. 역시 깨끗했다. 어리둥절해진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속앓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를 보는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며 반장과 이야기를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날 퇴근길에서 딸은 그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었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더냐?》

《아버지가 날 <원격조종>한대요.》

학준은 껌껌 웃었다. 딸도 웃었다. 아버지와 딸의 이중창같은 웃음소리에 등판에서 해바라기를 하던 갈게무리가 일시에 흩어져 제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원격조종>이라? 네가 나를 <원격조종>한다고는 하지 않던?》

《엄마-내가 어떻게 아버지질 <원격조종>해요?》

딸은 깔깔 웃어버렸으나 학준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굴착기를 운전할 때면 그는 저도 모르게 딸의 빨간 머리수건과 정채도는 눈동자를 찾았다. 그것은 마치도 신호기발과 신호등같았다. 혹시 실수하여 바가지를 잘못 쏘으면 딸의 눈길이 놀란듯 쳐다보군한다. 《아버진 어쩌면.》 하는듯이, 정확히 쏘으면 딸의 눈동자가 미소로 반짝거린

다. 하여 학준은 바가지를 쏟으려다가도 딸이 놀란듯한 눈길로 쳐다보면 《아차!》하며 다시 움직이곤 한다. 이제 와서는 딸이 없는 작업장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준은 자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때때로 들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졌다고들 했다. 딸이 쳐다보면 빙그레 웃는다는 것이다. 학준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일손도 더 정확해지고 빨라졌다고 했다. 결국은 그가 아니라 딸이 그를 《원격조종》하는셈이었다.

이밤도 마찬가지였다. 더우기 엇갈리는 투광등 불빛과 그늘로 하여 광차의 위치를 헛갈리가 쉬웠다. 자신을 가질수 없었다. 그에게 자신을 안겨주는것이 딸이었다. 놀란듯 쳐다보면 잘못되었음을 알고 얼른 바가지를 다시 움직인다. 방긋 웃으며 쳐다보면 마음놓고 쏟아붓는다.

《됐어요-!》

딸의 청정한 목소리, 굴착기의 동음은 무척 요란하다. 옆에서 소리쳐도 알아듣기 어렵다. 허나 학준에게 딸의 목소리만은 푹푹히 들린다. 맑은 종소리와도 같은 그 목소리...

한바가지 듬뿍 퍼들고 휘익- 돌아서면 광차옆의 빨간 머리수건이 눈에 띄어든다. 그것은 불꽃처럼 보인다. 딸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기발처럼도 보인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하는,

열광차... 스무광차... 싣고 싣는다. 막돌, 버럭, 광차, 굴착기바가지, 그외의것은 죄다 잊는다. 불빛은 작업장을 어둠이라는 검은 담장으로 휘둘러놓았다. 《담장》밖의것은 보이지 않는다. 불빛의 둥근원이 세계의 전부인듯하다. 세계는 한껏 좁아졌다.

허나 습기차고 감탕내 풍기는 바람은 둥근원밖의 일망무제한 간석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쉬임없이 퍼담는 버럭에서 한치한치 자라나고있는 방조제를 느낀다. 하여 세계는 끝없이 넓어진다. 광활한 간석지와 지평선으로 될 수평선너머까지, 그리고 그우에서 생활이 꽃피여날 태일에까지...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제방을 학준은 마음으로 느낀다. 그 한메터 한메터를... 자라나는 제방과 함께, 넓어지는 땅과 함께 1년, 또 1년... 10년이면 어디까지 갈까. 멀리 또 멀리. 그때 학준이 30 만정보의 간석지와 함께 태어난 외손자에게 지도를 퍼놓고 《여기도...여기도 할아버지가 막았다.》하고 말할 때면 딸은 그옆에서 《엄마도 같이 막았단다.》하고 말할것이다.

《어떻게 막았나?》

와르륵 쿵- 광차의 키가 불쑥 높아진다. 또 한광차... 빨간 머리수건, 령롱한 눈동자, ...살같이

달려나가는 광차, 이렇게, 간석지는 이렇게 막는다! 《그때 할아버진 굴착기로 담아주고 엄마는 그걸 내다쏟으며 간석지를 막았단다.》

《엄만 그때 몇살이었나? 난 어데 있었구?》

《응?》

학준은 혼자서 껄껄 웃는다. 무슨 어처구니없는 생각인가. 이제 겨우 열여덟살난 딸을 두고, 허나 그때는 울것이다. 딸은 그렇게 말할수 있게 살것이다. 나는 믿는다! 세월이란 빠른것이다. 한광차, 또 한광차... 광차에 싣는것은 막돌만이 아니다. 시간도 싣고있다. 광차의 궤도를 따라 시간은 가고있다. 그리고 오고있다. 30 만정보의 간석지를 두고 옛말할 그 시간이. 빨리 더 빨리, ...

바가지의 묵직함을 느끼며 팔을 획- 돌린다. 빨간 머리수건... 그런데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쳐다보지 않는다. 머리수건도 팔락거리지 않는다. 도리어 축 늘어졌다. 시들은 일사귀처럼.

학준은 한순간에 습관된 툴동을 잃어버렸다. 급히 제동기를 밟았다. 어찌된 일인가.

딸은 삽자루에 기대여서서 한쪽옆을 보고있었다. 학준은 큰소리를 치려다가 그만두었다. 굴착기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어데 있으랴. 무엇을 보느라고 저렇게 정신이 팔렸을가. 딸이 보는쪽을 눈여겨보았다. 장난질 좋아하는 젊은 녀석이 서있었다. 또 무슨 익살을 부리는 모양이다. 실없는 녀석같으니. 그녀석보다도 그런데에 눈이 팔려일을 잊은 딸의 행동이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딸은 그제야 그의 눈길을 느낀듯 와들하며 머리를 돌렸다.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른다. 학준은 슬며시 외면하며 천천히 굴착기팔을 돌렸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겠지.

허나 얼마후 학준은 노하지 않을수 없었다. 딸이 또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었다. 굴착기바가지가 돌아오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이럴수가 있는가. 익살을 부리는 녀석도 마찬가지다. 혼쌀을 내야지! 노한 눈길을 딸에게서 그녀석에게로 던졌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녀석이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영문을 알수 없었다. 무엇에 정신이 팔려있는가.

딸은 와들하며 머리를 돌렸다. 왜 저렇게 놀랄가. 딸의 눈길이 쳐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신호등같이 반짝거리던 눈동자가 안개라도 낀듯 뿌연다.

그래야 학준은 그가 졸았음을 깨달았다. 졸다니, 긴장한 작업시간에,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와르륵 쿵- 하고 쏟아지는 소리, 공연히 죄없는 젊은이를 욕했다. 제 딸의 허물인줄은 모르고... 잔돌맹이들이 광차밖으로 쏟아졌다.

《아차!》

잘못 쏜것이다. 그러나 딸은 놀란 눈길로 쳐다보지 않았다. 허리를 꼬부리고 쏜아진 잔돌을 삼으로 긁어모으기 시작했을뿐이었다.

학준은 다시 굴착기팔을 천천히 돌렸다. 이 밤따라 딸이 별로 작아보이고 어려보인다. 굴착기우에서 내려다보아선지. 하기는 아직 어련애다. 겨우 열여덟살이니,

그는 자기가 열일곱살때에 총을 메고 전선으로 나갔던 사실을 잊고있었다. 열여덟살때는 벌써 구대원이었다. 신대원들에게서 《상등병동지》로 불리웠고 후방창녀들에게서 《군대아저씨》로 불리웠다. 그런것은 모두 잊었다. 다만 딸이 어리다는 생각만 했다.

반장이 투광등불빛속에 나타나 경기장에서 심판들이 《경기중지》를 알릴 때처럼 두손바닥을 세워붙여 머리우에 쳐들었을 때 학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부림배가 다 찬 모양이다. 부림배를 내다쫓고 들어오려면 반시간은 걸려야 한다. 다행한 일이었다. 반시간이라도 눈을 붙였다나면 썩 나올것이다.

학준은 굴착기를 멈추고 아래로 내려갔다. 딸은 광차에 기대어 서있었다.

《줄리느냐?》

딸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줄리지 않아요.》

허나 쳐다보는 눈동자가 뿌연게 흐렸다. 졸음이라는 안개가 짙게 어렸다.

《저기로 좀 가자.》

학준은 조용한 부두기슭으로 걸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타박타박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걸어차는 소리와 함께 조그맣고 싸늘한 손이 팔목을 붙잡는다.

《엄마-!》

걸으면서 줄았던 모양이다. 불시에 어릴 때 잠투정하던 목소리가 떠오른다. 변하지도 않았다. 허나 학준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무뚝뚝하려고 애썼다.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다!》

《...》

말없이 따라오는 발자국소리, 캄캄하다. 바다도 하늘도 캄캄하다. 별빛조차 선명하지 못하다. 하루밤의 어둠이 밀리고 밀려와 덧쌓인것 같다. 새벽은 밤의 마지막 지렁점이다. 그래서 새벽이 가까와오면 더 캄캄해지는것인지. 부림배를 끌어가려고 달려오는 예선의 불빛만이 선명하다.

《여기 앉거라.》

딸은 앉자마자 학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학준은 애써 거칠게 말했다.

《내 아침에 말했지. 밤작업을 하려면 폭 자야 한다고, 작업장에서 그제 무슨 꼴이나? 낮에는

왜, 잠이 안오던?》

《아니예요.》

《그럼 왜 자지 않았냐?》

《낮엔 자기가... 막 아까와서요.》

《뭐?》

학준은 웃었다. 어이가 없었다.

《낮에 글썽 어떻게 자요? 해빛이 쨍쨍하구, 밝구, 사람들이 다 뭔가 하는데... 아깝잖아요?》

학준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로동자가 제일 아까와해야 하는것은 일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위해서 로동자가 있는거구, 네가 늘쌍 말하는것이지만,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구, 그런데 즐다니?》

《안 즐래요.》

허나 그 목소리부터가 졸음에 실렸다. 하기는 한창 잘 시간이다. 딸의 말대로 하면 《달콤한 새벽잠》을 잘 때다. 그는 부두 저쪽에서 아늑하게 반짝거리는 휴게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머리를 흔들었다.

《조금만 견더라. 이제 곧 밝을게다. 졸면 버릇된다.》

《알아요.》

딸의 머리는 점점 더 무겁게 팔에 실린다.

《난...졸지 않아요.》

조용해졌다. 쉼근거리는 숨소리, 잠들고만것이다. 허전하다. 어깨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허나 손은 벌써 천천히 옷옷의 단추를 벗기고 있었다. 옷옷을 벗었다. 잠든 딸애의 어깨에 씌워 주었다. 이제까지 열여덟해, 몇십번일지 몇백번일지 모르게 하여온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그렇게 했다.

묵묵히 앉아있었다. 조용한 파도소리, 딸의 고르로운 숨소리, 이제 부림배가 들어오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 저절로 깨어날수있을가.

캄캄한 수면, 때때로 파도칠 때면 푸른빛이 수면위로 퍼져간다. 간석지의 바다물은 린으로 이루어진것 같다. 찬빛, 정제없는 빛 그 빛은 어둠을 더 짙게 할뿐이다.

까닭없이 몇년전에 있는 일이 돌이켜졌다. 아니, 까닭없이 떠오른것이 아니다. 그때도 새벽이 었기때문이다.

몇년전 어느날 밤, 딸은 새벽닭시질차비를 하는 학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새벽에 닭시질하러 나가요?》

《고기가 잘 물려서지. 그리고 새벽이 좋구...》

《새벽이 어떻게 좋아요?》

《글썽... 그제 좋지.》

그러자 딸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못견디게 졸라댔다.

《아버지, 나도 갈래요. 날 데리고 가달라요. 예?  
난 아버지 고기잡는걸 볼래요.》

학준은 머리를 흔들었다.

《철없는 소릴.》

그러자 딸은 물러나지 않았다.

《난 꼭 갈래요. 같이 갈래요. 내가 낚시에 미끼  
랑 끼워줄게요. 예?》

《허허.》

학준은 승낙하고말았다. 딸애는 어릴 때 명절  
날 동물원에 가던것보다 더 좋아했다. 아버지의  
낚시질이 신비해보였던것이다.

《아버지, 새벽에 꼭 깨워줘야 해요.》

《그래.》

안해는 딸애가 옷방으로 올라가자 학준에게 격  
정스레 물었다.

《정말 데리고 가실려우?》

학준은 시무룩이 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우다 못해 그냥 갔다고 하  
구려.》

허나 딸애는 더 꾀가 있었다. 새벽에 일어난  
학준은 낚시대를 찾을수 없었다. 얼마후에야 딸  
의 이불밖으로 비죽이 내민 낚시대를 발견했다.  
깨워줄것 같지 않으니 낚시대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갔던것이다. 데리고 갈수밖에 없었다.

낚시터에 이르렀을 때는 아직 캄캄했다. 낚시  
대를 벌려놓기 시작했다. 딸애는 성수가 나서 그  
의 일을 거들었다. 너무 열성적이어서 방해가 될  
지경이었다. 준비가 끝났다. 딸애는 무릎에 턱을  
올려놓고 앉아 낚시동동이만 지켜보았다. 물고  
기가 물리는걸 보겠다는것이였다.

《왜 아직 안물려요?》

《좀 기다려야지.》

또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날이 밝기 시작했다.  
갑자기 낚시대가 흠칫했다. 낚시동동이 물속  
으로 곤두박질친다. 학준은 낚시대를 힘껏 쳐들  
었다. 새벽빛속으로 팔뚝같은 물고기가 번쩍거리  
며 솟아올랐다.

《그렇지!》

옆에서 터질 딸애의 환성을 미리 들었다. 그런  
데 조용했다. 이상스러워서 돌아보았다. 딸애는  
무릎에 턱을 올려놓은채 잠들어버렸다. 어깨에는  
자기의 웃웃이 걸쳐있었다. 언제 벗어나서 썩워주  
었던지...

《헛참!》

학준은 물고기를 밖으로 끌어냈다. 기운차게  
펄쩍거리는 몸통이에서 물방울이 소란스레 튕겨  
났다. 그 물방울이 딸애를 깨워놓았다.

《어마나! 잤어요? 야- 이렇게 큰걸!》

딸애는 낚시대가 부러지지 않은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학준이 또 미끼를 꿰자 이상한듯 물었다.

《또 해요? 날이 밝았는데!》

《또라니?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날은 낚시질을 별로 더 오래하고싶었었다.  
그러나 딸애는 도리어 실망한듯

《그래요-?》

하고 말꼬리를 길게 끌었다. 지루해졌던것이다.  
다시 무릎에 얼굴을 올려놓았다.

학준은 낚시대를 거두고말았었다. 몇년전의 일  
이였다...

학준은 부지중 한숨을 쉬었다. 까닭없이 떠오  
른 회상이 아니다. 그후에는 새벽낚시질을 더 나  
갔던것 같지 않았다. 딸애도 새벽낚시질을 가자  
고 졸라댄적이 없었다. 신비한 기대가 사라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야간작업에는 신비한것이 더욱 없지  
않는가. 끝없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 지새운  
밤의 피로. ... 밤일을 나오면서 딸이 품었던 기  
대는 지루함과 피로만으로 바뀌졌을수도 있다.  
그러면...

학준은 눈을 감았다. 서늘한 바람, 조용한 파도  
소리, 딸의 숨소리처럼 조용한, ... 조국의 넓어지  
는 기슭을 따라 한생을 걸어야 할 이 길이 딸애  
게 밤에도 낮에도 걷고싶은 즐거운 길로 되어주  
었으면!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울린 딸의 목소리에 학준은 흠칫했다.

어떻게 깨여났을가. 시계종소리도 없는곳에  
서... 정말 깨여났는가.

《날이 밝았어요. 아버지! 날이!》

날이 밝았다. 수면이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  
했다.놀람에 찬 딸의 쉼쉼한 목소리.

《캄캄했었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 뜨니까 날이  
밝았어요!》

반짝거리는 눈동자, 안개가 말끔히 걷히였다.  
언제 졸았던가싶게 샘물처럼 맑은 눈, 혹시 학준  
은 꿈속에서 딸이 조는것을 본것이 아닐가.

(그래 네가 눈을 뜨니 날이 밝았지!)

파르스름한 새벽, 하늘도 바다도 파랗다. 어찌  
면 저리도 파랗가...

딸은 조용하다.

왜 말이 없을가. 또 조는것이 아닐가. 낚시터에  
서처럼. 새벽에 대한 노래는 열여덟살의 감상적  
인 한순간이었던가. 아침이슬과도 같은,

학준은 어깨너머로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빛나  
는 눈동자를 보았다. 촘촘한 속눈썹아래의 눈동  
자, 고사리숲속의 샘물처럼 보인다. 새벽빛이 어  
렸다. 파랑고 신비로운 빛... 투석하는 자동부림  
배를 보고있었다.

부림배에서 물기둥이 솟구쳐오르고 잔물방울들  
이 장미빛구슬로 되어 흩날린다.

딸의 얼굴이 어리광치듯 팔에 꼭 대인다.  
 《아이, 좋아!》  
 《이제 졸음이 다 잤나?》  
 《엄마- 내가 언제 졸았다고 그래요? 난 졸지 않았어요.》  
 학준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제 눈을 감고있었겠지.》  
 《아니예요. 난 간식지를 봤어요. 우리 간식지를.》  
 《우리 간식지를?》  
 《예. 그런데 글썄 다 막았잖아요? 제방이 저기로 쪽-》  
 딸은 손으로 쪽-가리키더니 문득 말을 끊고 놀란듯 튕겨일어났다. 그리고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보고 그럴까. 무엇을 발견했을까.  
 학준은 그가 보는 곳을 보았다. 달려오는 《자주호》 자동차들, 앞차창에서 장미빛 새벽노을이 불탄다. 운전칸에서 모자를 멋지게 제껴쓴 젊은 운전사의 얼굴이 내다보고있다. 젊은 눈동자도 장미빛으로 불탄다. 훌륭하다.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젊은이가 또 있을까.  
 아니, 딸은 그보다 더 먼 곳을 보고있었다. 앞으로, 더 앞으로... 딸이 보는 곳에 눈길이 닿자 학준은 가슴이 쿵하고 울렸다.  
 바다를 가로막으며 길게 뻗어나간 제방, 억센 팔뚝처럼 수평선을 향하여 쳐들린 제방, 그들이 지새운 밤에 더 길어진 그 제방의 끝을 딸은 보고있었다.

《아버지, 저기로 나가보지요. 예?》  
 제방끝을 가리키는 딸의 손길을 타고 아득히 멀어졌던 자기 로동생활의 첫 나날들이 학준의 눈앞에 떠오른다. 첫 밤작업, 피로와 졸음에 지치고 짜증을 내다가 새벽빛속에서 자기가 해놓은 일을 보고 환희에 넘치던 그 새벽, 그 새벽도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신비로웠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선명히 떠오르는것은 해놓은 일에 대한 긍지, 저 일을 해놓은것이 정녕 자기였던가 하던 놀라움이다. 마치도 태고의 성벽에서 이끼끼 거대한 성돌을 보는듯하던 성스러운 느낌...  
 왜 이 새벽에 신비한것이 없다고 생각했던가. 자기 로동의 열매보다 더 신비로운것이 어데 있으랴. 더우기 시간마다 넓어지는 조국의 기슭이 앞에 있거늘,  
 《아버지! 어서요!》  
 재촉하는 딸에게 학준은 말했다.  
 《일할 시간이 됐다.》  
 부림배가 돌아오고있었다.  
 딸은 한숨을 쉬며 제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걱정스레 물었다.  
 《아버지 래일새벽도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럼! 더 아름다울게다!》  
 제방의 끝이 멀어질수록 간석지의 새벽은 더 아름다울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대답이었다. 딸에게는 마음속으로 다른 말을 하고있었다. 꿈에서도 래일의 간석지를 보는 딸.  
 《네가 바로 새벽이다. 딸아!》

## 어머니

(쏘련) 마르크 막씨모브

설참엔 안해를 그리고  
 전투에선 벼를 그리네  
 하지만 어머니만은  
 정녕 잊었던가  
 기억속에 영원히 사라졌던가...  
 허나

출정에선 흔히 보는 일  
 생의 마지막 순간  
 귀밑머리 싹허연 용사도  
 《어머니!》 하고 웨친다네  
 ...  
 그리고는 쓰러진다네  
 말발굽밑에

(구경서역)

## 산촌의 작은 역

강립석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명문고개의 작은 역  
두세명 내리면 교작이던  
인가 드문 산촌의 중간역이여

하나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가  
얼마나 많은 강제와 세멘트들이  
판평, 판평을 찾으며 여기서 내리는가

어찌보면 외로운듯 호젓하던 신호기도  
신이나서 오르내리며 열차들을 부르고  
닫겨만있던 개찰구도 두문 활짝  
밀려드는 대오를 맞으며 바쁘구나

애어린 병사-건설자도 거인만 같고  
나이든 지원자도 병사만 같은곳  
어째선지 여기선 길손모두가  
내려야 할것만 같아지누나

뒤섞이는 사투리들  
울리는 억양은 같지 않아도  
판평, 그 한곳을 향하여  
하나의 걸음으로 발맞추어가누나

오, 미더워라  
당의 부름안은 불타는 가슴들이  
푸른 꿈 설레이며 내리는 역이여  
보람찬 위훈의 인상깊은 관문이여

너 마치 오늘을 위해 있은듯  
판평의 그 계획  
판평의 그 시간에 맞추어  
아침을 살고 밤을 살거니  
정녕 너의 저 겸손하던 지붕도  
하늘을 향해 은빛날개 펼쳤구나  
정녕 너의 저 정다운 기적소리도  
무엇인가 위대한 탄생의 고고성을 안았구나

그렇다, 저기 저 산을 넘으면  
강과 강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하나로 모아안을 판평의 언제  
80년대의 대비약을 떠밀어주며  
시대의 물결로 굽이쳐갈 백리물길...

이제 머지않아 저 산너머 문수령에  
새로운 우리 식의 첫 동력기지 태어나고  
우리 당의 본때를 높이 떨치며  
건설자영웅들은 돌아가리라.

오, 그날  
들끓던 구내는 다시 한적해져도  
너의 이름은 온 나라가 기억하리라  
북변땅 산촌의 작은 역이여

후날에도 먼 후날에도 잊지 않으리라  
조국의 거창한 진군의  
값높은 디딤돌이 되여준  
산촌의 작은 역, 너의 오늘을!  
너의 위훈을!

## 어머니의 마음

황승명

행복한 밤이 흘러라  
방선에서 날아온 아들의 편지를  
보고 또 보며  
잠들지 못하는 어머니

눈을 감으면 잠이 오라  
바라고 바라던  
어머니의 소원  
품에 안아 자래운 그 아들이  
당원이 되었구나

맨발로 뜨락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자란  
그 아들이었다  
붉은넥타이를 매워  
학교길에 내세우면서도  
언제면 철이 들까  
걱정부터 앞서던 어머니

자나깨나 그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아들의 모습은  
어릴적 그 모습

그래서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당원이 되라고  
그토록 당부하면서도  
마음놓지 못하던 어머니였다

때없이 응석을 받아주던  
어머니의 살뜰한 인정만으로도야 어찌  
원썩을 겨냥한 그 총이  
백두의 만년설을 헤쳐온  
투사들이 넘겨준 그 총임을  
다 깨우칠수 있었으랴

어머니손을 대신하여  
그 가슴에 지녀주었을  
당원증주머니와  
그 끈도 만져보고싶구나

그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돌격의 만세소리 높이  
훈련의 산발을 날아넘는

한 당원의 뜨거운 숨결을 느껴안는듯

무엇을 더 바라랴  
일당백의 용사로  
당원으로 자라나  
이제는 아버지수령님앞에 내세워  
부끄럼없을  
어엿한 그 모습...

아, 행복한 밤이 흘러라  
방선에서 날아온 한장의 편지를  
보고 또 보며  
진정 어머니는 아들과 속삭이듯 말하네

-나는 한 어머니의 아들로  
너를 자래웠건만  
당은 수백만 아들을 키워낸  
그 불같은 사랑으로  
너를 키워  
이 어머니앞에 세워주었구나

## 불을 몰아간다

김정철

불을 위한 굴진의 길  
탄부들만 간다더냐  
불을 위한 굴진의 길  
우리도 간다

흘러흐르는 북변의 강물이  
십리 또 백리  
내 들어가는 굴길을 빠지면  
판평, 마평 두 《바다》  
물은 두세번 언제를 뛰어내려  
물은 두세번 불로 태어나리

아, 물을 몰아  
전기도 얻고  
서해 간석지에 생명수도 주게 될  
아버이수령님 안겨주신  
우리 식의 발전소건설

이제 태천의 눈부신 전기  
조국땅 곳곳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은 받아안으리니  
빛처럼

열처럼  
그리고 쌀처럼  
우리 식이란 소중한 그 말을

그것은 사람들 가슴마다에  
이 땅에 사는 자부의 불길로  
황황히 타오르고 타오르리  
이 땅에 번져갈  
아름다운 불, 불

아, 가슴속 타오르는 불이 없이야  
내 어찌 불을 몰아가랴  
불을 위한 굴진의 길  
수령님 명령을 받은 전사의 가슴  
불이 되어 바위를 태우고 굴을 뚫노라

흘러들라 강이여, 백리굴에  
격류하라 강이여 불이 되어  
물을 몰아  
불을 몰아  
나는 간다!

## 해빛 넘치는 땅

김명희

나는 대흥단군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정형을 취급한 작품을 써보내라는 창작사의 전화지시를 받고 이번 취재길에 올랐다.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9 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해 전국 도처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공사를 활발히 벌리고있는 이때 나의 현실체험지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소재를 잡아칠수 있을것인데 하필 이렇다 할 소문도 없는 자그마한 군을 취급한 작품을 요구하는것이다.

내가 떠날 때 사에서는 대흥단군에 가거든 라봉만이라는 사람부터 만나라고 했다.

(라봉만이? ... 이것 참, 야단났군, 괜히 내가 그때...)

내가 지난번 현실체험기간에 한 문학통신원의 작품을 도와주어 발표시킨 사실을 창작사가 알고있으므로 이 포치가운데도 그런 요구가 없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던것이다.

백두산철길에서 그중 대흥단군과 거리가 가깝다는 연사역에 내린 나는 지름길로 5리가량 걸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똑같은 철길시발점이 나졌는데 그우에는 비료를 가득 실은 화차들이 주렁이 서있었다. 어데까지 뻗어간 철길인지 저 화차를 리용했으면 하는 욕망이 나의 걸음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숲이 트인곳에 나섰다. 철길은 마치도 흰 구름이 두둥실 떠도는 하늘가로 그냥 치달아오르기라도 한듯 눈뿌리 아찔한 덕마루로 곧추올리뻗어있었다.

(제법인걸. 잉클라인까지 다 놓구!)

직업적인 호기심이 지지리 이 길에 내키지 않던 나의 마음을 다소 가라앉혀놓았다.

령마루에서 끝차가 쇠바줄에 달려내려와 화차들을 달자 나는 거기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2명의 길손과 함께 끝차에 올랐다. 이어 레루우를 구르는 무쇠바퀴들의 고르로운 진동이 온몸에 느껴지고 나는 끝바닥과 산발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덕마루로 올랐다. 하늘이 점점 넓어지고 함북일대의 높고낮은 산들이 각일각 정수리를 드러내었다. 오래지 않아 나의 눈앞에는 누런 밀바다와 푸른색의 감자숲이 끝없이 펼쳐졌다.

《아, 예가 바로 백두삼천리벌이구나!》

황홀경에 빠진 나는 저도 몰래 이렇게 탄성을 올렸다. 옆에 앉은 처녀가 나의 탄복이 아직 때가 이르다는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초행길인 모양이군요?》

《그렇소!... 벌이 굉장하구만! 넓고 또...》

《호호, 굉장한건 이제 보시게 될거예요.》

《그렇소?...》

잉클라인선로는 등판을 꺾질러나간 철길에 이어졌는데 거기에서 또한 여라문량의 비료차량을 단 디젤기관차가 기다리고있다가 방금 덕에 오른 차량들을 더 달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역시 비료지대우에 옮겨앉았다.

얼마쯤 달리니 도처에서 집채같은 종합수확기들이 밀가울을 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철길한옆에서는 감자수확기가 쉽없이 달려와서 걸음을 나란히 하는 자동차들의 적재함에다 감자사태를 들썩우곤하였다. 실로 처녀의 말대로 굉장한 광경이 펼쳐지는것이였다.

발전소건설은 발전소건설이고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취재해둔다고 나는 처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였다.

처녀는 나의 행색을 새삼스레 살피더니 기자인가고 물었다.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와 4 촌쯤 되는 직업이라는 나의 말에 처녀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아무튼 잘 오셨어요! 잉클라인도 이 철길도 다 지난해에 놓은거랍니다. 그리구 이제 20 리쯤 더 가면 삭도건설장도 보시게 될거예요. 소흥단골 상공에다 량쪽 등판의 철길을 련결시켜주려고 놓은 삭도말이에요!》

《아니, 삭도까지?!》

나는 감동된 나머지 하마트면 달리는 화물차량우에 앉았다는것도 망각하고 취재수첩을 꺼내들 번하였다. 지금껏 영화나 출판물을 통해 간직된 백두삼천리벌에 대한 나의 표상은 트랙토르와 비행기와 수확기로 곡식을 심어서 가꾸고 가을하는 종합적기계화였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벌에 농사전용 잉클라인과 삭도가 놓이고 각 분장으로 뻗어간 철길로는 농업자재를 실은 기관차가 달린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만 하였다.

처녀는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였다.

《작가동지, 오래지 않아 이 철길이 전기화된다는것도 널리 자랑해주십시오.》

연사 딸네집에 다녀온다는 할머니도 구미가 동하는지 처녀에게 귀띔했다.

《준의선생, 밥가마가 죄다 전기화된다는것두 책에다 써내면 좋잖을가, 굴뚝들이 종적을 감춰버릴 희귀한 사변인데!》

나는 어리둥절히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타일렀다.



《허허, 이거 너무 비행길 라지 마십시오. 이런 나무고장까지 언제 다 전기화한다구 그러시오?》

그러자 처녀 준의가 무슨 말을 하고있느냐는 듯 나를 흘깃 치며보았다.

《아이참, 믿지 못하시네요... 장참 어떻게 모든 걸 국가에서 주겠거니만 바라며 살겠나요? 우리 군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해가지고 농사일까지 모두 전기화할 계획이랍니다!》

자랑겨운 처녀의 말에 할머니도 긍지를 누를길 없는듯 더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상대로 말했다.

《말이 났으니말이지 우리 농장은 로력자당 경지면적이 수십정보씩 돌아가다나니 남는 일손이 몹시 바롭네다. 그래서 발전소공사에랑 가정부인들까지 자진해서 땀쳐나서서 달라붙었다우.

우리 막내딸은 작업반 통계를 보다가 공사장에 가더니 입당서건 하구오다!》

《그랬습니까?! 따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점점 더 귀가 솔깃해지는 나의 물음에 할머니는 사뭇 자랑스레 말했다.

《최금옥이라구... 우리 준의선생두 늘 거게 가봐서 잘 알지만 우리 금옥이같은거야 무슨 큰일을 한다구요. 책임비서어른이 하도 뒤받침을 잘 해주니 다... 유곡구에선 자체로 발전술 벌써 두개나 세우구 전기를 짹짹 뽑는다우!》

나의 가슴에서는 이 벌에 걸음이 내키지 않던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가 산같이 일어섰다.

(군당책임비서가 주동적으로 내미는 발전소건설공사라! ... 라봉만이라는 사람도 혹시 이런 내용을 작품에 담지 않았을가?)

라봉만이가 어디서 일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두녀인은 그런 사람은 이름조차 들어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나의 팔을 덥석 잡으며 간절히 권고하는것이였다.

《라봉만이구 뭐구 책임비설 소오다. 그 어른은 포전에 나가두 로동자들과 몇마디 이야기나 나누고 곡식차라는거나 살펴보구 가는게 아니우다. 늘쌍 승용차뒤에다 호밀 넣어가지구 다니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곡식포기들에 복을 주고서야 떠난다우!

지난 여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우? 차를 타구 서두분장엘 다녀오다가 비를 맞으면서 신타로 가는 우리 결집 령감을 갈림길에서 띄여보구 그를 차에 태워보냈다질 않소. 자긴 글썽 그 모진 소낙비를 다 맞으면서 거기서 5 리나 되는 읍까지 걸어내려가구오다. 참말 쉽잖은 일군이지요!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니 어서 발전소건설장에 가보시우. 그러면 좋은 이야기가 많을거외다.》

어느덧 기관차는 철길종착점에 멎었다. 동, 서덕을 갈라놓은 소흥단계곡이 굽어보이는곳이였다.

삭도원동소를 앓힌 덕마루턱에서 여라문명 사람들이 권양기를 옮기느라고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아, 마침 책임비서동지가 저게 계시는군요. 저 바른컨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구령을 주시는분말이예요!》 하고 반색을 지으며 처녀는 말했다.

《저 보위색작업복을 입은 체소한 사람말이지요?...》

나는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원동소쪽으로 갔다.

대흥단군 군당책임비서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보통키의 중년이였다. 선이 가는 얼굴에 강기가 넘치고 나의 손을 잡는 그의 장알박힌 팻팻한 손에서는 억센 힘이 느껴졌다. 말할 때마다 미소를 앞세우는 입술은 조갈이 일어서 까칠했다.

그는 중소형발전소건설과정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듣고싶다는 나의 요구에 저으기 난감한 기색을 지었다.

《허허 이것참. 경험은 무슨 경험이 있다구 그러십니까? 아직 공사들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형편인데...》

보아하니 그는 그 경험속에 다분히 깔린 자기 한 일들을 피할길 없어 이야기를 삼가하는것 같았다. 아예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취재할 생각으로 라봉만의의 거처부터 물었다.

《라봉만이라니요.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노라는 사람은 책임비서만이 아니였다.

(그분? ...음, 문학통신원청년이 아니구 군급 어느 책임간부인게로군!)

《그저 그 이름을 알고있을뿐입니다.》

《아, 그분을 쓰십시오. 그분에 대한 자료라면 얼마든지 제공해드릴테니까요!》

...산을 뚫어 두만강물을 에돌리는 중형발전소 건설장에서 내가 만난 라봉만은 문학통신원도, 어느 책임일군도 아니였다. 백암군에서 왔다는 로인이였다. 진회색작업복을 입은 그는 두만강언제우에서 수문제작을 주관하다가 나를 만나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창작사의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띄웠더니 인제야 사람이 나타났다고 무척 반기였다.

《늙은게 주책없이 무슨 편지질이냐구 나무람 말아주. 여기 사람들은 책임비설 닮아서인지 도무지 자랑할줄 모른다니까.

말이 났으니말이지 김성진책임비서는 보통일군이 아니외다. 내 여게 와서 보구 들은 얘길 죄다 해드릴테니 조금만 참아주오다. 이제 수문을 마무리지어 저 수로에다 물살을 내리치르면 산너머 골바닥에서 위잉-하구전기가 일어날거웨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나는 마침 수천여크바의 소형발전소 시험가동을 목격하고 두만강기슭에서 라봉만로인과 마주앉았다.

×

몇해전의 어느날 한 일군으로부터 군내 탁아소, 유치원의 겨울나이 땔나무장만정형을 보고받던 김성진은 문득 펜을 놓고 무거운 생각에 잠기었다. 군안의 사무기관들,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들의 살림집들에서 년중 아궁이에 때버리는 나무가 무려 수십만립방이라는데 타산이 미쳤던것이다.

수많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보존하고 있는 군에서 해마다 그렇게 많은 나무들을 찍어 때면 후대들은 도끼를 들고 어디로 갈것인가?

나라의 귀중한 목재자원이 불에 타버리는것도 가슴아픈 일이었지만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주변의 숲들에 혹시 티끌만한 손상이라도 갈가봐 그는 걱정되였다. 하여 그는 그날부터 이에 대한 어떤 타개책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굴리었다. 드디어 생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벌리고있던 소형발전소건설을 판이 크게 벌려서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전기난방문제까지 해결하자는데 이르렀다. 말하자면 두만강물을 지형이 낮은 연사쪽에 펴구어서 중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것이였다. 그는 곧 일군들과 협의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일군들이 그 착안이 좋다고는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는 못했다. 큰 발전소를 건설해본 경험이 없는데다 로력과 자재가 딸리고 공사를 담당할만한 전문일군도 없었기때문이었다. 여러차례 협의를 거듭해서야 로력과 자재에 비를 찾아내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했으나 두만강을 막아야 할 세멘트만은 자체로 해결할수 없었다.

김성진은 세멘트를 이제라도 국가계획에 물리려다가 도리를 저었다. 전국 도처에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건설하고있는 이때 국가에 손을 내밀자니 그 손이 몹시 떨리었던것이다.

하는수없이 그는 두만강기슭을 오르내리며 어떻게 하면 강을 막을것인가 하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 전날의 때동에 눈길이 미쳤다. 유구한 세월에 수십차례나 큰물이 겹음에도 그냥 남아있는 때동은 그에게 세멘트 없이도 강을 막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는 즉시 지난날 때동지기를 수소문하여 백암군으로 차를 달리였다.

《아니, 그 때동이 여적 남아있더라 말씀이웬까? 히야, 그 정말!...》

머리 허연 라봉만로인이 책임비서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깁나무가 물에서 오래 건딘다는 말이 맞긴 맞는군!》

그는 그때 그 때동을 제것처럼은 실속있게 막지 않았다고 했다. 나라의 귀중한 목재자원이 왜놈들나라로 흘러가는게 가슴아파서 대충 막았다고 했다.

김성진은 활기를 띠며 다가왔다.

《내것이다 하구 막으면 몇해나 건딜가요?》

《몇해라니요? 기초를 깊숙이 파구 쌍겹휘틀속 에다 돌벽을 쌓고 삼합로를 잘 다져넣으면 아무리 줄잡아두 내 나이 곱절은 건더낼거웨다!》

《로인님의 년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 때동을 막던 52년전에 스물세살이었다우.》

《그러니 내것이다 하구 막으면 150 년은 문제없다 그 말씀이군요!》

《암, 150 년은 문제없구말구요!》

《중습니다. 아주 중습니다!... 로인님, 미안한 부탁입니다만 저하구 같이 거주실수 없습니까? 현장에 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쳐만 주십시오. 일체 편의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허허, <고문관>이 되여달라는거구만!》

《어찌겠습니까. 로인님께서도 아시다싶이 우리 종합농장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오죽 많이 받았습니까?... 인제는 제발로 걷는 습관을 붙여야지요...》

《지당한 말씀이웨다!》 로인은 쾌히 수긍했다.

《여보 로친네, 행장을 좀 갖춰주. 성쌍구 남아 돌아가던 돌이 군당책임비서 차를 타구 강산구경을 하게 됐구려!》

오래지 않아 허리굽은 할머니가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받쳐들고 들어왔다.

《저렇게 문서가 어둡다구야. 작업복을 가져오게나. 작업장에 두루마기바람으루다 나타나며는 젊은이들이 뭐라겠소?》

김성진은 웃으면서 흥볼 사람이 없으니 어서 두루마기를 입고 가자고 했다. 로인은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책임비서어른, 룡을 하려거니 생각마우다. 책임비서어른이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구 애면글면 뛰여다니는데 감동돼서 그러외다. 힘이 생기구 성수가 나서...》

그리하여 두만강물은 세멘트 한토리 안들이고 흐름길을 바꾸어 5 리 굴길로 에돌아가게 되었다.

말은 간단하지만 비생산부문에서 얻어낸 로력 38명으로 무어 시작한 《5 호발전소》건설공사는 쉽사리 끝난것이 아니였다. 걸음마다 앞을 막아서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수천메터의 산을 뚫는 물길공사였다.

김성진은 물길공사장에 착암기를 비롯한 작업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는 한편 선전부일군들을 발동시켜 힘있는 선전공세를 들이대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자신도 만사를 제껴놓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김성진은 일군들의 손에 작업도구들을 들려가지고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방법들을 일일이 깨우쳐주었다.

그는 항상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한다.

일군은 불씨가 돼야 한다. 그래야 못심장들에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다. ...달리자. 지금처럼 일

해가지고선 공산주의사회에 남던저 들어갈수 없다. 진펄길을 헤치고 불타는 강을 건느던 그 기세로 달려야 한다. ...

어느날 김성진은 도당회의에 갔다가 돌아와서 군당위원회앞에 새로 제기된 문제들을 포치해놓고 그길로 발전소건설장으로 갔다.

처녀소대장 최금옥은 그를 보자 달려오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김성진은 가슴이 섬적하여 그에게로 다가갔다.

《아니, 어찌된 일이요? 무슨 사고라도 생겼소?》

《책임비서동지, 전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책임비서동지가 안계시니까...》

요즘 책임비서가 눈에 띄지 않으니깐 어떤 처녀는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집으로 가버리고 또 일부 처녀들은 합숙방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성진은 그 말에 기맥이 탁 풀렸다. 책임일군이 조금만 자리를 떠도 아래사람들이 인차 제멋대로 행동하게끔밖에 그들과의 사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사업방법에 한말이 느껴졌다...

그는 차를 보내여 집에 간 처녀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처녀들앞에서 래일은 일요일이여서 산정으로 야유회를 가자고 하였다.

호된 비판과 망신만 차례질줄 알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차에 앉아온 일부 처녀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다가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어 맛있는 음식준비를 서두르고 노래를 비롯한 갖가지 유희종목이 마련되었다. 발파공들과 착암수 남자들에게는 두만강의 특산, 산천어로 음식맛을 돋굴 임무가 맡겨졌다...

풍치 좋은 산정 야유회터에서는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였다.

처녀들은 분대별로 솜씨를 내여 지은 음식들을 맛스레 나눠먹고 춤추고 노래부르며 하루의 유희를 맘껏 즐기었다.

동서남북이 끝간데없이 트인 산정에 올라 그런지 그들은 기분이 여간 상쾌하지 않았다. 김성진 이도 그들과 함께 시도 읊고 노래도 불렀다. 그러다가 그는 한켠 나무그늘에 앉아서 어딘가에 이윽히 눈길을 던지었다. 이윽고 그는 처녀들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여계 와서 좀 보라구. 여계선 백두산이 아주 가깝게 보이는구만!》

처녀들은 유희에 들떴던 기분들을 가라앉히며 그의 옆에 와 앉아서 근엄한 표정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항일혁명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이 력력히 찍혀진 백두산록, 망망한 천리나무바다우에 우렁이 솟은 백두산은 곧 처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들이 일시 망각했거나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뜻을 가슴에다 심어

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가 되려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처녀들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받아안은 감상을 스스로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저기 어느 나무밑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쓰러져 묻히었을 투사동지의 념원이 무엇이였겠는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있는 이 행복이 바로 그 념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귀에는 저 청봉밀영에서 울리던 재봉기 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줄칼과 돛바늘로 재봉침바늘을 만들어서 군복을 짓던 녀성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비추어볼때...》

《부끄럽습니다. ... 저 역시 일이 힘들고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집으로 도망갔으니...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비겁했던 자신들을 가차없이 타매하며 한결같이 새 출발을 결심했다.

그때 어느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어려울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자!》라는 말에 각별히 각광이 집중되어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입과 입으로 번지여갔다. 그리하여 그 말은 공사의 진전에서 큰힘으로 되었고 그후 원봉호의 물속에 널려진 자재들을 가져올 때에도 청년들을 무한히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원봉호의 한 기슭 취수골에는 왜놈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가져다놓았던 중철레무장들과 변압기, 쇠바줄통구리, 단로기, 각종 배관 등 자재들이 오래동안 버림받은대로 있었다. 그전날에는 신작로와 멀리 떨어진 외딴 골짜기에 있기에 누구도 가져다 쓸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서두수언제가 일어선 뒤에는 물속에 잠겨있었기에 더구나 영원의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자재였다. 그 자재들을 삭도와 철길, 잉쿨라인 및 발전소 건설에 리용할것을 결심한 김성진이 수십여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취수골에 이른것은 아직 음달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고 날씨가 몹시 찬 고산지대의 3월 중순경이었다. 그날따라 진눈까비까지 희뜩희뜩 흘날리었다.

자재들은 거지반 물속에 잠겨있고 물우에 끄트머리를 드러낸것은 별반 없었다. 그것들을 건져내어 자동차가 서있는 신작로까지 가파로운 산을 넘긴다는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성진은 호수가에다 큼직한 우등불을 지펴올리고 일을 착수했다. 몇사람씩 얼음같이 찬물에

들어서서 쇠붙이들에 바줄을 비끄러매고 나오면 기슭에서 여럿이 그 한끝을 잡아당겨올린다.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발을 덜덜 맞조으며 물앞에 다가선다. 미구에 그들의 옷에서는 삼단같은 김이 문문 피어오른다.

김성진이도 몇번인지를 모르게 물에 들어갔다. 박두한 봄씨붙임전투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식상학준비로 밤을 지새우고도 그는 피곤한줄 모르고 청년들과 함께 일했다. 그런데 그는 공교롭게도 사흘째 되는날 물속의 변압기를 어루다듬어 쇠바줄을 걸다가 손바닥을 깊숙이 찔었다. 그러나 그는 기슭에 나오자 주먹을 부르친채 숨장갑속에 손을 찔러넣고 그걸 내색하지 않았다. 주먹을 으스스리게 틀어쥐어서 피는 흐르지 않았으나 물이 들어간 상처는 시간이 감에 따라 아픔에 심해졌다. 어깨죽지까지 팔이 울리 저려서 건디기 몹시 어려웠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다. 청년들이 알면 병원에 가라고 등을 떠밀가봐서였다.

인제는 깊은 물속의 자재만 남았다. 그렇게 되자 우등불옆에 섰음에도 종시 오한을 풀지 못하던 제일 나 어린 청년이 옆에 와 선 김성진을 돌아보며 여름에 와서 마저 건져가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찬물속에 들어서기가 여간 지긋지긋하지 않았으나 군당책임비서가 앞장서는 바람에 여려까지는 차마 그만두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것이다. 김성진이도 그 심중을 모르고있는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이 힘들어지면 주저않게 될가봐 일을 중단할수가 없었다.

김성진은 땀으로 애송이청년의 앞애다 잉겔볼을 끄당겨주었다.

《몹시 춥지? 몸을 꼭 녹이라구. 그리구 이제부터 물속에 들어가자 말구 기슭에서 일하라구... 손을 불인바엔 아예 골장을 내고봐야지!》

애송이청년은 일단 시작한 일은 골장을 보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집에 가고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 머리를 수그렸다.

김성진은 무안을 타는 그에게 힘을 주고싶어서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처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며 일하고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은 곧 청년들의 심장을 자극했다. 그들은 흐려진 량심을 가지고선 누구도 감히 쳐다볼수 없는 백두산을 눈앞에 그려들보며 자신의 량심들에 호소했다.

《어려울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자!》

수백마디의 말을 대신한 그 한마디 말에 호수가 들끓고 산이 진동했다...

김성진은 그날저녁 일을 다 끝낸뒤에야 주먹에서 간신히 장갑을 벗겨냈다. 통통 부어오른 주먹은 험사리 퍼지지 않았다. 한동안 주물러서야 그 손을 편 의사는 《으흐후!》호느끼었다. 필요하면 사람의 몸에 수술칼도 서슴없이 대는 외과의사

가 결코 상처의 위증함에 우는것이 아니었다. 팔까지 통통 부어오르도록 아픔을 깨물어삼키며 일을 기어이 끝낸 책임비서의 그 불같은 마음에 감동을 금할수 없어 우는것이였다...

호수처럼 고이어서 빙그르 원을 그리며 굴길로 흘러드는 물결은 석양에 붉게 물들었다.

라봉만로인은 김성진책임비서에 대해서는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은 이야기며 할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면서 나를 함숙으로 끌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밤이 지새도록 이야기해주겠다는것이였다.

그를 뒤따르는 나의 눈앞에는 삭도건설장에서 본 김성진동무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크지 않은 체격에다 누구한테 큰소리 한번 쳐볼것 같지 않게 지순하고 온후한 인상만이 느껴지는 그의 어디에서 그처럼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강의한 힘이 샘처럼 솟아오르는것일가.

×

그와 마주앉아가지고선 그가 한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얻어듣지 못하리라고 단정했던 나는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김성진동무를 다시 만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격동적인 사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그자신만큼 상세히 알 사람이 없을것이기때문이었다.

나는 김성진동무를 다시 만나자 그간 군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특히 책임일군들이 아주 일을 많이 했더라고 인사삼아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이제 무슨 말씀을... 과찬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작가동무도 아다싶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느 군들이 하나를 해놓으면 우리 군은 열, 스물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불찰로 아직...》

나는 그가 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군의 책임일군으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너무도 진심으로 뉘우치기에 인차 말머리를 돌려 그를 다시 찾아오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였다.

그제야 그는 리지적인 두눈에 회억의 감정을 자오록이 교여올리며 《그 이야기말이지요? 진작 그렇게 말씀했어야 할걸 그랬습니다.》하고 홍암분장쪽에 갈 일이 있는데 나더러 함께 가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그 길옆에 바로 최근 몇해사이에 위대한 수령님을 두번이나 모시였던 영광스러운 자리, 홍암분장의 밀포전이 있다는것이였다. 나는 패히 동의했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규모있게 잘 정리된 키높은 방풍림에 에워싸인 밀밭머리에 이르렀다.

김성진동무는 무겁게 고개를 수그린 밀이삭바다를 흐뭇한 눈길로 안아보며 말을 꺼냈다.

《바로 여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해전의 어느날 또다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노상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백두삼천리별을 돌아보시다가 농장별의 주인들을 대견히 바라보시며 동무들이 일을 잘했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여기에 오니 만사름이 다 놓인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김성진동무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앞에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풍작이룬 별을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금시 보이는듯싶었고 그 다정스러운 웃음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들리는것만 같았다.

김성진동무는 사뭇 감회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그때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글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저를 한품에 껴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저 신사동귀틀집을 배경으로말입니다!...》

신사동귀틀집을 배경으로!... 아, 세상에 믿음이

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데 있고 영광이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데 있으랴!

기실, 이 별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분은 누구이신가?

간악한 일제의 학정에 신음하던 이고장 화전민들에게 걸밀 두되박박에 주실수 없는 사실이 가슴아프시여 차마 귀틀집마다를 쓰시지 못하시던 1939 년도의 그날로부터 이 농장을 오늘의 높이로 키워주신분이 아니시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예는 오히려 농장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시었으니!...

순간 나는 이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뿌리를 내리고 싹터서 무성한 화원을 이루고있는 이 땅, 백두삼천리별을 떠메고 남먼저 공산주의사회에 들어서라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이 바로 김성진동무로 하여금 그처럼 굴할줄 모르는 의지와 강毅한 힘을 발휘하게 한것이였다.

나는 풍표한 대지를 트랙처럼 끼고앉은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을 새삼스런 마음의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독자편지

#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다운 얼굴과 모습이 보입니다

최운일

현시기 우리 당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당사업을 벌어나갈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자나깨나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신뢰하고 받들고 그 두리에 묶어세우겠는가 하는 이 생각뿐입니다.

지난 2월 사업소 도서보급원이 금년도 《조선문학》1호에 당일군을 형상한 시가 나왔는데 인상깊게 보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잡지를 펼쳐보였습다.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라기보다 당일군을 형상한 시가 되어서 호기심이 바짝 당기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근 20분동안에 4번이나 읽으면서 아무 말 한마디 없게 되자 옆에 있던 도서보급원이 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야 마음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꼭 들어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내 임무에 대하여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라고 하였더니 그는 《바로 그런것이 시가 아닙니까》고 하면서 즐겁게 웃었습니다.

별과 나비가 날아드는 꽃밭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향기가 되겠는가. 출근길에서 가지마다 휘여지게 달린 배를 보기전에 무겁게 열매를 맺도록 한 보이지 않은 뿌리와 밑거름에 대하여며 추운 겨울날 강변에 홀로 앉은 낚시군을 두고 당일군의 의무를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인상깊은 겨울날,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생기는 썰물과 밀물의 흐름을 단순한 자연의 법칙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 못건디게 그리워 온 나라가 찾아오고 온 세계가 달려온다고 하는 비유들은 얼마나 매혹적인 느낌들입니까.

참으로 시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는 주체시대 당일군의 참다운 얼굴과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필자가 어떻게 당일군들의 심리를 파고든 이런 시를 썼는지 경험을 소개해줄수 없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평양시 동구공공건물사업소당위원회)

## 좋다, 첫걸음 외 1 편

강현세

시절이 좋다  
꽃나이 열여덟  
청춘의 첫 걸음  
시작도 좋다

팔을 펼치면 손끝에 달을듯  
저 흰구름을 한쪽 찢어내어  
산정에서 흘린 땀 흠치고싶다  
또 한바탕 조겨대기전에...

높이 올려라  
첫 발과소리  
대자연 정복의 힘찬 메아리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진군나팔이여!

지심을 흔드는 건설의 음향에  
노루 사슴때 산을 넘고  
기계군단 행진곡에  
억년 잠을 깬 산천이 기지개를 켜다

좋구나  
돌격의 합성  
혁신의 파도에 차굴이 뚫리고  
계곡엔 아아한 교각이 솟아난다

협산준령을 가로질러  
새로 건설하는 북부철길이여!  
너는 해주-하성간  
지하리-평산간의 위훈우에  
80 년대의 청춘, 우리가 세우는 기념비  
당에 드리는 충성의 마음

해와 별 빛나는 이 땅에 태어나  
당의 부름 받들어 달려온 동갑들아  
보람찬 청춘의 걸음 가슴에 새겨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나가자!

혁명전사의 참된 삶의 꽃은  
조국을 젊어지게 한 순간,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그날에 꽃피어나거니

시절이 좋아 꽃나이 열여덟  
힘찬 첫걸음 시작도 좋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영예  
청춘의 활무대  
여기 북부철길에서 빛나리라

## 청춘들이 길을 떠난다

또하나의 자욱이 남는다  
정든곳이여!  
가슴엔 보람이 남는다  
청년돌격대-우리가 걸어온 자욱들이...

벼랑을 까고 로반을 놓은 난공사여!  
우리는 다시 새지역으로 옮겨간다  
회심의 미소속에 돌이켜보는 나날이여  
난관이 험할수록  
심장에 불을 지펴주던 골짜기와 산발들  
우리는 여기에 철길만 끌어온것 아니여라  
생활의 새노래 펼치고 떠나간다

잘 있거라  
청춘들의 첫 보금자리여  
너는 후대들의 굴소리높은곳으로 되리  
밤교대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웃어반기던 외등이여!  
너는 새 정거장의 투광등이 되리  
산기슭에 팔팔 솟구치던 박우물이여

물맛 좋은너는 마을수도의 수원이 되리

잘 있거라  
변혁의 노래를 안은 강산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속에 남아  
삶의 걸음걸음  
자욱마다 받들어주고장이여!

아, 바위같은 가슴가슴  
보란듯 펼치고 걸음을 다우치자  
북방의 저 아아한 령마루들을  
징검돌처럼 밟으며 우리는 가리  
젊어지는 강토에 청춘을 안겨주며...

조국의 외진 북방  
여기 막바지에서 새 생활, 새 철길 이끌고  
다시 개발지로 떠나는 궁지여!  
조국과 하나로 결합된 청춘  
80 년대의 청춘들이 새 일터로 떠난다

# 첫 자욱 찍은곳

서동린

꽃바람 부는 들길을 걸어왔다면  
우리의 추억 이다지도 뜨겁지 않으리  
로반의 첫자욱을 떼던 낮과 밤들이  
봄날의 노을 비낀 저녁과도 같았다면  
우리의 추억 아무것도 남는것 없으리  
북방의 모진 겨울과 겨루어나섰던  
잊지 못할 그 첫 기슭이어

갈기치는 협곡의 눈보라  
숨결조차 얼어드는 흑한속에서  
험한 산발과 얼음 깔린 날벼랑을 뚫아오를 때  
아직 못박히지 않은 손 말없이 틀어쥐며  
우리는 부르짖었다  
- 이기리라

구름밖에 나선 달빛 그리도 고마웁던  
한밤중 차디찬 로반우에서  
정대를 거머쥔 손 쇠붙이에 얼어붙고  
서툰 함마질에 빛나가는 때 많아도  
손에 선 일 의지로 익히며  
우리는 부르짖었다  
- 이기리라

일욕심처럼 식성도 좋았거니  
꿈도 없이 단잠 들고 깨며  
청춘의 담력을 날과 함께 버려갈 때  
고백하노라  
먼곳의 다심한 어머니 손길과  
따뜻한 고향집이 유혹했어도

청년건설자-  
당이 불러준 그 이름 소중히 새기며  
우리는 부르짖었다  
- 이기리라

우리는 결코 비겁하지 않았노라  
생나무 찍어 집을 일떠세우면서도  
봄날에 찾아올 제비들의 집을  
낮은 처마밑에 고이 지어주었고  
깎아지른 절벽을 타오올라  
육중한 함마로 벼랑을 두드리다가도  
무도곡을 울리며 어깨에 흥을 실었나니  
우리는 랑만에 넘쳐 부르짖었다  
- 이기리라

아, 검실한 팔뚝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다져놓은 첫 로반을 굽어보던 기쁨이여  
더운 땀 식히기에는 오히려 제격이던  
북방의 겨울이어  
이날에 우리는 착암기 세워짚고  
눈녹는 칼벼랑을 타고 서서 웨쳤다  
- 청춘들은 이겼다!

정녕 그리도 모질던 첫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을 빛내인 로반을 다진곳이어서  
위훈에 찬 발자국 뚜렷이 찍으며  
굳센 의지로 당의 뜻 받드는곳이어서  
오늘도 먼 후일에도 못잊을  
고난속에 정들어진 그 고장이여

##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김종정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활력이 강해지듯이 나라도 철도가 제구실을 잘해야 인민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하기에 철도를 나라의 동맥이라고 하고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바로 오늘 우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바야흐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는것도 철도가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있는것과 크게 관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로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주요간선철도인 만포선의 한 집중화물역을 찾은적이 있었다. 짐을 산더미처럼 듬뿍듬뿍 실은 꼬리긴 열차들이 연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역구내는 들끓고있었다. 저 화차들에 가득가득 실려가는 기계들과 강재, 석탄, 목재, 세멘트... 저 차관마다에 듬뿍이 실려가는 옷감과 비료, 물고기...

이 모든것은 사람의 몸에서 높이 떠는 동맥을 타고 더운 피가 흐르듯이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과 약동하는 농장벌, 새살림 꽃피어나는 주택지구들에 끊임없이 흘러들어 생기와 원기를 더욱 북돋아주는것이다.

깊어지는 생각과 함께 가슴은 한층 부풀어올랐다.

차갈이와 차무이 작업이 쉬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역구내를 걸어 사령실로 가던 나는 어느 한 기관차에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이미 낮익은 역장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흰칠한 키에 철도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고 어글어글한 두눈에는 불같은 정열이 넘쳐나고있었다.

**《김병주승무조가 출발하게 됩니다.》**

꽃목걸이를 메고 꽃뭉음을 안은 승무조원들을 가리키며 그는 흥분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들은 내가 몇번 취재나와 낮익힌 동무들이였다. 알고보니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앞장에 선 그들은 얼마전에 자기들이 세운 최고견인량기록을 또다시 뛰어넘어 더 많은 짐을 끌것을 결의하고 오늘 대담하게 첫 운전을 하게 된것이

다. 만포선수송에서 아직 한번도 있어보지 못한 대담한 발기, 대담한 실천이였다.

전투준비를 끝낸 기관차승무원들은 돌격진지에 나선 병사들처럼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오늘의 전투승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꽃뭉음을 흔드는 사람들, 쿵창쿵창 나팔소리, 북소리 울리는 역구내... 모자끈을 턱에 바짝 조여맨 기관사가 굳센 의지로 번뜩이는 얼굴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담고 손을, 힘있게 들어보였다.

이윽고 운전지휘원이 출발신호를 내리자 기관차는 우렁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두줄기 철길을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뽕-》**

긴 여운을 남기며 산골이로 사라져가는 긴 열차를 바래주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달림구간을 무사히 돌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나도 그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덧 긴장감을 금치 못하고 불안한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똑같은 공칭능력을 가진 바로 그 기관차로 단꺼번에 종전의 최고견인량보다 훨씬 많은 짐을 끌고간다니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기때문이다.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대담한 발기를 실천에 옮기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만일 남들은 엄두도 못내는 그 많은 짐을 더 끌고 험한 구배길을 달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를 일으킨다면 당앞에 맹세한 무사고주행목표를 돌파하지 못하고마는것이다. 하기에 일부 운전지휘성원들이 《우려》하고있는 것도 우연하지 않은것이다.

**《그들을 믿읍시다!》**

나의 심정을 꿰뚫어보고있는듯 역장이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쳐나고있었다.

그렇다, 역장의 그말은 헛된것이 아니다. 찬비 뿌리는 음산한 날 승무조원들은 달림구간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날씨조건과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법을 탐구하였으며 견인초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확신과 신심을 가지였던것이다.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왔다. 수송혁명의 불길을 힘있게 지펴올리는 우리의 미더운 수송전사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믿음,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안고 하자고 결심한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굳은 각오, 그 신념, 그 믿음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



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타번저 역척같은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확신에 넘쳐 철의 궤도를 질풍같이 달려가는것이 아닌가.

그 충성심이 있기에 승무조원들은 이렇듯 대담한 발기, 대담한 실천을 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역장을 따라 운전사령실에 들어섰다.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도 사령실로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역에 머무는 시간에도 차같이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기관사며 판평언제 건설장으로 가는 세멘트를 실은 화차들을 자기 기관차에 덧달아달라고 졸라대는 기관차승무원들...

참으로 나라의 동맥이 더 높이 뛰게 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마음들을 화면처럼 볼수 있었다.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힘이 나고 자신심이 생기는 현실인가!

얼마후 국 종합사령전화는 김병주승무조원들이 자랑찬 성과를 알려왔다. 승무조원들은 자기들의 달림구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명문고개구배길을 아무 사고없이 단숨에 극복했다는것이다.

역장은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성공이요, 성공!》

감격적인 소식은 역과 역, 기관차대와 운전사령실들에 파다하게 퍼져갔다. 역일군들은 한사람같이 기뻐하였다. 이제 만포선의 견인초과운행돌파구가 열렸다고.

나도 역일군들과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역장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는 뜨겁게 손을 맞잡고 흔들었다.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을 헤쳐나아가는 심정으로, 싸우는 전선에 탄약과 포탄을 실어나르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험한 고개길을 단숨에 넘어선 김병주승무조원들의 슬기로운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아, 얼마나 미더운 우리의 수송전사들인가! 이런 수송전사들이 나라의 동맥을 굳게 지켜냈기에 두줄기 철길우에는 언제나 무사고정시운행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으며 수송량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정녕 이런 수송전사들이 있기에 우리의 철도는 나라의 동맥으로 세차게 맥박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 나를 부르는 기적소리

안순희

나밖에 몰라  
우리 건설장 지날 때면  
기관사 그 총각  
왜 그리 기적소리 높이는지

나만이 알아  
바람처럼 지나면서도  
기증기우의 나를 향해  
왜 그리 정답게 손짓는것인지

날마다 이맘 때면  
순간도 어김없이 만나는 우리  
기차를 물며 기증기를 물며  
얼굴도 익히고 마음도 알았지

조국의 재부를 나르는 기쁨에  
그리도 크게 웃는 그 마음도  
이 땅에 솟아나는 재부의 높이를  
기증기 큰 팔에서 가늠하는 그 심정도

함께 만나 약속은 없어도 나는 알아

지구를 세바퀴나 돌았다고  
언젠가 신문에도 났던 그 총각  
이제 또 그만큼 돌기전에는  
아마도 나를 찾지 않으리란걸

조국이 그토록 바라기에  
철길우에 청춘을 바치는 그  
조국이 그토록 사랑하기에  
나도 정이 가는 그

기적소리 울리며 그가 갈 때면  
함께 가는 내 마음 소중히 담아  
꽃다발 조용히 흔들어주지  
물론 아무도 모르게

나밖에 몰라  
멀리서 들려오는 저 기적소리가  
그 총각이 나를 부르는 소리인줄은...  
나만이 알아  
내 가슴에 간직된  
그 총각의 목소린줄은...

## 로반우에 흘러가는 시간

김창무

긴 시간도 짧게 생각되고 짧은 시간도 길게 생각되는 얼핏 보면 모순과 같은 현상이 생활에는 있는것이다.

나는 며칠전 북부철길 건설장에 취재나갔다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내가 나갔던 차굴뚝기 건설장은 마감 관통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철은 봄이라 하지만 산과 산이 이마를 맞댄 산골엔 아직 눈이 있어 숨웃이 제격이다.

하나 건설자들은 내의바람에 구슬땀을 흘리며 로반을 다지고 메질을 기운차게 하고있었다.

여기저기에 나붙은 대문짝같은 속보들은 전설같은 기적들을 알리고있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듯한 어린포레들, 그속에는 해주-하성간 철길공사의 첫 영웅의 막내아들도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그는 벌써 새로운 정머리를 연구하여 발파구멍뚫는 시간을 배나 단축했다는것이다.

대학입학시험을 뒤로 미루고 탄원해나섰다는 평양처녀, 수십마리의 패지를 싣고와 건설자들의 식탁을 꾸밈히 해주고도 성차지 않아 일손을 도와나섰다는 김영식할아버지내외, 그 누구의 얼굴을 보나 당의 부름 높이 받들고 탄원해나선 철길 건설자들의 긍지와 보람이 한껏 차넘치고있었다.

광차가득 버럭을 싣고 경기를 하듯 뛰어오가고 있는 그들의 작업모습에 반하여 시간가는줄도 모르고있는데 어느사이 어스름이 깃들었다.

그들은 하루과제를 훨씬 넘쳐수행했건만 성차지 않아 더 쫓싸게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뛰고달리는 그들의 시간을 잠시라도 빼앗는것이 죄스러워 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사이다도 날라주고 속보도 써주면서.

잠시후였다.

《정말 매일 이러기요. 제시간에 작업을 떼라고 그만쯤 이야기하는데...》

두툼한 입술에 다부지게 생긴 30전후의 작업장 책임자가 언성을 높였다.

《어마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왜 시간이 이렇게 빨라졌어!》

운반공 영숙이와 착암공 광철이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시간이 빨라졌다!)

나는 순간 그 무엇인가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가슴을 치고 불덩어리같은 격정이 솟아오름

을 느끼였다.

하루는 24시간, 예나 오늘이나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그런데 어쩌서 시간이 자꾸만 빨라진다고 하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의 신념에 의해 하는 일은 힘든줄도 시간 가는줄도 모른다. 하물며 조국의 드물지 않는 철길을 건설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자진하여 달려온 이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일하고 또 해도 성차지 않아 잠자는 시간도 아까와 분초를 아껴가며 일한다는 선동원 김옥별동무는 늘쌍 이런 시를 읊는다고 한다.

시간이여  
아끼면 빛나고  
놓치면 못 찾는  
너는야 그런 《보물》

오늘에 못다한 일  
래일 가서 후회가 없도록  
앞당기자 시간이여 모든것을  
100년 또 200년

이것은 일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지어 귀염둥이로 사랑받는다는 선동원처녀의 심정이자 로반을 닦아가는 건설자들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기도 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체나름의 부탁과 소원을 안고 달려온 이들, 나이도 성격도 리상과 희망도 모두 다르지만 오직 한마음 로반을 다지며 정이 들고 두줄기 철길우에 모든것을 바쳐가며 한집안식구가 된 이들, 태고연한 밀림의 정적을 깨치며 조국의 혈맥이 더 활기차게 뿜어라고 두줄기 은빛철길을 깊고깊은 산중에도 잇대이는 이들의 시간, 그것은 정녕 어디서나 맞고 보내는 그런 평범한 시간이 아니다. 하는 일이 흥겨워 시간 가는줄 모르고 보내는 그런 시간도 아닌것이다.

남이 수년에 걸쳐 할 일을 단 몇달동안에 해제끼면서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나아가며 순간을 년

과 나란히 세워놓는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용맹과 위훈을 떨치며 줄기차게 앞으로만 내달리고있는 우리의 북부철길건설자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어 험한 진펄길 가시밭도 두렵없이 헤쳐나가는 이들의 시간은 빛나는 시대를 더욱 앞당겨 창조하려고 분과 초를 쫓아가며 세월을 앞당기는 그런 류다른것이다.

드림없는 시계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는

시간은 쥘수 있지만 충성의 보고를 마련해가는 북부철길건설자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시간이야 어찌할수 있겠는가.

나는 생각한다. 당을 받드는 마음, 로반과 함께 반석같이 다져가는 청춘의 활무대, 북부철길건설장에 아득히 뻗어가는 두줄기 철길우에 흐르는 시간은 하루도 순간처럼 짧고 순간도 10년, 20년을 불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것이라고.

## 독자편지

# 살아온 반생을 더듬어보며

### 정률택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인 책들과 예술작품들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을 자기의것으로 만들며 그것을 실천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나이 올해 서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첫 고고성을 터뜨린 때부터 자기의 정신력과 로동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나이가 60대까지라고 보면 인생이라는 길면서도 짧은 길을 벌써 근 절반 걸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저의 생이 절반이나 흘러간 오늘 나의 이 반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몽청 꺾이어나가는 감으로 하여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려세울수 없는 나이를 한탄하는것이겠는가. 이제 살아야 할 날이 살아온 날만큼밖에 없다는 아쉬운감에서인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그것은 짧지 않은 반생에 더할수 있는 일을 다하지 못한 후회와 자책때문일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박호범의 시 《추억》은 신통히도 나의 마음을 대변한 시로서 생활의 길동무로 수첩에 적어 안주머니에 넣고다니며 조용히 읊어보곤합니다.

추억은 가버린 시절의 고향집  
어머님 여닫던 키낮은 쪽문이나  
만나고 헤어지며 나는 우정  
사진첩에 남겨둔 그리움이나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  
조국에 기쁨될 아들의 권리이나  
몸과 마음 못다바친 안타까움이 있어  
한생을 다시 살고싶은 아픔이나

...

사람들마다 추억이 있듯 나에게는 내 나름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따라 걸음마때던 시절, 물장구치며 강가에서 뛰놀던 유년기를 거쳐 고등중학교대문을 나와 벽찬 사회에로의 진출...

그렇다면 이것이 추억이겠는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누릴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받아만오고 그저 미미하게 살아온 그 생활이...?

저는 확실히 누구도 알아줄수 없는 자기생활풍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맹물에 손을 깊숙이 넣어 무엇을 건지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짓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추억으로 남을만한것이 이제 와서 돌이켜놓고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온 반생이 짧아 더듬어볼만한것이 없는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땀땀이 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무로히 살아왔기때문입니다. 추억이란 먼 후날에도 어머니조국과 우리당이 잊지 못하는것,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미해지고 삭막해지는 망각이 아니라 더 력력히 자취를 드러내놓는 그것입니다.

얼마 큰일도 아닌 《일》을 해놓고 큰일이나 친듯이 누가 칭찬해줬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고 그것마저 없으면 그저 저혼자 기뻐하고 저혼자 추억하고 또 인차 잊어버리고...

저의 두뇌에서도 곧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조국과 만사람의 추억속에 살아있을 일을 하여 한페지, 아니 다만 한줄이나마 차지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대임에야...

때늦은 후회는 필요없기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반생을 늘늘히 걸었다면 이제라도 인생의 발걸음을 더 크게, 더 재우 밟겠습니다.

(량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 로동자)

# 금별

정영호

압연기의 세찬 동음속에  
강피의 붉은 화광 언듯 비칠 때면  
확 한눈에 안겨드는  
영웅의 금별메달이여

수수한 벽체우에 새겨졌건만  
조종대를 힘있게 틀어친  
압연공 소박한 그들의 모습처럼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와라

전후의 어려웠던 그 나날에  
나라가 허리를 펴게 해주었다고  
우리 수령님  
두고두고 외우시는  
잊지 못할 그 모습이 아닌가

설명절의 그 아침엔  
온 나라 인민이 울리는  
만수축원의 축배잔도  
우리 수령님  
강선의 압연공들을 위해 들자고

넘치는 사랑속에 세워주신 모습들  
  
금나락 설레는 들길을 걸으시면서도  
뻗어가는 간석지벌을 찾으시어서도  
강선의 압연공들처럼  
자신의 힘을 믿을줄 알아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속에 빛내주신 모습들  
  
땀배인 작업복에 참으로 평범하고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건만  
그 누구나 쉬이 받아안을수 없는  
위대한 사랑속에  
위대한 믿음속에  
한생을 묵묵히 당을 받들어온 사람들이여!

아! 우리 수령님  
잊을수 없는 추억속에 살아있는  
그 모습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세월앞에 력사앞에  
저렇듯 눈부신 금별로 빛나라

## 향토

리룡우

철길연선이며 북쪽강변을 따라 물황철나무, 아카시아나무, 소나무들이 끝간데없이 무연하게 펼쳐져있었다. 박태호는 사방림을 이루고 설레이는 이 숲속의 오솔길을 거니는것이 사뭇 즐거웠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아침부터 낚시대를 들고 집을 나서자 이 길로 들어섰다.

키돋음하며 흰칠하게 자라난 갖가지 나무들의 우듬지사이로는 아침해빛이 부채살같이 그늘비낀 숲속으로 스며들어 이슬맺힌 《마누새》풀우에 소리없이 내려앉아 신비경을 이루고 어디에선가 술술 불어오는 생량한 바람은 들꽃들의 향기를 모아안고 불을 스친다.

몇걸음을 옮기노라니 어느새 작업차비를 하고 나선 여기 사방림의 관리공들이 싱그러운 공기속을 헤론 웃음으로 메우며 나무들사이를 누벼나가고 그들의 뒤로는 이곳 작업소를 책임진 그의 며느리 순녀가 감장치마우에 작업복적삼차림으로 따라간다.

박태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며느리를 불러세웠다.

《옛저녁에 말하던대로 사돈님의 70돐 생일상에 놓았던 삼향술은 고혈압병에 좋다는데 매일 잊지 말고 대접하게 해라!》

《예, 아침출근길에 들려서 부탁해놓았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는 제 앞치리를 착실하게 할줄 아는 며느리가 언제봐야 사랑스러웠다.

박태호는 아카시아의 짙은 꽃향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느린 걸음을 옮겨가는데 이번엔 철길쪽에서 열차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리었다.

《붕-》

한뼘 철도일군으로 늙어온 그는 무심결에 팔목을 걷어 시계를 봤다. 숲속에 여운을 남기며 지나가는 열차는 정시였다.

박태호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느닷없이 미소가 물결쳤다.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달리는 열차를 바라보며 서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석션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이른아침부터 자넨 낚시질하러 가는 길인가?》

박태호가 돌아다보니 바로 사돈지간이 되는 손경석이 삽을 들고 다가와있었다.

《이거 잘 만났수다. 오늘은 꼭 사돈님하고 같이 동행하고싶기에 찾아가던 길이지요.》

《그랬으면 좋겠네만 오늘은 틀렸네.》

《사돈님은 언제봐야 못가겠다는 소리뿐이지요. 그건 그렇고 참, 도에 가있는 아들이 사온 술은

사돈님병에 딱 맞는 진짜배기 삼향인삼술이라면 서요?》

그는 손령감이 사돈이어서만이 아니라 지긋한 년장자이기도 하여 언제나 말공대를 하였다. 그러나 손령감은 박태호와 사돈지간이 된 뒤에도 형제간처럼 친숙하게 지내던 때와 다름없이 대하였다.

《원, 걱정들도... 난 다 나왔다는데두 옆에서는 자꾸 떠드니 야단이 아니요.》

《사돈님이 해놓은 일을 생각하면야 온 집안이 떠들만도 하지요. 그러니 령감님은 가만히 있다고 척척 받아마시면 될게 아니겠소!》

《제발 그러지들 말게. 난 그리 바라질 않네!》

이 말에 박태호는 심짓 손세까지 써가며 능청을 부리었다.

《사돈님덕에 나도 한상 잘 받아보자 했더니 틀렸군요.》

《허허, 내 사돈이야 천대하겠소? 잘 대접할테니 아무때건 찾아오게!》

박태호는 손경석의 심중을 떠보듯이 흘끔 곁눈질을 하며 말했다.

《그건 싫수다. 사돈님이 흡족하게 받았던 70돐 생일술을 털어서 받아야 더 무집할게 아니겠소!》

두 령감은 혼연스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서로 달랐다. 손령감은 어이없어하는 기색이었고 박령감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사돈을 나무라는 빛이 어려있었다. 박태호는 한마디 덧붙이였다.

《그런데 사돈님은 도저히 삽 놓을 날이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지요?》

《거름을 좀 내야 하겠기에 그러는게지!》

박태호는 이 말을 들으니 며칠전부터 손령감이 이곳 관리공들을 쫓아다니며 거름생산을 안한다고 잔소리를 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순녀는 년로보장을 받은 친아버지인 손령감이 공연히 사람들의 눈에 나는것 같아서 《이젠 제발 가만히 앉아계서요. 공원관리원하듯 나무관리나 하면 될 일인데 아버지가 옛날 소장사업을 말아보시던 때처럼 자꾸 비치면 사람들이 좋아할게 뭐예요!》라고 신신당부했다.

하긴 사방림을 조성하던 시기는 큰 사업소가 있었고 손령감이 소장으로 사업하였다. 세월이 흘러간 뒤 나무가 끝간데없이 무성해지자 사업소는 새로운 개간지로 이동하게 되고 손령감은 자기의 정력과 땀이 습배인 이곳이 고향과 같이 여겨져서 년로보장을 받고 남게 되었다. 대신 이곳

사방림은 그의 딸 순녀를 비롯한 열명도 안되는 관리공들이 말아보고있었다.

손령감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사방림을 가꾸며 한평생을 보내어서인지 날마다 아침이면 출근하듯이 찾아나와서 나무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직접 삽을 들어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바로 심으며 모래바람을 막는데는 소나무이상 없다는것을 관리공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처음에 관리공들은 경험많은 손령감의 말을 귀담아들었고 또 그를 따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거둬되는 손령감의 권유와 편잔을 잔소리와 《간섭》으로 여기는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박태호는 손령감의 심정이야 같이 늙은 자기가 잘 안다는 생각에서 《좋은 일을 하시려는 아버지를 막아서면 안된다.》 이렇게 머리를 타일러왔다.

그런데 일흔이 지난 오늘까지도 손령감이 거름 때문에 열을 올리고다니는것을 보니 그는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런 일이야 젊은이들에게 맡겨두시고 늘그막에 락을 보셔야지요. 사둔님은 지난 5.1 절에 낚시질하시군 오늘까지 한번도 못하셨지요.》

《자네 또 그 소린가? 하긴 내가 그날 물고길더 많이 잡았지? 허허허.》

손령감이 잡아낸 잉어가 부럽던 일이 떠올랐지만 박태호는 낚시질습씨만은 양보할수 없었다.

《눈넌 잉어를 잡으시고도 자랑이시오? 그럼 오늘은 가서 어데 한번 솜씨 견주어봅시다.》

박태호는 손령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하지만 뻘디고선 손령감은 움직일줄 모르는 바위돌이었다.

《아니, 오늘은 안되네. 소나무밭에 거름을 낸 뒤에 꼭 함께 가세! 그럼 후에 또 만나세!》

어깨우에 삽을 둘러맨 손경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집스럽게 수림속으로 걸어가버렸다.

손경석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박태호는 그를 처음으로 만나던 때의 일이 불현듯 념념이 떠올랐다....

... 하루밤만 자고나면 모래산이 생긴다는 이 두만강변으로 손경석이가 찾아온것은 전후의 첫 겨울이었다.

방송이 며칠전부터 예보한대로 그날도 북동풍은 그칠줄 모르고 미친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휘몰아치었다. 박태호가 어둑새벽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래치우기에 대한 작업조직을 하는 사이에도 바람은 삼라만상의 모든것을 날리다 못해 뜰어내려는듯 뽁-뽁 양탈을 부리면서 유리창문에 모래를 휘뿌리는가 하면 잡아흔들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실내의 전등도 흔들리며 불이 꺾뺨거린다.

이고장에 태줄을 묻고 자라났으며 이 역의 역

장으로 사업하는 박태호도 이런 날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런데 난데없는 전화종소리가 때르릉거리며 다급하게 울렸다. 박태호가 송수화기를 들었다니 모래때문에 렬차들의 연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철도국 사령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웬일인지 짜증이 나서 알았다는 대답 한마디로 송수화기를 덜컥 내리떨구었다.

모래바람이 없는 고장에서 일해봤으면 하는것이 박태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휩싸여서 시간을 허비할 여가가 없었다. 아무렇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했기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은 사정없이 몰아치며 얼굴가죽을 한벌 베낄듯이 분사기처럼 모래를 내뿜었다. 모래바람을 맞은 얼굴은 단번에 얼얼해졌다. 바람으로 꺾꺾 막히는 숨을 몰아쉬려고 입만 벌리면 모래가 날아들어 자금자금 씹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없이 침을 계속 내뿜으며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걸음도 힘겨웠다. 발을 내디디었으나 바람에 몸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물러섰다가는 허리를 굽히고 그래도 안되면 모체비로 걸어나갔다.

모래를 나르는 전용화차까지 나갔으나 모래에 파묻힌 철길은 감감 보이지 않았다. 철길우로는 모래가 기복을 이루고 쌓여있었다.

화차를 움직이게 하려고 우선 그 주변의 모래부터 제거였다. 바람이 뜸해진 틈을 타서 사람들은 달라붙어 키넵게 쌓인 모래산앞으로 화차를 떠밀었다.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는데 사람들은 모진 추위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모래를 퍼실었다.

그런데 성난 야수의 울부짖음과도 같이 모래바람은 고막을 메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바람주머니를 터치더니 모래실은 화차까지 떠밀었다.

《화차가 밀린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철길에서 물러섰는데 화차는 모래가 뽁얇게 날리는 안개속으로 사라져갔다. 삽을 든 사람들은 바람을 등반이로 뒤따라 달렸다. 화차는 내리막길에서 바람타고 쾌속으로 달리더니 모래무지에 쿵 박히었다. 앞바퀴가 탈선이다.

자끼를 들고 황나무를 고이며 다시 화차를 철길우에 태우고 끌어다가 모래를 실었다.

모래를 싣고 화차를 떠밀기를 몇십번... 이제는 중낮이 가까운데 마을사람들의 지원도 있고 해서 두줄기 철길이 한끝까지 반들거리며 드러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침도 먹음겸 흠어져가고 박태호가 대신 당직을 맡았다.

그는 모래가 스며들세라 단단히 썩워두었던 방수포를 베끼고 전철기를 제겼다.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러객렬차가 씩씩거리며 이날의 첫 렬차로

천천히 역함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니 열차가 떠나려고 마지막 기적을 울릴 때가 되어서야 손님이 승강대를 내렸다. 안해며 어린것들을 데리고 큼직한 이불짐까지 어깨에 둘러멘 짙은 눈썹아래 코마루가 높은 장정이었다. 그가 바로 손경석이었다.

박태호는 그들을 찬찬히 눈여겨보게 되었다. 한것은 그들이 모래바람이 사나운곳으로 찾아온 손님이었어서만이 아니었다. 갓 조직된 사방림사업소를 찾았고 또 가족들이 무거운 보따리들을 걸머지고있는 모습으로 보아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이 지방에 살림을 차릴 잡도리임을 짐작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모래바람때문에 애래우는 박태호이고보면 사방림사업소로 찾아오는 이 한세대가 여간만 반갑지 않았다.

《어서 어린것들을 데리고 역사에 들어가 몸이나 녹이시오. 내 전화를 걸어 소달구지라도 끌고 나오도록 하겠으니.》

포대기에 질그릇을 싣은 큰 보따리를 든 동실하게 생긴 복상스러운 딸애는 여간만 고마와하는 기색이 아니었으나 손경석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소. 그럼 후에 또 만납시다.》

어린 딸애만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나서 어머니와 함께 보자기를 맞들고 아버지를 따랐다.

박태호는 처음만난 사람이라 덧정을 기울인것인데 저쪽은 뚝뚝뚝 가족들을 끌고 모래바람이 불어치는 길을 헤쳐갔다.

친절성을 베풀자면 박태호는 오히려 무안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에게는 처음에 우러나왔던 반가운 감정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흥, 그사람성미가 보통이 아니군. 녀편네가 고생을 하겠는걸!》

박태호는 사라져가는 그들의 등에 대고 통을 놓았지만 온종일 그에 대한 인상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그뒤 화물차로 도착한 가장짐물을 실으러 온 사방림사업소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손경석이가 사방림사업소의 소장으로 파견되어온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자기의 친절성을 물리친 손경석을 더는 나무랄수가 없었다.

하지만 태고적부터 불어치는 이곳 모래바람을 그가 도대체 막아낼수 있을가 하는 의문이 박태호의 가슴에 맴돌아쳤다...

어언간 세월은 흘러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오늘 숲속으로 사라져가는 손령감을 지켜보던 박태호는 그와 처음 만나던 때에 받은 인상과 똑같은 느낌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강가로 향했다. 냇수터에 이르러 푸른 물결이 출렁이며 곤곤히 흐르는 강

물에 낚시를 드리우고 앉았다.

그러나 그는 줄곧 거름생산과 소나무밭에만 골몰하고있었다.

《하긴 한번 한다면 그만인 성미지!》

박태호에게는 손경석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또하나 있었다. 그 추억이란 그가 소장으로 사업해서 3년이 지난 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손경석이가 모래바람을 막아내지 못한탓으로 책벌과 법적추궁까지 받게 된다는 소문은 박태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일부 사람들은 《안됐다》고 동정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싸다》고 나무라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박태호는 그가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있으랴싶었다.

그는 며칠전에 성에서 내려왔다는 밤색중절모에 가족외투차림새를 한 일군의 몸집좋은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그 일군인즉 사방림사업소가 생겨난 초기에 찾아와서 바람이 비교적 적게 부는 여름철이나 초가을에 이곳 모래판에 세멘트와 물을 뿌려서 《콩크리트화》하라고 내리먹인 그 사람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의견이 그럴듯하다면서 지지해나섰지만 손경석만은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한그람의 세멘트가 귀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나섰다. 그바람에 《콩크리트화》는 비현실적인것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일군은 동무가 방법을 찾아내어 모래바람을 막으라면 모든 책임을 손경석에게 떠밀어두고 올라가버렸다.

그때 박태호는 우에서 내려온 일군에게 반감을 사게 한 손경석의 후날이 우려했었다.

《후에 어떻게 할 잡도리로 그 사람과 맞섰소?》

손경석의 대답은 단마디였다.

《안될게야 안된다고 해야지 침바른 소릴 하겠는가?》

박태호는 더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뒤 손경석은 산과 모래속에서 살다싶이하면서 100 리구간에 말뚝을 박듯이 주추목을 세워 바자를 쳤다. 하지만 드센 바람에 바자가 넘어지는가 하면 주추목까지도 통채로 날아나버렸다. 설사 주추목이 서있는곳이라 하여도 한발이 넘는 그사이사이로 날아드는 모래를 막을길이 없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지만 손경석의 3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박태호가 가졌던 애초의 예감은 들어맞았다.

성에서 내려온 그 일군은 손경석에게 자재와 로력을 낭비한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사업소는 전망이 없는것으로 락착짓고 해산해버린다는것이 다.

그는 자연의 모래바람보다 고층의 모래바람을 마음속에 겪고있는 손경석의 심경이 불을 보듯이 안겨왔다.

(자연의 조화를 막는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

지. 이젠 그도 이곳을 뜨겠구나.)

손경석이 잘되기를 바라던 촉망이 허물어져 내릴수록 결국 그는 자기 혼자만이 앞으로도 여기 철길에 쌓이는 모래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찬바람과 같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사방림사업소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손경석의 딸인 순녀가 아버지의 점심밥곽을 싸든채로 찾아왔다. 처녀꼴이 잡히면서 더 예뻐지는 순녀는 큰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아침에 나간 아버지가 어데로 갔는지 점심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해 밥곽을 싸들고다니며 안타까와하는 어린 순녀의 마음에 글려 박태호는 손경석을 찾아나섰다. 사업소사람들도 나절가웃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은 그가 어데서 얼어죽지나 않았나 싶어 박태호와 함께 찾아헤매었다. 한시간나마 찾았으나 그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박태호는 교대시간이 다가오기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해 두고 역쪽을 향해 바람사나운 모래관을 횡단해갔다. 그런데 무드기 쌓인 모래무지앞에서 난데없는 개털모자가 눈에 비치었다.

웬 사람이 목석같이 앉아있었다. 다가가보니 손경석이었다.

모래바람이 뽁-뽁- 불어치는 한지에 얼마나 오래동안 앉아있었는지 그의 몸체뒤로는 등이 안보일 정도로 모래가 수북이 쌓이고 그 말기에서는 연기처럼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박태호는 그가 줄곧 앉아만 있는품이 얼어붙은것 같기도 해서 그의 눈부터 들여다보며 말을 건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손경석은 일어설념도 내지 않고 입을 벌리었다.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지!》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안타까이 모태기는 그를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박태호는 모자와 어깨위의 모래를 털어주며 그를 일으켜세웠다.

《어서 일어서우다. 순녀가 아버지의 점심밥을 싸들고다니며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아시오?》

그제야 그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을사람들까지 찾아다니는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는 이끌어서야 가까스로 걸음을 떼었다. 덩 덩히 걸어가던 손경석은 무심히 뒤를 돌아보더니 무슨 생각에 마음이 걸린듯 걸음을 멈추고 앉았던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아니 뭘 잃어버렸수?》

박태호가 물었으나 손경석은 말소리도 듣지 못한듯 모래가 독을 이룬 앉았던 자리만을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박태호는 그의 등을 재차 떠밀어 걸음을 떼게 하고서야 역으로 향했다. 바쁜 걸음을 옮기던 그가 미심결에 뒤를 되돌아보니 손경석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모래무지만 돌아보

고있었다. 다시 되돌아선 박태호는 집으로 돌아갈념도 없이 일간 사람처럼 서있는 손경석을 보고있기가 답답하였다.

《점두룩 이렇게 서있으려우?》

《역장, 돌아가겠네. 돌아가겠어!》

손경석이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번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래바람을 헤쳐나갔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손경석이가 무슨 궁리로 섰다가 가는지는 바이 알길이 없었다. 박태호는 의아한 눈길로 사라져가는 그를 지켜봤을뿐이었다.

그런데 사업소로 곧추 찾아간 손경석이는 사람들앞에서 말했다는 것이다.

《난 책벌을 받고 법적추궁을 당했지만 이 고장의 모래바람을 막기전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몇사람만 더 주면 기어이 사방림을 조성하겠다는것을 당앞에 정식으로 제의하여 나섰다.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박태호는 사나운 마음의 모래바람을 모질게 이겨내고 일떠선 그의 완강성에 감탄하게 되면서도 무엇이 결심의 계기로 되었으며 또 무슨 수로 모래바람을 막자는것일가 하는 의문과 우려감이 생기었다.

기다리던 봄이 다가왔다. 손경석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시 산으로 올랐다. 이번엔 나무가 아니라 풀과 잡관목을 실어내려다가 모래에 파묻기도 하고 그우로 쌓기도 하였다.

바로 자기 몸으로 모래를 막았던것처럼 그는 풀단을 쌓아놓고 모래를 막자는 심산이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힌 풀단이 썩으면 거기다 풀과 나무를 심어나갈것을 타산하고있었다.

성공여부는 어떻든지간에 자연의 조화를 길들이고 이 땅을 가꾸어나가려는 그의 의척같은 결심에 박태호는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졌다. 그래서 그는 손경석을 도우라고 아들까지 사방림사업소에 입직시켰던것이다...

박태호가 새삼스럽게 지난날을 더듬어보며 깊은 감회에 잠기다보니 물고기가 달라붙는지 미끼를 떼우는지 전혀 몰랐다. 잡힌것은 가물치 한마리와 붕어새끼 한마리뿐인데 들고온 미끼는 어느새 다 떨어졌다. 멍어인 가물치가 물리는 날엔 다른 물고기가 안잡히는게 상례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마음도 뒤숭숭해서 더는 낚시질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낚시대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다.

소슬바람에 푸른 하늘과 잇닿은듯한 머리위의 상가지들은 썩-썩-파도쳐 설레이고있었다. 그 아래로 길게 뻗은 가지들에서는 머리에 칠보족두리 단장을 한듯한 후투디새들이 《궁궁-궁궁-》하고 지저귀다가 발걸음을 옮길적마다 놀란듯이 《썩-



썩-》하고 울며 좌우로 곧추 날아간다. 수림속의 여기저기에서는 《개-개-》하고 목청을 돋구는 개구마리와 《쫄로롱-쫄로롱-》하고 소리를 굴리는 노란 방울새의 구성진 울음소리도 들려오고 찌르럭거리는 찌르러기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눈앞에는 잡힐듯이 한들거리는 아지와 그 옆가지에서는 휘파람새와 쇠류리새가 마치도 2중창을 하듯이 《호-호-호르륵》《부리부리-베르루-》하고 간드러지게 우짖는데 그 맞은편 가지에서는 방창을 하듯이 《짓쫑-짓쫑-》하고 정열적으로 짖어댄다. 그러면 땅밑에서는 꼬리짧은 팔색조가 춤추듯이 장단맞추어 쾅쾅거리며 흥취를 돋군다.

이렇게 수림속에서 갖가지 새들이 방울굴리듯이 가락맞추어 우짖는 소리며 뛰노는 모습은 박태호의 귀와 마음을 간지럽혔다.

그는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에서 사나운 모래바람의 소름끼치는 굉음이 아니라 즐거운 새들의 지저귂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회오리광풍이 휘몰아치기로 이름난 우리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이 지대가 록음방초 우거진 수려한 산천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드던 이곳으로 지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땀해야 땀수 없는 살붙이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땅에서 사는 남모르는 기쁨과 사랑을 안고 이 수림속을 즐겨 거니는것이며 그때마다 숲속에 깃은 손경석령감의 수고를 두고 잊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도 손령감의 70 뉘 생일상을 잘 차린것인데...)

이런 명상에 잠겨건던 그는 뜻밖에도 가쁜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머느리인 순녀와 만났다.

《아버님, 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 친정아버지가 거름때문에 프락포르운전수와 다름질이 벌어졌어요.》

《이런 변이라고야. 사둔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순녀는 머리수건을 고쳐쓰며 전후사연을 털어놓았다.

《저 남새농장동무들이 전번 아버지 70 뉘 생일때에도 상에 놓으라고 참외랑 수박이랑 과일남새들을 그렇게 성의껏 가져왔했기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 거기 온실거름이 모자라 애먹는것 같기에 모아놓은 거름을 먼저 실어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프락포르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무턱대고 막아나섰으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사연을 사둔님은 아시느냐?》

《최고집을 부리는 아버지가 통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머느리의 말을 듣고보니 그에게는 작업소 일을

승급스럽게 막아나선 손령감의 거동이 온당치 않게 여겨졌다. 그는 손령감이 젊은 운전수한테 망신을 당할것 같은 근심이 들었다. 그는 숨이 차도록 걸음을 다그치였다.

프락포르는 거름을 한삽도 떠신지 못한채로 통탕거리며 떠나가고 거름무지앞에서는 손령감이 관리공들을 세워놓고 목청을 돋우고있었다.

《그래 이 거름을 남한테 주자고 모아놓은줄 아느냐? 이제 다시 이 거름에 손을 댔단바라!》

《아바이, 알았수다, 알았어요!》

누군가 나이많은 손령감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대답임에 틀림없었다.

손령감은 박태호를 보자 마치도 자기 편역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듯이 반색을 하며 말했다.

《아니 글썽 이 젊은이들이 도저히 안될 일을 한단말일세. 누군 남줄출 몰라 안주는가 하는게지. 흥, 패썹하게...》

박태호는 손령감이 순녀의 심정을 너무나도 몰라주는것 같기에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한마디 하였다.

《참, 사둔님두. 어떻게 제 욕심만 차리겠소. 이젠 여기 관리사업을 젊은이들에게 맡기시우다. 거름에 이르기까지 비치면 그들이 어떻게 일하겠나요?》

손령감은 천만뜻밖인듯이 꺾끗한 눈길로 박태호를 뚫어지게 보다가 내쫓았다.

《자네도 그렇게 궁리가 짧은가? 그래 이 모래땅우에 서있는 나무들은 거름없이도 자란다던가? 남을 주는것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그애들이 자기의 귀중한 나무들을 애지중지 키울줄 모르는게 안타까와 그러네.》

모래바람속에서 고초를 겪으며 살았다는 자네가 그런 소릴 하니 섭섭하네, 섭섭해!》

손령감은 입이 쓰거운지 더는 상종하려 하지 않고 삼을 들더니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사라져 버렸다.

도리어 속궁리가 짧다고 손령감의 나무람을 받은 박태호는 어처구니가 없어 서있는데 모여서있던 관리공들이 흩어져갔다. 그들중에서도 애티나는 처녀들이 저들끼리 총알거리였다.

《나무에 거름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예.》

《그러게말이야. 과일나무라면 몰라라.》

《호호호...》

《하하하...》

처녀들은 웃음을 뒤에 남기고 갔다. 이 웃음소리를 들으니 박태호는 대뜸 화가 치밀어올랐다.

《나무에 거름주는것도 모르다니...》

처녀들을 힐책하며 섰던 그는 문득 자기도 저철부지 애들과 같다고 해서 손령감이 나무란것이 나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도리머리를 쳤다.

《사둔령감에 대한 순녀의 마음이 기록해서 한 말인데 뭐 섭섭하구나? 누가 할 소릴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는 손령감이 패썹하였지만 꼭 만나서 꼭해된 그의 마음을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손령감을 찾았다. 손령감은 바람목에 빼곡이 우거진 소나무밭에서 순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땅을 두치고있었다. 나무마다에 거름을 묻어 주려는게 틀림없었다.

《이 소나무들의 잎을 좀 보라. 여름철이 다 되었어도 물이 오르지 못하는걸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거름을 주자는게다.》

손령감이 순녀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박태호는 그들앞으로 나설수 없었다.

잠시후 순녀의 간절한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아버진 우리 심정을 알거나 하고 그러세요? 농장사람들도 아버지질 생각해서 이번 70 뽕 생일에 남새과일을 보내주었기에 하도 고마와서 거름을 먼저 돌린것인데...》

순녀는 물리해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길로 쳐다보고있었다. 그럴수록 손령감의 언성에는 더욱 분기가 어리었다.

《그게 틀렸단말이다. 너희들이 나의 70 뽕 생일을 위해 힘쓴것만큼 나무를 정성들여 가꿨다면 이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겠나. 그런 인심을 쓰기에 앞서 이 사방림에도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다는걸 생각해야지! 저절 보려무나. 누렇게 황이 드는 모양을...》

손령감은 간신히 걸음을 옮기더니 떨리는 손으로 시들어가는 소나무를 그려안고 쓰다듬었다.

《이렇게 나무가 빨리 시들다니...》

손령감은 나무를 울리보고 내리보고 하더니 《아니야, 죽일수 없어!》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또 나무를 안고 쓰다듬었다.

순녀는 이를 보고 서있기가 안타까운지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다가 입을 열었다.

《저절로 죽어가는 나무야 우리들 어떻게 하겠나요. 대신 다른 나무를 떠다심으면 될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말이라고 해! 우린 모래땅우에서도 이 나무들과 풀들을 심고 자래왔다.》

손령감은 눈앞에 보이는 《마누새》란 풀을 가리키더니 말을 이었다.

《난 저 풀들을 불적마다 너의 시아버지가 여기 모래땅에 첫 풀뿌리를 심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곤 한다.》

난 그때 철도일로 바쁜 그 사람에게 수골 끼친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겠단말이다.》

절절한 목소리로 순녀에게 들려주는 손령감의 말은 박태호의 가슴속에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꿈틀거리게 하였다. 그에게는 까마득하게 잊

었던 기억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의 안개속을 헤치며 력력히 떠올랐다.

...손경석은 모래에 파묻은 풀단들이 썩어가자 겨울철에도 모래우에서 사는 생활력이 강한 풀을 찾았다. 그는 식물원에도 가보았으며 식물계의 이름있는 학자들도 몇명 만났다. 그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모래땅에 뿌리내리고 모진 겨울추위를 이겨내는 초식물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실망하고 돌아왔으나 주저앉을수 없었던 그는 동서해안의 모래땅을 다 밟아서라도 기어이 찾아낼 결심으로 배낭을 지고 떠났다. 하지만 한달이 넘는 편답의 길에서 허탕을 친 그는 독감만 걸머지고 돌아왔다. 박태호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손경석은 40 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그러다가도 간신히 눈을 뜨면 헛소리처럼 《벽산리에 그런 풀이 있다는데...》라고 외우며 운신못하는 제 몸을 두고 못내 안타까와하였다.

이런 정상을 목격하는 박태호의 가슴에는 뜨거운 충격이 무시로 솟구쳐올랐다. 그는 눈확이 폭꺼진 손경석의 수척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외웠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심장이 고동치고있단말인가? 무엇을 위해 이다지도 모지름을 쓴단말인가?》

그는 이 땅을 록음질은 대지로 꾸리려는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는듯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모래바람으로 하여 고향땅을 버리고 떠나고싶던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나서자란 이 땅을 고향이라 부르기에는 닳이 간지러웠다. 손경석을 돕기로 마음먹고 돌아온 그는 역에서 제기되는 바쁜 화물수송을 하루이틀사이에 처리하고나서 벽산리를 찾았다.

그런데 난치벌앞으로 잇닿아 펼쳐진 모래불우에서 앓고있으리라고 여겼던 손경석이와 만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로 어깨를 그리안았을 때 손경석의 반가움은 컸다.

《자네까지 우릴 도와나서다니... 고맙네, 고마와!》

《그런 소리 마시우다. 내 고향땅의 모래바람을 막는 일을 어떻게 형님에게만 맡겨두겠소.》

그보다도 앓던 몸으로 왜 예까지 찾아오셨소?》

《우리가 찾는 풀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디 누워있을수 있더라구!》

이렇게 말하며 손경석은 짐짓 웃었지만 그의 터갈라진 입술은 상처자리에 소금물을 끼었었을 때처럼 박태호의 마음을 아리게 하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 두사람은 이름도 형태도 모르는 풀을 찾아 모래불을 훑어나갔다. 바다가와 강기

숨을 돌아보는 손경석은 바람이 불어칠적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비칠거리었다. 박태호는 안심치 않아서 앉아있기를 권했으나 그는 웃음이 보일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겨울철의 노루꼬리같이 짧은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고있었다. 손경석은 기력이 없어서인지 바위앞에 쪼그리고앉아 담배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박태호에게도 눈에 띄는 풀이 없었다.

그는 이 막바지에서 손경석이가 손맥이 풀려 단념하는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를 근심하며 다가갔다. 그런데 그는 생각과는 달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초간히 떨어진 마을쪽을 향해 걸어갔다.

박태호는 영문을 모르고 기다렸다. 한시간도 되나마나한데 손경석은 머리가 허연 아با이를 앞세우고 굽인돌이에 나타났다.

《그 풀이 당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는지 모르겠는걸!》

아바이의 이 말을 듣고서야 그는 손경석이가 이 지대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것을 알았다. 아바이는 양지바른 바위앞으로 곧추 다가가더니 어렵지 않게 찾아내여 가리키었다.

《바로 이 풀이라오!》

두사람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쏠리었다. 분명 모래땅에 뿌리내리고 푸른 잎이 나풀거리는 풀이었다. 손경석은 환각이 아닌가싶어 똑똑히 확인해보려는듯 잎새를 뜯었다. 잎사귀가 찢리운 대줄기안에서는 진이 나왔다.

《진짜구만! 진짜야...》

그들의 환성은 우암산기슭으로 울려퍼져갔다.

《인젠 되였네, 되였어!》

손경석이와 박태호가 아이들처럼 좋아하는것을 보고 아바이도 신명이 나서 말주머니를 열었다.

《-이 풀을 여기서 <마누새>라 한다오. 메마른 모래땅에서 부릴 бак도 겨울을 나는 질긴 풀이라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녀이 어린 풀이라 했다오!》

《아바이,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덕분에 버림받던 풀이 오늘이야 귀한 풀로 됐소그래!》

이렇게 말하는 아바이의 주름잡힌 얼굴에도 기쁨이 물결치고있었다.

손경석은 맨손으로 정신없이 모래속에 깊이 박힌 《마누새》의 뿌리를 파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서리맞은 풀잎처럼늘어지더니 그는 정신없이 모로 쓰러졌다. 박태호는 놀라며 그를 안아일으켜 이마를 짚었다. 정신을 잃은 그의 이마는 불덩이였다. 박태호는 아바이의 도움으로 마을의 진료소에 그를 입원시켰다.

그날저녁 그는 쓰러지면서도 풀을 찾아온 손경

석의 모대기는 심정과 배낭속에 캐넣은 귀중한 풀뿌리가 말라가는것을 생각하니 바늘방석에 앉은듯 그대로 그 밤을 지내기에는 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손경석을 대신하여 《마누새》의 풀뿌리를 캐넣은 배낭을 둘러메고 밤길을 떠났다.

다음날 그는 배낭을 사방림사업소에 인계해줄 수도 있었지만 고향땅에 자기의 성실한 노력을 바치고싶은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물판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그는 풀단을 묻어놓은 모래땅에 《마누새》의 첫 뿌리를 심어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소식이 궁금하여 찾아왔던 순녀도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인지 말없이 탄력있는 몸동작으로 삽과 괄지를 엇바뀌가며 무릎치게 덮인 모래를 걷어제끼고 언땅을 쪼아나갔다. 일손을 도와나선 순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를 둘도 없는 머느리감으로 점찍어둔것도 바로 이날이었으리라...

그때 겪었던 일이 새삼스럽게 눈앞에 떠오를수록 박태호는 자기의 수고보다 남이 해놓은 일을 더 소중히 기억하고있는 손령감의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모래바람을 막아낸 그 수고에 비하면 내가 한게 뭐라고...)

손령감이 해놓은 가지가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는 오늘 거름을 가지고 머느리를 두둔한것이 돌이킬수 없는 경교당동으로 간주되였다.

이런 상념에 묻히다보니 그는 손령감이 자리를 뜨는줄도 몰랐다.

지금은 머느리만 한자리에 오도카니 앉아 무슨 생각엔가 골똘히 잠겨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짓으며 다가가 시들어가는 소나무를 살펴보았다. 제일 큰 아래가지가 부러졌던 자리가 웅지로 된것을 보니 눈에 익었다. 몇해전에 태풍이 지날 때 넘어졌던 그 소나무가 분명하였다. 그때 손령감이 낚시터에 나가있었다가 큰 물고기가 들어채는 바람에 낚시대가 강물속으로 끌려가는것도 건질념을 하지 않고 소나무때문에 자리를 뜨던 일이 생각키웠다. 그날 박태호가 옷을 입은채로 가슴치는 물속에 뛰어들어 그 낚시대에서 두손바닥을 합친것만짝이나 꼬리가 큰 잉어를 잡아냈던것이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가지마다 잎이 유별나게 누렇게 마르는것을 보니 살것 같지 못하였다.

향토를 꾸리기 위해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사람들의 눈이 덜 미치는 한그루의 소나무를 두고 애지중지하는 손령감의 심정을 모르고 지낸 자신이 방금전에 만났던 철부지 처녀에들과 같다는 가책이 들면서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런 기색이 머느리의 눈에 띄울세라 그는 나무만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둔님은 어디로 가시더냐?》

자리에서 일어난 순녀는 대답했다.  
《저를 나무라시더니 저 소나무를 살려야겠다면서 어데론가 가셨습시다.》

소나무앞에는 손령감의 삽가락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인차 돌아올 모양이다. 그런데 다스려진 삽날은 자석과도 같이 그의 눈길을 유인하며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삽을 들고 다니던 손령감의 삽이 한해도 채 못가서 모지랑이 삽이 되어버리곤하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칠순이 다된 오늘도 저렇게 삽날이 다슬도록 이 수림을 위해 들고다녔다고 생각하니 박태호는 뜨거운것이 목젖까지 치밀어오르는듯하였다. 그는 머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사돈님의 말을 약이라 생각하고 나무들에 거름도 자주 주어서 잘 가꿔라. 오늘은 나도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

순녀는 아직도 아버지인 손령감의 말이 잘 내려가지 않는지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손령감이 두손에다 하나씩 병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나무에다 물을 주려는가싶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손령감의 소리치네가 뒤따라오면서 자꾸만 병을 빼앗으려들었다.

《령감, 제발 한병만이라도 날 주소구려. 아들과 며느리의 성의를 봐서라도말이우다.》

들려오는 말이 심상치 않아서 박태호는 마주 걸어나갔다. 로친은 사돈을 만나자 도와달라고 실토정을 하였다.

《저 령감이 실성을 했지. 나무를 살리는데는 술이 약이라면서 령감 70 뽕 생일상에 놓았던걸 아들며느리가 일부러 숨겨놓았더니 저걸 글썽 다 들고나오질 않았겠소. 술이라면 성을 내다가도 웃는 저 령감이말이우다.》

박태호는 어안이 병병해서 잠시 섰다가 무작정 손령감의 손목을 잡았다.

《사돈님, 아무리 저 소나무가 귀중하기로서니 약술을 쏟아줄수야 없지 않소!》

《자네까지도 정 그럴텐가?》

언젠가 자넨 나에게 이 수림이 이 고장사람들과는 뗄수 없는 살붙이라고 했지! 몸에 난 종치는 아픈줄 알면서도 저 나무가 죽어가는걸 아파할줄 모른다면 우리가 어찌 체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나무 한그루가 죽으면 두그루가 죽을수 있고 다음번에 심은 나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정든 땅에 또다시 모래바람이 불어치지 않겠나말이네!

그래도 내가 죽어가는 나무를 두고 나만 오래 살자고 이 술을 마셔야 하는가? 어디 한번 말해보게!》

《...》

손령감의 말에 눈물이 흐른 로친은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박태호는 심장이 쿵쿵 뛸뛸할 말이 없었다. 그제야 순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팔목에 매달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저것만은 다치지 말아주세요!》

《인생말년에 한번밖에 없는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자식들의 성의로 받아주어야지요.》

박태호의 말에 손령감은 나무를 기대고있더니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심중에 간직되어있던 이야기를 터치었다.

《사돈은 말년에 편히 잘 지낼것을 늘 나한테 권하는데 고맙네. 허지만 인생말년이란 사라져가는 저녁노을과 같은것이야 아니겠지?》

봄여름만이 아니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시들줄 모르고 우리가 사는 향토를 지키는 이 소나무나 저 <마누새>가 얼마나 좋은가! 난 저것들을 볼 때면 말년을 살아온 한생을 빛내는 절정기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곤하네! 그래서 난 늙어갈수록 여기에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더 가꿔서 이 땅을 영원히 모래바람이 없는곳으로 만들고싶거든! 그걸 지금 저 순녀랑은 모른단말이네!》

《아버지 심정을 이제 정말 잘 알았어요.》

《넌 내가 고작 술 두병을 놓고 말이 많다고 원망하겠지만 난 이 술 두병이 너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었으면 해서 그러는거다.》

순녀는 주춤거리며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러자 바빠맞은것은 로친네였다. 로친은 팔을 어데론가 떠밀어보내더니 저고리팔소매를 걸어붙이고 병을 높이 들어 흔들며대며 역설이다.

《에그, 그만 하시오. 령감 마음을 잘 알겠수다. 이 술이 귀하다 해도 령감의 그 마음보다 더 귀하리까. 자, 령감소원을 품시다.》

로친은 술병을 들고 소나무로 다가가더니 파헤쳐진 나무들레를 돌아가며 고루 쏟아부었다.

술이 풍풍거리며 쏟아지는 소리는 박태호의 귀청을 아츠럽게 지지였다. 그는 쏟아지는 술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맑은 술은 해빛을 받아 령롱한 빛을 뿜으며 흘러내리더니 검은 모래흙속으로 잦아들었다. 순간 박태호는 많지 않은 술이었건만 향토애의 넋을 지닌 손령감의 마음이 그대로 이땅속에 속속들이 스며드는듯하였다.

로친은 두번째 병을 쏟으며 외었다.

《아무렴, 우리 령감의 직심이 풀리면야 이걸 가져온 아들과 머느리도 기뻐할거우다.》

이때 순녀가 고뿌 두개를 들고 또 나타났다.

로친은 둘째 병에서 술을 밑굽에 좀 남기더니 순녀가 가져온 고뿌에다 찰찰 넘치게 따라 사돈인 박태호와 손령감에게 권했다.

《자 이제 소원이 풀렸으니 령감들도 건강을 위하여 한잔씩 드시우다.》

《로친네, 그건 참 잘 생각했소. 정말 내 심정을

잘 맞춰주거든.

사둔, 자네도 어서 쪽 들게!》

고뿌에 골딱 찬 맑은술에서는 독특한 삼향기가 물씬 코를 찌르며 군침을 삼키게 하였다. 박태호는 고뿌를 받았지만 내려다볼뿐 입을 뗄수가 없었다.

한생에 한번밖에 없는 대사를 치른 70 뚱 생일 술까지도 나무에 쏟아주며 기뻐하는 손령감을 보는 오늘 그는 한고뿌밖에 안되는 술을 두고도 마실 자격을 먼저 따져보게 되면서 천근무게로 여겨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온 낙시대와 두마리의 물고기에서 인생말년을 내리막으로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식들이 잘되거나 바라고 집안의 경사를 잘 치르는 것과 같은 가정적테두리안에서나 기쁨을 찾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나 아닐가?)

이런 생각이 뇌리를 치는 순간 그는 가슴이 울컥하여 눈길을 떨구었다.

모래땅에 깊이 뿌리내린 풀들도 다 잎이 시들어 조락하는 겨울철에도 푸르싱싱 살아서 설레이는 《마누새》 풀을 보노라니 어쩌면 이 모래땅에 찾아와 뿌리내리고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나가는 손령감의 체취가 그대로 감득되는 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령감과 《마누새》, 《마누새》와 손령감...

아무리 갈라내려고 하여도 하나로만 보였다.

그도 저 소나무와 《마누새》처럼 살아가는 손령감과 같이 말년을 사라져가는 황혼기가 아니라 삶의 절정기로 삼고 고향땅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데 모든것을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는 들었던 술을 단숨에 쪽 들이켰다. 목이 뜨끔함을 감각하며 머느리를 돌아보았다.

순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는지 《마누새》의 첫 뿌리를 심던 그날처럼 말도 없이 나무둘레를 파고있었다.

박태호는 머느리를 대신해서라도 한마디 해야 하였다.

《사둔님, 노여워 마시우다. 우린 생각이 짧았드랬수다.》

손령감은 손을 내저었다.

《그런 당치 않은 소릴 하지도 마오. 나무들이란 모래땅에선 거름을 주어야 살기에 내 소릴 쳤던게지. 그리고 저 순녀란 애도 이전에 모래먼지로 눈을 늘 비비며 울던 때를 벌써 잊었더란말일세.

하지만 자네나 나나 모래바람을 처음으로 헤치던 때의 그 심정이야 어델 가겠나. 허허허...》

수립속에서는 거나해진 손령감의 너그러운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박태호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여서 따라웃었다. 그 웃음소리들이 흘러가는 하늘의 공간에는 무지개가 비껴있었다.

## 네 숨결소리를 들으며

- 유화 《어린 머슴군의 쪽잠》 앞에서 -

김종원

행복과 기쁨의 숨결소리  
해빛밝은 이 땅에 흘러넘치는데  
부르기조차 피로운 어린 머슴군아  
너는 오늘도 썩은 새초단에 몸담고  
눈물과 설음의 쪽잠에 들었구나

작은 어깨를 누르는 고역이 무거워  
일어서질 못하느냐  
차디찬 눈길에 쫓기여  
여기 외양간에서 이 밤을 보내느냐

책대신 작은 잔등에 저나른 풀단은  
저 마당가에 얼마나 높은가  
눈치밥 한덩이 삼키고  
큰 지주집 일손을 다 거들으는  
네 작은 가슴엔 너무도 일찌기 어른이 왔구나

아, 소년아  
수난자의 어린 가슴에 쏟던 피눈물

작은 몸통이에 감기던 멸시의 못매  
정녕 못잊어 잊을수가 없어  
너는 수난의 증견자로 화쪽에 굳어졌느냐

아니면 그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도 배불리는  
그놈들이 보기싫어 눈을 감았느냐  
인민이 주인 되고 잘사는 때를  
꿈에나마 보려고 눈을 감았느냐

오, 소년아 이제 눈을 뜨거라  
네 설음에 절고젖은 고역의 뒤산엔  
애들의 등산길이 희망처럼 열렸다  
네 한숨이 흐르던 버들방천엔  
추녀높은 학교가 꽃구름과 마주웃는다

어서 일어나거라  
나날이 행복이 커갈 때마다  
눈물의 숨결을 잊지 않는 이 땅엔

다신 그런 쪽잡이 깃들지 못한단다  
수필

다신 그런 교역의 숨결이 없단다

## 전력적산계는 가리킨다

박창민

평범한 저녁이었다.

무쾌도전차에서 내린 나는 퇴근길에 향유 느끼는 가벼운 피로와 뒤섞인 쾌감을 동시에 맛보며 아빠트승강기에 올랐다. 잠시후 승강기에서 나와 복도를 꺾어드니 우리 집 다섯잘잡이 철이가 뒤집을 척 지고서서 출입문 옷쪽을 쳐다보고있었다.

거기에는 주먹만한 전력적산계가 붙어있었다. 그것을 골똘히 바라보는 철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온 넋을 기울여 신비의 세계를 관찰하는 꼬마학자와 비슷해보였다.

하나, 둘... 수자판들이 뒤바뀌며 루게수자를 새겨가고 알락달락한 둥근 원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적산계는 지금 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동심을 꼭 부여잡고있었다.

철이는 한참만에야 나를 돌아보고나서 생긋 웃었는데 눈동자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어려있었다.

《아빠, 저건 뭐나요?》

《적산계란다.》

《아, 빨리도 돌아가네!》

적산계의 둥근 원판을 보고 하는 말이였다.

《응, 빙빙 잘 돌아간다.》

《빨리 돌아가면 난 싫어!》

《어째서?》

《엄마가 걱정하는데 뭐.》

《...》

《아빠, 적산계라는건 뭐나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데 저건 또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건...》

나는 입을 열었으나 곧 대답할수가 없었다.

전력적산계라는건 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가리키는 계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뎡자이 철부지가 쉽게 납득할것 같지 못했다. 보다 알기 쉽고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였다.

매일같이 스쳐보기도 하고 무심히 지나치기도 하는 우리 집 적산계-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무엇을 깨우치며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다.

철이는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가웃이 쳐다본다.

그러나 선뜻 대답을 줄수 없다.

나는 우선 내 심장에 물음을 던져야 하며 거기서 대답을 찾아야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속에 새기는 나의 가슴은 새로운 흥분으로 높뛰였다.

저 전력적산계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루게량을 알려준다. 그 전력량은 실로 엄청난것이다. 우리 집 조명등만 놓고보아도 네개의 형광등과 두개의 전등, 탁상등에 텔레비존, 전기다리미, 전축, 선풍기, 랭동기, 세탁기... 그러니 전력적산계가 알려주는 수자는 참으로 놀랄만한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 풍만해지고 유족해지는 우리 가정에 전기용품이 늘어날수록, 우리 행복이 꽃피날수록 저 적산계의 원판은 점점 빨리 돌아갈것이다.

마치도 우리가 누리는 문화생활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만 같다.

그러나 급격히 들어가는 적산계의 수자들을 보고 행복에만 잠길수 없는것이 지금 나의 심정이다.

우리 생활에는 엄청난 전기세를 물라고 독촉하는 착취사회의 빚쟁이들 성화같은것은 물론 찾아볼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저 전력적산계의 수자들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짐은 무슨 까닭인가?...

적산계의 둥근 원판은 여전히 빙빙 돌아간다.

《빨리 돌아가면 난 싫어!》

철이의 말소리는 다시금 내 가슴을 울린다.

천진한 어린이의 포랑포랑한 말소리는 사회주의근로자의 공민된 자각을 다시금 깨우치는것만 같다.

그렇다. 전기절약은 우리 사회 매 인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묻게 되는 자기 심장과 리성의

목소리이다.

받아안은 행복과 복된 삶에 대한 고마움과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열망이 없이 무심히 전력적 산계의 수자를 마주보거나 스친적은 없었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자기에 묻는다.

돌이켜보면 령으로부터 건설을 시작한 우리 나라의 산업을 발전된 공업국가의 산업으로 부흥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과 배려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거창한 우리 산업의 심장이며 동력인 우리의 전력공업은 오늘 더욱 역센 비약의 나래를 치며 전진하고있다.

얼마전에 다녀온 태천발전소건설장의 장엄한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눈뿌리 아득하게 솟아오르는 판평언제, 영광스러운 당의 뜻을 꽃피워가는 금지로 붉게 타던 언제건설자들의 열기띤 눈빛,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밀려드는 지원의 물결... 실로 이 땅우에 보다 현대적이고 거창한 전력공업을 창설하려는 영광스러운 당의 의지를 심장에 간직한 온 나라 마음들의 충성의 분출을 보는 심정이였다.

나도 취재의 잠시간에 건설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발전소건설을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애를 썼다.

온 나라에 맥맥히 굽이치는 그 충성의 흐름을  
가사

따르는 나의 발걸음은 지금 가정에 들어서서도, 퇴근후의 시간에도 멈출수 없는것이다.

나의 공민적자각과 시대의 의무감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시각, 더더욱 무심히 스칠수 없는것이 바로 저 전력적산계이다.

적산계는 말이 없으나 나의 량심을 비추는 거울인듯 나를 마주본다.

(너는 삶의 순간순간을 당의 뜻대로 숨쉬고있는가, 나라의 살림살이와 통성을 위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전력적산계의 수자는 나의 가슴한복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묻는듯싶다. 내 량심을 재여주는 척도처럼...

나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났다.

앞치마를 가쁜히 두른 안해가 문밖으로 나오며 반갑게 내 가방을 받아들였다.

부엌쪽에서 수도물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들리는것만 같다.

《아이참, 내가 수도를...》

안해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서둘러 뛰어가고 나는 철이를안고 방으로 들어간다.

철이는 여전히 나를 보며 대답을 재촉한다.

《아빠, 적산계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응, 이제 말해주마, 적산계는 사람들의 량심을 가리켜준단다...》

## 대동강

정성환

물맑은 강변에 뛰놀던 시절  
나는 몰랐네 대동강아  
춤추며 흘러가던 너의 물결이  
내 가슴에 조국으로 고이는줄을  
아, 조국으로 고이는줄을

하많은 추억을 - 불러주면서  
흘러흐르는 인민의 강아  
주체의 해불아래 흐르는 꽃물결

어디가나 내 가슴에 출렁인다네  
아, 내 가슴에 출렁인다네

정다운 물결에 손잡으면  
새힘을 안겨주는 어머니강아  
할일이 많은 이 가슴에  
그 언제나 조국애를 불태워다오  
아, 조국애를 불태워다오

## 녀인의 눈길에는 외 1 편

정문향

말없는 녀인의 눈길에는  
불길이 일고있다  
이제는 찾아볼수 없다  
갓 서른 나이의 뽕뽕하던  
그 몸매도  
치렁치렁  
앞가슴에 흘러내리던  
그 검은 머리채도

잊을수 없는 세월속에  
잊을수 없는 그 모든것  
품팔이 떠났던 제나라 제땅  
70 리도 못되는곳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리라곤  
꿈에서조차 생각할수 없었다.

늙은 어머니를 두고간 아들  
젊은 안해를 두고간 남편  
그 얼굴도 채 잊히지 못한  
갓난 딸의 불을 만지며  
집을 나선 그 아버지가

허나 오늘까지도 미국놈들은  
조선땅을 갈라놓고  
온갖 살육과 만행으로  
남녘땅을 피바다로 만들고  
포악한 그 총칼로  
우리의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가로막고있다

다시 되찾을수 없는  
젊은 나이를  
녀인은 송두리채 빼앗겼다  
놈들이 빚어낸 치떨리는 불행속에서

문을 나선 아들의 모습을  
두번 다시 보지 못한채  
늙은 어머니는  
끝끝내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그리며  
어머니의 가엾은 심정을  
말없는 가슴에 묻으며  
어린 딸은 자라며 컸다

부모친척도 줄수 없는  
꿈같은 살림과  
주고주는 당의 한없는 사랑에  
목매일 때마다  
사무치는 그리움은  
불행한 남편의 설움으로  
북받쳐올랐다

스적이는 가벼운 옷도  
꽃피는 공원길의 웃음소리도  
언제나 마음의 한구석에 비여있는  
그 빈자리는 채워주지 못한채

세월은 흘러 어느새  
머리엔 흰서리 내렸고  
눈가에는 늙은 할머니의  
잔주름이 끼였으니

미국놈이 들썩은  
무서운 민족의 불행은  
40 여년 기나긴 세월  
남편과 안해를 갈라놓고  
그의 인생을 짓밟았다

이제는 그 아픔을  
간직한 세월도  
이 땅에서 더 흐를수 없다  
다만 이 땅에서  
미국놈을 모조리  
쓸어버리지 않는한

오늘도 녀인은  
말없이 남녘땅을 바라본다  
불이 이는 그 눈길로  
불이 이는 그 눈길로



#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미국놈들이  
그 무슨 《평화》나  
《공약》을 위하여  
40 여년  
남녘땅에 도사리고있는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것을  
피를 흘리며 알았고  
놈들이 재더미로 만든 폐허우에서  
이미 똑똑히 보았다

오늘도 놈들의 간첩비행기가  
우리의 령공에 떠있고  
놈들의 총포탄은  
무시로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있다

그 아무리  
피묻은 이발을 가리우고  
판문점의 푸른 탁상보우에  
흰 팔꿈치로 턱을 고이고  
주문처럼 《안보》와 《공약》을 외워도  
우리는 안다  
벌써 우리가 약하다면  
이미 놈들은  
우리 땅을 집어삼켰을것을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놈들은 기회만 노리고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질 틈만 있다면  
어느때건 가림없이  
집어삼킬수 있다고

놈들은 울부짖는다  
집어삼킬래야 삼킬수 없는  
우리의 그 힘에 놀리어  
미치고 여원 승냥이처럼  
버릴수 없는 그 야망에 눈이 어두워  
오늘도 분별없이 울부짖는다

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언제나 순간을 노리는  
미제국주의의 그 본성을  
그때문에 우리는  
손에서 총을 놓지 못하고

그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창조와 건설의 열풍 세차게 일으키면서도  
한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있다